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11-03-16

# 중국 동포 자녀 가치 및 양육 실태 연구

-한족과 조선족 비교-

서 문 회(육아정책연구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11-03-16

# **중국 동포 자녀 가치 및 양육 실태 연구**

-한족과 조선족 비교-

서 문 회(육아정책연구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제 출 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중국 자녀양육 가치관 및 양육 실태 연구”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2011년 중국 종합연구”

###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1-03-16	중국 자녀양육 가치관 및 양육 실태 연구 - 한족과 조선족 비교	육아정책연구소

###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육아정책연구소)
협력연구기관	중국 연변대학교 민족연구원 조선족 교육연구소	박금해	



# 목 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제1장 서론 .....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7
제2절 연구내용 .....	9
제3절 연구방법 .....	10
제4절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 .....	14
제5절 선행 연구 .....	22
제2장 자녀에 대한 기대와 가치 .....	31
제1절 자녀에 대한 일반적 태도 .....	31
제2절 자녀 장래에 대한 기대 .....	39
제3절 소결 .....	46
제3장 자녀양육 실태 .....	48
제1절 자녀양육 관련 정책 개요 .....	48
제2절 자녀양육 분담 .....	52
제3절 자녀 양육 관련 태도 .....	71
제4절 소결 .....	92
제4장 육아지원기관 관련 제도 및 이용 실태 .....	95
제1절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제도 및 정책 .....	95

제2절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 .....	106
제3절 사교육기관 이용 .....	120
제4절 소결 .....	122
제5장 논의 및 정책제언 .....	125
제1절 중국 조선족과 한족의 자녀가치와 양육 특성 .....	125
제2절 중국 조선족 대상 정책 추진 방향 .....	128
참고문헌 .....	134
부록 .....	138
부록 1. 부록 표	
부록 2. 중국 자녀양육 실태조사 설문지	

# 표 목 차

〈표 1-1〉 자녀양육 실태 설문조사 항목 .....	11
〈표 1-2〉 미취학 자녀와 응답자와의 관계 .....	11
〈표 1-3〉 회귀분석 시 독립변수 .....	12
〈표 1-4〉 집단면접 대상자 특성 .....	13
〈표 1-5〉 응답 가구 아동 기준 가족 구성원 .....	15
〈표 1-6〉 응답 가구 자녀수 .....	15
〈표 1-7〉 응답 가구 소득 .....	16
〈표 1-8〉 자녀민족별 부모의 민족 특성 .....	17
〈표 1-9〉 자녀민족별 부모 연령 특성 .....	17
〈표 1-10〉 자녀민족별 부모 학력 특성 .....	18
〈표 1-11〉 자녀민족 및 지역별 부모 학력 특성 .....	18
〈표 1-12〉 자녀민족별 부모 직업 특성 .....	19
〈표 1-13〉 자녀민족 및 지역별 부모 직업 특성 .....	20
〈표 1-14〉 부모의 한국 거주 경험 비율 .....	20
〈표 1-15〉 조선족 부모의 한국 거주 이유 .....	21
〈표 1-16〉 자녀의 성별과 연령 .....	22
〈표 1-17〉 자녀의 한국 거주 경험 .....	22
〈표 2-1〉 자녀민족별 자녀 갖기에 대한 생각 .....	32
〈표 2-2〉 자녀민족 및 지역별 자녀에 대한 생각: 4점 평균 .....	33
〈표 2-3〉 조선족 부모의 자녀에 대한 생각 영향 요인 .....	33
〈표 2-4〉 자녀민족별 자녀 가치 인식 .....	35
〈표 2-5〉 자녀민족 및 지역별 자녀 가치 인식: 4점 평균 .....	36
〈표 2-6〉 조선족 부모의 자녀가치 영향 요인 .....	37

〈표 2-7〉 자녀민족별 부모의 자녀성(性) 선호 태도 .....	37
〈표 2-8〉 자녀민족 및 지역별 부모의 자녀성(性) 선호 태도: 4점 평균 .....	38
〈표 2-9〉 조선족 부모의 자녀성(性) 선호 태도 .....	38
〈표 2-10〉 자녀민족별 자녀장래에 대한 기대 .....	40
〈표 2-11〉 자녀민족 및 지역별 자녀장래에 대한 기대: 4점 평균 .....	41
〈표 2-12〉 자녀민족 및 지역별 자녀장래에 대한 기대 영향 요인 ...	42
〈표 2-13〉 자녀민족별 한국 관련 태도 .....	44
〈표 2-14〉 자녀민족 및 지역별 한국 관련 태도: 4점 평균 .....	45
〈표 2-15〉 자녀민족 및 지역별 한국 관련 태도 영향 요인 .....	45
〈표 3-1〉 중국 여성과 남성 취업률: 2000 .....	50
〈표 3-2〉 중국 노동 관련 보험 가입자 수 .....	52
〈표 3-3〉 자녀의 주 양육자 .....	53
〈표 3-4〉 대리 양육 월평균 비용 .....	56
〈표 3-5〉 자녀민족별 양육분담 .....	57
〈표 3-6〉 자녀민족 및 지역별 부부의 양육분담 .....	58
〈표 3-7〉 조선족 양육분담 영향 요인 .....	59
〈표 3-8〉 자녀민족별 부부간 성 역할에 대한 태도 .....	61
〈표 3-9〉 자녀민족 및 지역별 부부간 성 역할에 대한 태도: 4점 평균 .....	61
〈표 3-10〉 조선족 부부 성역할 영향 요인 .....	62
〈표 3-11〉 자녀민족별 자녀양육시 중요도 .....	63
〈표 3-12〉 자녀민족 및 지역별 자녀양육시 중요도: 4점 평균 .....	65
〈표 3-13〉 조선족 자녀양육시 중요도 영향 요인 미취학 아동 .....	65
〈표 3-14〉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	68
〈표 3-15〉 TV 시청시 한국 관련 프로그램 시청 .....	70

<표 3-16>	자녀민족별 자녀 양육 태도 .....	72
<표 3-17>	자녀민족 및 지역별 자녀양육태도: 4점 평균 .....	73
<표 3-18>	자녀민족별 자녀 양육 태도 영향 요인: 수용과 거부 ....	75
<표 3-19>	자녀민족별 자녀 양육 태도 영향 요인: 자율과 통제 .....	75
<표 3-20>	육아와 나의 인생의 중요성 .....	78
<표 3-21>	엄마의 직접 양육의 중요성 .....	79
<표 3-22>	자녀 훈육 방법 .....	80
<표 3-23>	아이의 능력 개발 .....	81
<표 3-24>	집단 대 개인 중심의 가치 .....	82
<표 3-25>	자녀 진로에 대한 의견 .....	83
<표 3-26>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식 .....	85
<표 3-27>	자녀민족별 자녀양육 정서 .....	87
<표 3-28>	자녀민족 및 지역별 자녀양육 정서: 4점 평균 .....	88
<표 3-29>	자녀민족 및 지역별 자녀양육 정서 영향 요인 .....	89
<표 3-30>	자녀민족별 생활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	90
<표 3-31>	자녀민족 및 지역별 생활과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4점 평균 .....	91
<표 3-32>	조선족 생활과 자녀양육에 대한 만족도 영향 요인 .....	91
<표 4-1>	중국 중장기 유아 교육 및 교사 양성 목표 .....	99
<표 4-2>	지정된 지방의 3-year Action Plans에서 구체화된 목표	101
<표 4-3>	3년 활동 계획(3-year Action Plans)의 투자계획 .....	102
<표 4-4>	중국 유아원 및 반 수 .....	105
<표 4-5>	중국 유아원 반 설정 특성 .....	106
<표 4-6>	아이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 .....	107
<표 4-7>	기관 이용 이유 .....	109
<표 4-8>	기관 선택시 중요 기준 .....	110
<표 4-9>	기관에서 평일 하루에 자녀가 보내는 시간 .....	111

〈표 4-10〉 유아원 교육·보육과정 사례 .....	114
〈표 4-11〉 기관 이용 월평균 비용(위안화): 비용지불 응답자 기준 .....	115
〈표 4-12〉 기관 이용 비용 지원(위안화): 정부 비용 지원 응답자 기준 .....	117
〈표 4-13〉 자녀 기관 이용 만족도 .....	118
〈표 4-14〉 향후 이용하고 싶은 기관 .....	119
〈표 4-15〉 사교육기관 이용 .....	121
〈표 4-16〉 월평균 사교육 이용 비용(위안화): 비용 지불 응답자 기준 .....	121
〈표 4-17〉 사교육 이용 만족도 .....	122

## 그림 목 차

[그림 2-1] 자녀민족별 자녀 갖기에 대한 생각 .....	33
[그림 2-2] 자녀민족별 자녀 가치 인식 .....	35
[그림 2-3] 자녀민족별 자녀의 장래에 대한 기대 .....	41
[그림 3-1] 자녀민족별 자녀양육시 중요도 .....	64
[그림 3-2] 지역별 조선족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	68
[그림 3-3] 자녀민족 및 지역별 자녀양육 태도: 4점 평균 .....	74
[그림 3-4] 자녀 민족과 지역별 자녀양육정서: 4점 평균 .....	88

## 부 표 목 차

〈부표 1〉 자녀에 대한 생각: 부모 되기는 가치 있는 일 .....	139
--	-----

〈부표 2〉 자녀에 대한 생각: 자녀 갖기는 사회에 대한 의무 .....	139
〈부표 3〉 자녀에 대한 생각: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음 .....	140
〈부표 4〉 자녀에 대한 생각: 결혼해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음 .....	140
〈부표 5〉 자녀 가치: 부부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줌 .....	141
〈부표 6〉 자녀 가치: 노년에 덜 외로움 .....	141
〈부표 7〉 자녀 가치: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142
〈부표 8〉 자녀 가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함 ..	142
〈부표 9〉 성선호 태도: 대를 잇기 위해서는 아들이 필요함 .....	143
〈부표 10〉 성선호 태도: 남아에게 교육 지원이 더 많이 필요 .....	143
〈부표 11〉 조선족 지역별 한국 관련 .....	144
〈부표 12〉 자녀의 장래 기대: 돈을 많이 버는 사람 .....	145
〈부표 13〉 자녀의 장래 기대: 명성을 얻거나 유명한 사람 .....	145
〈부표 14〉 자녀의 장래 기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 .....	146
〈부표 15〉 자녀의 장래 기대: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는 사람 .....	146
〈부표 16〉 자녀의 장래 기대: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 .....	147
〈부표 17〉 자녀의 장래 기대: 취미·여가 즐기기 아는 사람 .....	147
〈부표 18〉 자녀의 장래 기대 - 1순위 .....	148
〈부표 19〉 자녀의 장래 기대 - 2순위 .....	148
〈부표 20〉 한국 관련: 한국과 관련된 일 하기 .....	149
〈부표 21〉 한국 관련: 중국 소재 한국기업에서 일하기 .....	149
〈부표 22〉 한국 관련: 한국에서 일하기 .....	150
〈부표 23〉 한국 관련: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 .....	150
〈부표 24〉 한국 관련: 한국에서 공부하기 .....	151
〈부표 25〉 양육분담: 밥 먹고 옷 있는 것 .....	151
〈부표 26〉 양육분담: 함께 놀아주기 .....	152
〈부표 27〉 양육분담: 아플 때 돌봐주기 .....	152

〈부표 28〉	양육분담: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 .....	153
〈부표 29〉	양육분담: 보육시설, 유치원 등하교시키기 .....	153
〈부표 30〉	부부 성 역할 태도: 남편은 직업, 아내는 가정 .....	154
〈부표 31〉	부부 성 역할 태도: 취업모도 자녀 관계 잘 유지 .....	154
〈부표 32〉	부부 성 역할 태도: 맞벌이도 가족 생계는 남편 .....	155
〈부표 33〉	부부 성 역할 태도: 남편도 자녀 잘 돌볼 수 있음 .....	155
〈부표 34〉	부부 성 역할 태도: 노인 돌보기는 아내가 더 잘함 ..	156
〈부표 35〉	자녀양육시 중요도: 몸을 튼튼히 하기 .....	156
〈부표 36〉	자녀양육시 중요도: 기본생활습관 익히기 .....	157
〈부표 37〉	자녀양육시 중요도: 숫자와 글자 익히기 .....	157
〈부표 38〉	자녀양육시 중요도: 영어 등 외국어 배우기 .....	158
〈부표 39〉	자녀양육시 중요도: 한국어 배우기 .....	158
〈부표 40〉	자녀양육시 중요도: 중국어 배우기 .....	159
〈부표 41〉	자녀양육시 중요도: 예술적 재능 키우기 .....	159
〈부표 42〉	자녀양육시 중요도 - 1순위 .....	160
〈부표 43〉	자녀양육시 중요도 - 2순위 .....	160
〈부표 44〉	자녀양육태도: 자녀와 격의 없이 즐거움을 나누기 .....	161
〈부표 45〉	자녀양육태도: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느낌 .....	161
〈부표 46〉	자녀양육태도: 와락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칩 .....	162
〈부표 47〉	자녀양육태도: 잘못된 행동 그냥 넘어가지 않는 편 .....	162
〈부표 48〉	자녀양육태도: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게 하는 편 ..	163
〈부표 49〉	자녀양육태도: 부모 말에 절대 순종 필요 없음 .....	164
〈부표 50〉	자녀양육태도: 자녀 일을 감시하고 제한할 필요 .....	165
〈부표 51〉	자녀양육태도: 규칙, 규율 엄격 .....	165
〈부표 52〉	자녀양육 정서: 아이를 키우면서 내 자신도 성장 .....	166
〈부표 53〉	자녀양육 정서: 아이양육이 혼란 .....	166
〈부표 54〉	자녀양육 정서: 참고만 사는 것 같음 .....	167

〈부표 55〉 자녀양육 정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 .....	167
〈부표 56〉 자녀양육 정서: 아이가 장래에 잘 성장할 지 걱정 .....	168
〈부표 57〉 만족도: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	168
〈부표 58〉 만족도: 현재 자녀 성장모습에 대한 만족도 .....	169
〈부표 59〉 기관 선택시 중요 기준 - 1순위 .....	169
〈부표 60〉 기관 선택시 중요 기준 - 2순위 .....	169

## 요약

### 1. 목적 및 방법

- 자녀 관련 가치와 양육실태 차이를 중국 조선족과 한족, 조선족 밀집 거주지인 연길시와 북경시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파악하여, 중국과 중국 동포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앞으로의 중국 조선족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중국 북경과 연길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가정 중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 399가정과 한족 등 비조선족 영유아 가정 199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연길과 북경에서 조선족과 한족 각각 5사례씩 총 20사례에 대한 집단 면접을 실시함.

### 2. 자녀 가치와 태도

- 자녀에 대한 태도와 가치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조선족이 남아 선호, 자녀의 도구적 가치, 자녀의 부·명예·사회적 지위 성취에 대한 기대가 한족보다 더 컸음. 지역적으로는 북경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였음.
- 자녀 갖기에 한족보다 조선족이 긍정적이며, 북경 조선족이 연길 조선족보다 긍정적 정서를 나타냈음.

- 한족은 정서적 가치, 조선족은 도구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는데, 조선족은 북경에서 도구와 정서 가치가 모두 연길보다 높음.
  - 조선족이 한족에 비해 아들 선호 태도가 강하고, 북경 조선족이 연길에 비해 자녀 갖기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또한 아이를 꼭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더 높음.
  - 북경 조선족이 연길 조선족에 비해 자녀가치관과 관련 의견이 보다 다양하고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냄. 상대적으로 고학력에 소득수준이 높은 북경 조선족이 연길에 비해 정서적 가치관과 더불어 전통적인 도구적 가치 인식도 강하게 드러냄은 특이함.
- 전반적으로 중국 조선족 가정은 한족에 비해 높은 사회적 성취동기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족내 북경-연길간의 지역 차이가 유의함. 북경 거주 조선족 표집이 소득수준과 학력이 높은 전문직 위주로 이루어진 면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중국동포사회에 실재하는 다양한 자녀양육 태도 및 가치관의 차이로, 그 변화는 특징적임.
- 한족에 비하여 조선족이 돈, 명예,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기대가 더 강하며, 북경 조선족이 연길 조선족보다 더 강함.
  - 자녀 성장 후 한국과 관계 맺기는 조선족은 결혼이 38.8%이고 중국 소재 한국기업에서 일하기 55.6%로 나타남. 한국과 관계 맺기 희망 정도는 조선족은 북경, 한족은 반대로 연길에서 더 높음.

### 3. 자녀양육 실태

- 한자녀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중국의 자녀 양육은 대부분이 부모 책임이며, 국가의 지원은 생육보험에 의한 출산휴가(직)와 일부 직장육아시설에 의한 지원으로 미미한 수준임. 그러나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나 남편의 양육참여와 같은 가족지원 체계는 비

교적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의 양육현황을 살펴보면, 모 취업률이 높음에도 자녀양육의 주 담당자는 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한족의 경우가 조선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그러함.
  - 조선족 내에서는 연길에 비해 북경거주 조선족 부모의 조부모지원 이용이 더 많고 모의 주 양육 비율이 다소 낮았음.
  - 남편의 양육참여는 북경거주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는 한족도 마찬가지여서, 북경 남성의 일하는 시간과 강도와 연관된 것으로 이해됨.
  - 부부간 성역할 태도 및 양육관련 가치관은 전반적으로 근현대적·전통적 견해가 공존한 가운데에서도 한족에 비해 조선족이, 연길에 비해 북경이, 그리하여 북경의 조선족이 좀 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성역할구분의 가치관을 드러냈음.
- 자녀양육태도에서도 대체로 한족보다 조선족 부모의 통제성이 더 강했으며, 북경 조선족 부모가 연길에 비해 수용과 거부, 자율의 측면에서 그 정도가 높아서, 대도시에서 태도가 다양하고 강하게 형성되는 경향을 보였음.
  - 미취업모, 대졸이상 학력, 북경 거주 및 고소득일수록 자녀 스스로 하도록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녀양육관에 있어서는 부모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항목에서 한족이 다소 많은 의견을 보였으나, 대체로 어머니에 의한 양육, 체벌을 통한 훈육 방식, 부모와 가족에의 헌신 등의 항목에서 한족이 조선족이 찬성이 많았는데, 조선족은 북경보다는 연실에서 찬성비율이 높았음. 한편 자녀양육시 행복감과 성장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는 한족이 더 많은 반면, 혼란스럽다는 부정적 정서는 조선족이,

그 중에서도 북경 조선족의 경우가 더 많아 소수민족으로서의 양육의 어려움을 나타냈음.

- 북경 조선족이 양육 현황 및 자녀가치관, 양육방식에서 연길 조선족에 비해 전통적인 성향을 보였고 혼유적이며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북경 조선족은 연길 조선족 부모에 비해 체벌사용 의견이 적고 자녀에게 자율성 허용 경향이 높으며, 가정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자녀양육의 국가책무성 의견을 갖는 등, 연길시와는 다른 변화된 성향의 응답도 높아, 북경 조선족이 전통적 양육방식과 가치관을 가지면서도 구체적 양육방식에서 근대적인 탄력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됨.

- 그러나 조선족 사회와의 동질성은 약화된 것으로 보임. 조선족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조선족이라는 비율은 북경이 13.5%, 연길이 437%임.

- 조선족내 지역간 차이는 학력과 직업, 소득에서 기인한 사회경제적 격차이기도 함.

- 중국 조선족 사회에는 조선족으로서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힘과 중국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중국 주류사회 속으로 들어가려는 추세가 모두 작용하고 있음. 이는 중국 동포사회가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향후의 중국동포의 모습은 현재와는 많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함.

#### 4. 유아교육 정책과 유치원 이용

- 중국은 중국정부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유아의 낮은 기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은 추진 중임.

- 개혁개방 이후 조기교육 열풍의 일환으로 유아교육이 발전하였으

나, 이는 개혁개방 이전 사업장 단위 공공 탁아소와는 다르게 시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2009년도 중국 3~6세 유아의 유아원 총 등록률은 50.9%에 불과함.

- 이용하는 기관 유형은 연길 조선족은 조선족유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지만, 북경 조선족은 한족유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함.
  - 북경 조선족 유아는 장차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중국사회의 일원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경쟁 사회로의 재편은 취학전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좋은' 소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좋은'유치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고, 대학 입시 필수 과목인 한어에 대한 고려가 유치원 유형 선택에 영향을 줌.
  - 육아지원기관은 하루 8시간의 종일제 운영을 하고 있고, 평일 이용시간은 7~9시간이 주를 이룸
  - 중국은 육아지원기관 비용 지원이 없고, 기관 간의 서비스 수준과 이용비용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었음.

## 5. 논의와 정책제언

- 중국 조선족 사회도 동북아 3성을 중심으로 한 조선족 사회에서 학업 등을 이유로 대도시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조선족 유치원 등 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미쳐온 고유한 체계가 점차 축소되는 변화 과정에 처해 있음.
- 조선족 내에는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 유지와 더불어 중국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려는 고학력 고소득 조선족이 존재하며, 이들은 모두 소중한 민족적 자산이 됨.

- 민간 중심의 조선족 유치원을 통한 교재교구, 프로그램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유아교육·보육정책 교류 협력의 기회 확대도 상호 발전에 기여할 것임.
- 대도시 조선족이 민족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재외동포 대상 사업과 교류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한 인프라 확보도 필요하며, 중국 진출 기업 등의 사회공헌의 추진이 수월할 것임.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제화, 다원화 사회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주변국가와 그 곳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우리가 교류해야 하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리적 인접 국가인 중국은 13억이 넘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국가로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개방·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빠른 속도로 변모, 성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G2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은 역사적으로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우리와 매우 밀접한 국가적 관계를 가져왔고, 특히 개방·개혁 이후 경제·사회 및 문화적 교류 확대, 민간부문의 원활한 상호 교류 등으로 정치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주변국가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과 중국 조선족에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이다. 조선족은 연길조선족자치주 등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조선족 사회를 이루어 살고 있다. 이들은 중국 인구의 0.15%인 소수민족으로 한민족 고유문화를 유지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온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

나 최근에 빠른 경제성장과 사회 변화 속에서 대도시로 이주하여 전통적인 동북 3성 거주 조선족과는 가치나 신념 등이 다른 조선족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족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 등으로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찾아서 대도시로 가면서 졸업 후도 그 곳 또는 다른 도시에서 취업하고 결혼하여 한족들과 어울려 중국사회 일원이 되어서 살게 되므로 조선족 사회하고의 관계가 희박해지면서 제반 태도나 의식 등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초기에는 부모들은 대체로 동북 3성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손자 돌봄 등 자녀의 자녀양육 지원 등 필요에 의하여 부모들도 자식을 따라 도시로 이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인과 중국 재외 동포는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 결혼이주민가정의 이주민 국적을 보면 약 61%가 중국인으로, 조선족이 32.2%이고 한족이 29.2%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상당수가 알게 모르게 중국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방문 취업 확대 등 국내 재외동포 정책 변화와 더불어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 살고 있는 중국동포의 수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처럼 중국 재외동포와 중국인이 우리 사회에 주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중국 재외동포나 중국 관련 자녀양육연구, 보육 및 유아교육 제도, 중국 아동 발달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자녀양육 가치와 실제 및 이와 관련된 국가 정책은 그 나라 부모들의 아동관 및 실제 아동의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며, 생애초기에 경험하는 보육·교육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국가나 재외동포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한자녀 정책과 개방 중심의 사회적 변화는 자녀 양육이나 영유아 보육과 교육 분야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오늘날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탁아소 단위제도가 해체와 사립유아원 우대 정책으로 정부의 자녀 양육 지원책임 축소와 부모의 비용 부담 과다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중국의 자녀양육 관련 문화와 의식 파악은 중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한국 이주민들의 성공적 적응 및 자녀양육 지원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자료가 될 것이며, 재외 동포의 아동 양육의 환경인 거주 국가의 아동 양육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파악은 재외 동포의 아동 양육 어려움을 완화하고 한민족의 자녀 양육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 조선족과 한족의 자녀양육 관련 가치와 양육 실태의 민족간 차이를 파악하고, 특히 전통적 조선족 밀집 거주지인 연길시와 북경시 거주 중국 동포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로써 중국과 중국 동포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여 국내외 중국 동포에 대한 자녀 양육 지원 방안 모색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내용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영유아 양육 및 교육·보육 관련 제도 및 정책을 검토한다.

둘째, 중국 동포의 자녀 가치관, 자녀에 대한 기대를 파악한다. 특히 거주 지역별 차이를 파악하고, 한족과 비교한다.

셋째, 중국 동포의 영유아 양육 관련 의식과 실태를 파악한다. 아버지·어머니의 양육 참여 정도 등 가구내 양육 실태와 의식, 자녀양육 관련 신념, 재외동포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유지 노력, 자녀 및 부모 됨에 대한 의식과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중국동포 거주 지역별 차이와

한족과의 차이를 규명한다.

넷째, 유치원·보육시설 등의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실태, 영유아 자녀의 양육비 지출 실태를 파악한다. 전통적 조선족 거주지인 연길시와 북경시 거주 중국 동포 거주 지역별 차이와 한족과의 차이를 규명한다.

다섯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민족 네트워크로서 중국 재외 동포 대상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 제3절 연구방법

#### 1. 문헌 등 자료 수집, 분석

중국 자녀 양육관련 정책과 제도, 자녀 가치 및 양육관, 재외 동포의 자녀 양육 실태 및 특성, 애로사항 등을 파악한 선행연구 등 문헌 자료를 분석하였다.

#### 2. 설문조사

##### 1) 설문조사 개요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가정 중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 400가정과 한족 등 비조선족 영유아 가정 200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를 추진하였다. 조사지역은 북경시과 연길시 두 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조사 대상 가구 표집은 임의 표집으로 실시하되, 조사 아동이 특정 연령에 집중되지 않도록 배분하였다. 응답자는 자녀의 어머니와 아버지로 한정하였다.

조사 내용은 일반적 가구 및 부모 사항, 자녀 특성, 자녀 양육 관련 가치관, 자녀 양육 실태, 육아지원기관 이용 및 사교육 등으로 구성하였다(표 1-1 참조).

〈표 1-1〉 자녀양육 실태 설문조사 항목

구분	문항
가구, 부모 및 자녀 특성	- 가족 구성원, 자녀수, 월 평균 가구소득 - 부모 나이, 민족, 학력, 하는 일, 한국 거주 경험과 그 이유 - 자녀의 나이, 민족, 성별, 한국에 살아본 경험
자녀 가치와 양육방식	- 자녀에 대한 생각, 자녀 가치, 장래 기대 - 주 양육자, 자녀 양육 태도, 자녀 양육시 느끼는 정서 - 자녀 양육시 한국 관련 사항 태도 - 남편의 양육 참여, 성역할 태도 - 현재 생활 및 자녀양육에 대한 만족도
육아지원기관 이용 및 사교육	- 기관 이용, 선택 기준, 이용 이유, 이용시간, 만족도, 월평균 비용 및 지원 - 사교육 실시 여부, 월 평균 비용, 만족도

조사는 사전에 준비된 설문지에 의한 조사원의 방문 면접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는 국내 조사전문기관과 중국 조사기관의 공동 작업으로 실시하였고, 조사표는 한국어와 중국어 두 종류로 마련하여 조사 대상에 따라 활용하였다.

조사 결과, 목표대로 조선족 399가정 한족 201가정으로 총 600가정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응답자는 자녀의 어머니와 아버지로 한정하였는데 실제로 어머니가 조선족 63.7%, 한족 69.7%이고 아버지는 각각 36.3%, 30.3%이었다. 지역별로는 조선족과 한족 모두 북경이 연길시에 비하여 어머니 응답비율이 다소 높았다(표 1-2 참조).

〈표 1-2〉 미취학 자녀와 응답자와의 관계

단위: %(명)

구분	전체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어머니	65.7	63.7	69.7	67.0	60.3	72.0	67.3
아버지	34.3	36.3	30.3	33.0	39.7	28.0	3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600)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2.129(1)		1.935(1)		0.519(1)	

## 2) 분석 방법

조사된 자료의 분석은 자녀의 민족과 조사 지역을 기준으로 카이검정( $X^2$ )과 t검정을 하여 민족 및 지역간 응답의 차이를 알아보았고, 다음은 조선족만 선별하여 지역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을 중심으로 모의 학력, 모의 취업, 가구소득, 응답자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지역 차이가 모의 학력, 모의 취업, 가구소득, 응답자 등 사회경제적 특성 및 기타 요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지역차이가 단순한 지역 차이인지 아니면 지역에 따른 부모의 사회학적 특성의 차이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표 1-3>은 회귀분석에 들어간 독립변수의 특성이다. 가구소득은 로그값을 취했으며 이외 변수는 더미화하였다.

〈표 1-3〉 회귀분석 시 독립변수

단위: %(명)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모취업(1=취업)	0.00	1.00	0.78	0.41	(544)
모학력(1=대학이상)	0.00	1.00	0.68	0.47	(598)
거주지(1=북경)	0.00	1.00	0.50	0.50	(600)
가구소득(로그)	2.90	4.90	3.90	0.38	(580)
응답자(1=어머니)	0.00	1.00	0.66	0.48	(600)
유효수(목록별)					(538)

## 3. 집단면접조사

조선족과 한족을 대상으로 연길과 북경에서 각각 10사례씩 총 20사례에 대한 집단 면접을 각각 3회로 나누어 실시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집단면접은 사전에 준비된 설문지를 기준으로 하되, 면접 현장에서 융통성 있게 조정, 사용하여, 자녀양육 실태, 어려운 점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북경에서는 국내 연구진이 실시하였고 연길에서는 중국 연

변대 소속 공동연구진이 담당하였다.

〈표 1-4〉 집단면접 대상자 특성

구분	지역	나이	민족	직업	자녀연령	성별
연길 모1	연길	34	조선족	무직	4세	여
연길 모2	연길	40	조선족	대학교수	4	남
연길 부1	연길	40	조선족	농민	5세	여
연길 조모1	연길	63	조선족	농민	5세	남
연길 조부1	연길	60	조선족	공무원 퇴직	5세	남
연길 모3	연길	38	한족	사무직	6세	남
연길 모4	연길	33	한족	회계원	5세	여
연길 모5	연길	36	한족	사무직	6세	남
연길 모6	연길	36	한족	사무직	6세	
연길 부2	연길	35	한족	사무직	3세	남
북경 모1	북경	30	조선족	학교 직원	24개월	여
북경 모2	북경	32	조선족	학교 직원	3세 반	남
북경 모3	북경	36	조선족	회사원	4세	여
북경 부1	북경	38	조선족	대학교수	26개월	여
북경 부2	북경	39	조선족	대학교수	5세	여
북경 모4	북경	41	한족	교사	2세	남
북경 모5	북경	33	한족	간호보건직	4세	여
북경 모6	북경	34	한족	판매업	4세	여
북경 모7	북경	41	동족	공공기관 사무직	4세	남
북경 모8	북경	38	몽골족	교사	6세	남

응답자는 <표 1-4>와 같은데, 몇 가지 특성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길시의 경우 조선족은 조부, 조모를 포함하여 설문조사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았던 조부모 양육 등 다양한 형태의 자녀 양육 상황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대체로 조선족과 한족 모두 사무직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는 면담 당사자 개개인의 자녀 양육 상황 파악과 더불어 중국 및 조선족 사회 전반의 변화와 자녀 가치 및 자녀양육 실태에 대한 지식층의 인식과 평가 등 포괄적 의견 개진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유용한 방법이었다.

#### 4. 전문가 자문회의

중국 동포 가족 및 아동 양육 관련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들의 연구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자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 5. 대상 국가의 전문가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중국에서는 연변대학교 민족연구원의 조선족 교육연구소(소장 박금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조선족 대상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 제4절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

제4절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수록하였다. 본 조사 응답자는 지역 내에서 무직위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지역내 조선족이나 한족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사 결과는 응답자 특성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 1. 가구 특성

##### 1) 가구원 구성 및 자녀수

조사 응답 가구의 가구원 구성을 자녀를 중심으로 동거여부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조사 대상아동의 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98% 내외로 매우 높다.<sup>1</sup> 조부모는 조선족은 친조부모가 21~23% 수준이고 외조부모는 11% 정도이며, 한족은 친조부모가 13~15%이고 외조부모는 7%

---

1. 본 조사가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부모가 일자리를 찾아서 한국에 와 있는 가정은 대부분 제외되었을 것임.

수준으로 조선족에 비하여 조부모의 동거 비율이 낮다. 지역별로 보면 조선족은 연길보다는 북경에서 조부모 동거 비율이 더 높고, 한족은 조모의 경우 북경이 연길보다 비율이 다소 높으나 별 차이가 없다(표 1-5 참조). 연길 조선족이 북경보다 조부모 동거 비율이 낮은 것은 조부모의 일부가 한국에 와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부분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5〉 응답 가구 아동 기준 가족 구성원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부	97.2	98.0	99.5	95.0	99.0	97.0
모	97.7	98.5	99.5	96.0	99.0	98.0
조모	22.6	14.9	25.0	20.1	16.0	13.9
조부	20.6	12.9	23.0	18.1	13.0	12.9
외조모	11.0	6.5	14.5	7.5	6.0	6.9
외조부	11.5	7.0	15.0	8.0	6.0	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표 1-6〉 응답 가구 자녀수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총 자녀수						
1명	83.2	88.1	85.0	81.4	82.0	94.1
2명 이상	16.8	11.9	14.9	18.6	18.0	5.9
미취학 자녀수						
1명	96.5	98.0	97.0	96.0	99.0	97.0
2명	3.5	2.0	3.0	4.0	1.0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자녀수 평균	1.18	1.12	1.16	1.21	1.19	1.06
미취학자녀수 평균	1.04	1.02	1.03	1.04	1.01	1.03

자녀수는 1명인 경우는 8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명이 15.5%이다. 조선족에 비하여 한자녀 압력을 더 받는 한족 중에서는 총 자녀수가 1명인 경우가 88.1%로 조선족보다 많았고, 다음으로 2명이 11.4%이다. 평균 총 자녀수는 조선족 1.18명, 한족 1.12명이다(표 1-6 참조).

## 2) 가구 소득

응답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중국화폐로 조선족이 평균 14,200위안, 한족 7,312위안으로 조선족이 훨씬 높게 조사되었다.

지역 차이도 커서 조선족은 북경이 2만 위안이 넘는 반면에 연길은 6,400위안 정도이다.<sup>2</sup>

〈표 1-7〉 응답 가구 소득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5,000원 미만	22.8	31.3	3.0	42.7	9.0	53.5
5,000~10,000원 미만	26.1	43.3	15.5	36.7	49.0	37.6
10,000~30,000원 미만	29.8	17.9	47.5	12.1	35.0	1.0
30,000원 이상	18.3	3.5	33.5	3.0	6.0	1.0
무응답	3.0	4.0	0.5	5.5	1.0	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87)	(193)	(200)	(199)	(100)	(101)
평균:(원)	14,200	7,312	21,535	6,436	9,991	4,490

## 2. 부모 특성

### 1) 인구학적 특성

조사 대상 아동을 기준으로 부모의 민족을 보면 조선족 아동은 어머니는 82.6%, 아버지는 95%가 조선족이고 한족은 단지 어머니 중 4%

2. 중국 1 인당 국민소득은 4,300달러 수준임.

정도가 조선족이다. 지역별로는 조선족 아동의 어머니가 북경에서는 한족이 25%에 달한 반면에 연길에서는 한족이 8.6%이었다. 아버지가 한족인 비율도 북경은 8%, 연길 2.0%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 대상 표본이 임의 표집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논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조사결과는 조선족이 대도시에서 타 민족과 결혼하는 비율이 연변자치주 등 조선족 밀집 거주지역보다 높을 것임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표 1-8〉 자녀민족별 부모의 민족 특성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어머니						
조선족	82.6	4.0	74.0	91.4	1.0	9.0
한족	17.1	95.5	25.5	8.6	98.0	93.0
기타	0.3	0.5	0.5	-	1.0	-
아버지						
조선족	95.0	0.0	92.0	98.0	-	-
한족	5.0	100.0	8.0	2.0	100.0	100.0
계 (사례수)	100.0 (387)	100.0 (193)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표 1-9〉 자녀민족별 부모 연령 특성

단위: %(명)

구분	조선족		한족	
	부	모	부	모
30세 미만	18.5	30.4	24.9	36.9
30~40세 미만	68.6	61.3	67.9	60.0
40~50세 미만	9.8	5.1	6.8	2.7
50세 이상	3.2	3.3	0.5	0.4
계 (사례수)	100.0 (379)	100.0 (336)	100.0 (221)	100.0 (260)
평균(세)	33.2	31.4	32.6	30.8

부모의 연령은 평균 30~33세로, 31~40세가 다수이지만 20대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어머니인 경우에는 아버지 보다는 연령대가 다소 젊다. 평균으로 보면 약 2살 정도가 젊다(표 1-9 참조).

2) 사회학적 특성

응답한 중국동포의 최종학력은 조선족은 부는 75%가 초대졸 이상 졸업자였으며, 모도 62% 정도가 초대졸 이상이다.

〈표 1-10〉 자녀민족별 부모 학력 특성

단위: %(명)

구분	부		모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소학교 이하	2.2	0.6	1.8	3.1
초중급학교	5.3	6.3	16.7	13.1
고급중학교	16.9	21.1	19.0	21.5
대학(3년제 이하)	20.8	24.4	29.0	28.1
대학교(4년제 이상)	47.2	41.4	27.6	30.4
대학원 이상	4.5	2.7	2.7	1.5
비해당(부재)	3.2	3.6	3.2	2.3
계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79)	(336)	(221)	(260)

〈표 1-11〉 자녀민족 및 지역별 부모 학력 특성

단위: %(명)

구분	부				모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소학교 이하	0.5	3.5	2.0	2.0	0.5	1.0	3.0	4.0
초중급학교	1.0	9.5	16.0	19.8	3.0	9.6	12.0	18.8
고급중학교	14.5	19.6	15.0	22.8	15.5	25.9	22.0	23.8
대학(3년제 이하)	19.5	24.1	32.0	23.8	23.5	23.9	35.0	25.7
대학교(4년제 이상)	59.5	33.2	29.0	25.7	57.0	29.4	25.0	20.8
대학원 이상	4.5	4.5	5.0	0.0	0.0	4.6	2.0	2.0
비해당(부재)	0.5	5.5	1.0	5.9	0.5	5.6	1.0	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200)	(199)	(100)	(101)	(200)	(197)	(100)	(101)

한족도 초대졸 이상의 학력 비율이 부 70%, 모 62%이다. 즉, 본 조사 대상자의 학력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표 1-10 참조). 고학력자 비율은 조선족, 한족 모두 연길보다 북경에서 더욱 높다(표 1-11 참조).

학력수준이 높기 때문에 직업 역시 조선족 부는 전문직과 사무직이 약 50% 정도가 되었고, 어머니도 81% 정도가 취업 중인데 30% 정도가 전문직과 사무직이었다. 한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조선족보다는 전문직과 사무직 비율이 낮고 서비스 및 기능관련 종사자 비율이 높다(표 1-12 참조).

〈표 1-12〉 자녀민족별 부모 직업 특성

단위: %(명)

구분	부		모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관리자	37.5	18.1	21.1	7.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6	4.1	2.1	1.5
사무종사자	11.6	9.5	20.5	21.9
판매종사자	7.1	8.6	7.7	7.3
서비스 종사자	15.3	22.2	15.2	20.0
농/어/임/축산업 종사자	1.1	1.4	0.9	0.8
기능 관련종사자	12.4	21.3	2.1	6.5
기계장치조립·단순노무 종사자	3.9	5.0	3.3	3.1
무직	1.6	0.5	18.5	21.5
비해당(부재, 무응답)	6.9	9.5	8.6	9.6
계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79)	(336)	(221)	(260)

지역별로는 북경에서 관리자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차이를 보인다. 모의 취업률은 민족 차이 없이 모두 북경이 연길보다 낮다(표 1-13 참조).

〈표 1-13〉 자녀민족 및 지역별 부모 직업 특성

단위: %(명)

구분	부				모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북경	연길
관리자	55.0	19.1	25.0	8.9	25.5	14.7	7.0	4.0
전문가·관련종사자	2.0	3.0	5.0	4.0	0.5	2.5	5.0	0.0
사무종사자	5.0	17.6	7.0	12.9	26.0	19.3	20.0	15.8
판매종사자	3.5	11.6	6.0	9.9	3.5	10.7	5.0	11.9
서비스 종사자	15.0	16.1	18.0	26.7	14.5	16.2	18.0	25.7
농/어/임/축산업 종사	1.5	1.0	0.0	2.0	0.5	1.0	0.0	2.0
기능 관련종사자	16.5	9.5	32.0	9.9	2.5	2.0	11.0	4.0
기계장치조립·단순노무	1.0	6.5	6.0	5.0	1.5	4.6	2.0	5.0
무직	0.0	3.0	0.0	1.0	25.0	13.7	30.0	10.9
비해당(부재)	0.5	12.6	1.0	19.8	0.5	15.2	2.0	2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200)	(199)	(100)	(101)	(200)	(197)	(100)	(101)

## 3) 부모 한국거주 경험

조사 응답 부모의 한국 거주 경험은 조선족 어머니 13.1%, 아버지 19.8%이었다. 지역별로는 북경은 아버지가 20%인데 비해 어머니는 8.5% 수준인 반면에 연길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한국 거주 경험 비율이 유사하였다(표 1-14 참조).

〈표 1-14〉 부모의 한국 거주 경험 비율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어머니	13.1	0.5	8.5	17.8	0.5	1.0
아버지	19.8	1.0	20.0	19.6	1.0	2.0
(사례수)	(387)	(193)	(200)	(199)	(100)	(101)

한국 거주 경험이 있는 조선족 부모들의 한국 거주 이유는 아버지는 본인 및 배우자의 학업과 취업 비율이 43%, 33%이고 어머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취업이 55.8%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학업은 7.7%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아버지는 북경은 학업, 연길은 취업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지역 차이가 거의 없다(표 1-15 참조).

〈표 1-15〉 조선족 부모의 한국 거주 이유

단위: %(명)

구분	부			모		
	전체	북경	연길	전체	북경	연길
본인 및 배우자의 취업	43.0	27.5	59.0	55.8	52.9	57.1
본인 및 배우자의 학업	32.9	55.0	10.3	7.7	5.9	8.6
자녀의 학업	1.3	0.0	2.6	1.9	0.0	2.9
기타	22.8	17.5	28.2	34.6	41.2	3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79)	(40)	(39)	(52)	(17)	(35)

### 3. 조사대상 자녀 인구학적 특성

한편 자녀는 각 가정에서 1명으로 모두 600명이 조사되었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먼저 성별은 남아대 여아 비율이 조선족 57:43, 한족 55:45로 모두 남아가 더 많이 조사되었다. 이는 중국 한자녀 정책이 성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반영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한족이 연길 시에서 50:50으로 성비 균형을 이루었고 이외는 모두 남아가 월등하게 많았다.

자녀 연령은 민족이나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각 연령대가 골고루 포함되었다(표 1-16 참조).

또한 조사 대상 자녀의 한국 거주 경험은 조선족 7.3%, 한족 0.5%인데,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표 1-17 참조).

〈표 1-16〉 자녀의 성별과 연령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성별						
남자	56.6	54.7	56.0	57.3	59.0	50.5
여자	43.4	45.3	44.0	42.7	41.0	49.5
연령						
0세	11.1	14.9	9.0	13.1	16.0	13.9
1세	22.6	24.9	32.0	13.1	25.0	24.8
2세	20.1	17.4	21.0	19.1	16.0	18.8
3세	18.3	12.9	19.5	17.1	13.0	12.9
4세	16.3	20.4	11.5	21.1	22.0	18.8
5세	11.8	9.5	7.0	16.6	8.0	1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평균:(세)	3.41	3.25	3.13	3.70	3.21	3.30

〈표 1-17〉 자녀의 한국 거주 경험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있음	7.3	0.5	7.5	7.0	1.0	-
없음	92.7	99.5	92.5	93.0	99.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X^2(df)$	12.900(1)***		0.032(1)		-	

\*\*\* p&lt; .001

## 제5절 선행 연구

### 1. 중국 자녀 양육관련 연구

부모는 자신의 문화적 취향에 상관없이 자녀가 사회에서 자랑스럽고 중요한 일원이 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녀를 먹이고 지도

하며 그들과 함께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사회에서 수용하는 적절한 행동방식을 생활과 문제해결 방법 "사례"로 모델링한다. 이것은 신념, 가치 및 그들 문화에 적절한 행동으로 반영된다. 문화적 상황은 육아 스타일,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의 형태를 구성하고, 이러한 상호 작용은 문화적 기대를 반영한다(Swicks, 1985). Swicks(1985)는 부모되기가 많은 문화적 시그널로 나타나지만 이들이 반드시 서로 일치되거나 자녀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였다. Foss(1996)는 문화적 신념과 가치를 "내면화된 스크립트"라고 하고 이것이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이를 취하게 되고, 자녀 양육에서도 이를 전적으로 취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문화와의 유희를 반영하여 통합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국가 비교 연구들은 대체로 거시적 관점에서 실시되는데, 중국 관련 연구는 서양과 동양의 비교 연구로 중국의 유교적 가치와 문화가 부모들의 자녀 양육 방식에 투영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Sethi-Charlebois(2000)가 캐나다에 이주한 기간 3년 미만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중국과 인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교 연구에 의하면 캐나다 부모와 비교하여 중국 부모들이 자녀 체벌, 부모에 대한 복종, 자녀에게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양육 방식, 자녀가 아동권리에 대한 강한 법적 보호를 인식함에 따라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현상 증가 등을 차이로 보고하였다.

또한, Hong Xiao(2006)가 미국과 중국의 사회구조와 자녀 양육 가치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바에 따르면 3가지 주요 가치 차원인 자율(autonomy), 일치(conformity), 보호 오리엔테이션(care orientation)은 두 나라에서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치체제, 경제발전, 문화적 역사 등 두 나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인과 중국인은 가정에서 자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국에서는 계층이 다소 작용하나 남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이 약화되지만 여성에

게는 그대로 남아있다. 또한 성이나 모성이 보호 오리엔테이션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자녀 양육시 자율이나 일치의 가치화가 정치적 성향, 연령, 가족규모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 자녀 양육 관련 문헌에서 자주 나타나는 주제는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한 독생자녀이다. 가정에 자녀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녀 양육 특성으로, 과거의 복종이나 체벌 등 권위주의적인 자녀 양육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소황제(little emperor)라는 새로운 유형의 양육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 자녀는 형제자매가 없으므로 장난감이 통합된 일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한 자녀이므로 장난감, 의류는 물론, 잡지, 책, 팬 등에서도 자녀의 요구 수준을 낮추기 어렵다고 한다. 이는 '자기중심적이고, 속 좁으며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우려가 높다는 견해를 나타낸다(Chinadaily, 2009). 중산층에서는 가처분소득의 40~50%를 한 자녀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중국을 포함한 자녀양육 국제비교 연구로 이기숙·정미라·김현정(2008)은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부모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실제 등을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이에 의하면 중국 어머니들이 한국이나 일본 어머니들에 비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과 일본보다 친구와 놀기, 숫자와 글자 익히기, 외국어 배우기, 예술적 재능 키우기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기대로 한국은 리더십 있고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느긋한 사람, 일본은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인데 비하여, 중국은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주위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였다. 한편 생활 및 자녀 양육 만족도는 중국이 가장 높았고, 아버지의 자녀양육 및 가사 참여와 이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는 중국이 일본이나 한국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아버지의 가

사와 양육 참여는 중국 아버지들의 상대적으로 빠른 귀가 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2. 중국 조선족 부모역할에 대한 연구

중국 조선족의 부모역할 및 양육에 대한 연구로 윤갑정 등(2008)은 중국 연길자치주 연길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유아 양육실제에서 나타나는 양육이슈를 시대성과 민족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양육자들은 유아가 조선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동시에 한어를 잘 하는 이중언어 구사능력 함양을 위해서 조선족 학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조선어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언어를 잃으면 민족을 잃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선어 사용을 문화민족의 금지로 받아들여왔다. 둘째, 조선족 양육자들은 높은 교육열로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한 물리적 환경 제공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하여 자녀와의 장기간 별거를 감수하고 해외에서 일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선족 유아들은 일상생활에서 한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양육자들은 한국과 협력한 유치원을 선호하거나 자녀를 한국어와 비교하면서 자기표현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조선족 양육자들은 민족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방 이후 급변하는 사회변화를 통해 등장하는 시대적 이슈에 반응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경제적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또한 자녀에게 심리적 안정감 제공도 소홀히 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2010)에서도 연길시를 중심으로 한 조선족 연구에서 부모는 대체로 자녀가 어려서 돈을 벌어서 자녀가 공부할 때인 초등학교 4학년 정도부터는 함께 살면서 뒷바라지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는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부모와의 애착 형성 시기에 장기간 별거나 자녀에 대한 무관심은 아동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줄 수

려하였다. 가능한 정책으로는 민간 차원에서 자녀를 중국에 두고 있는 취업 동포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자녀와 떨어져 있어도 전화와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하고, 중국 국적 동포 가족이나 아동은 직접 지원하기는 어려우므로 아동이 이용하는 조선족 유치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3. 조선족 아동 발달 및 특성에 대한 연구

중국 거주 조선족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연구가 비교연구로 2005년 이후 많이 이뤄졌다. 조복희·이주연(2006)은 민족적 특성과 주류사회의 특성이 서로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두 소수민족 집단인 중국 조선족과 한국 화교를 대상으로 각 집단 아동들의 주류문화에 대한 적응과 그에 따른 학교 적응을 조사하였다. 문화접변 유형은 중국 조선족 아동은 분리유형이 가장 많고 다음이 통합, 동화, 주변화의 순으로 나타났고, 또한 분리유형에 속한 아동이 오히려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높은 교사지지를 보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는 100년이 넘는 이민역사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족문화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소수민족 집단 아동의 적응에 있어서 민족언어와 민족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또한, 박민정·박혜원(2007)은 조선족, 화교, 한족, 한국아동의 기질을 비교하여 동일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기질적 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가 있다. 이에 의하면 '활동통제' 및 '수줍음'은 한족아동과 조선족 아동이 높았고, '친화'는 조선족 아동과 한국의 화교아동이 높았다. 반면, '공격성', '우울', '불안', '좌절'은 조선족과 한국의 화교아동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체성에 대한 혼란, 적응해야 하는 환경의 복잡성 등과 같은 요인이 심리적 불안을 일으키고 이것이 높은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다수가 부모와 별거하는 환경

도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조선족 아동 발달 수준 및 요인 연구로 조복희·이진숙·한세영(2005)은 조선족 아동의 가정환경, 내외통제성, 사회적 지지, 행동문제, 애착, 자아개념, 이중언어능력 등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하여, 조선족 아동의 내적 통제점수가 외적 통제점수에 비해 높고 교사지지 및 또래지지 지각점수가 높았던 반면 행동문제 수준은 낮은 분포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조선족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및 심리적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가정내 물리적·심리적 환경이 바람직할수록 행동문제 수준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중국 조선족 학령기 아동도 애착은 또래관계, 자아개념, 학교생활적응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아동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학교에 새롭게 상호작용하며 또래관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다(이시라·박혜원, 2005).

윤혜경 등(2009)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두 언어를 동등하게 모국어 수준으로 사용하는 중국 심양시 조선족 10세 아동과 19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문장, 한자문장, 그리고 한글·한자의 혼합문장 형태의 덩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를 살펴보고, 이중언어능력을 지닌 조선족 10세 아동과 19세 피험자들은 동일한 의미의 한자 문장의 덩이 글을 읽는데 한글이나 한글·한자 혼합문장의 덩이 글보다 더 적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하였다.

#### 4. 조선족 별거가족 및 가족해체에 대한 연구

중국 조선족 사회는 경제적 이유에서 오는 심각한 가족해체 현상을 경험하게 됨에 따라 별거가족, 가족해체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이뤄졌다.

윤갑정·정계숙(2007)은 조선족 별거가족 유아의 가족생활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는 유아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아도 부모의 존재감은 강하

게 느낀다고 보고하고, 이러한 부모에 대한 강한 존재감과 부모와 양육자에 대한 분별된 인식은 조부모 등 현재 양육자의 역할에 대한 제한된 인식은 양육자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는 유아에게 어른의 말에 순종하고 예절바른 행동을 할 것을 강조하고 유아의 행동에 대해 계속 언어적인 제한을 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무력감과 더불어 노파심과 걱정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조복희·이주연(2005)은 부모와 별거한 중국 조선족 아동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과 적응문제, 생활환경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자녀 별거 현상이 자녀 외로움 유발로 아동발달의 정서적 적응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다른 연구(조복희·이주연, 2006)에서는 부모와의 별거기간이 길수록 대리양육자와의 애착과 함께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별거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이 그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적응해나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연구는 문제행동의 영역별로 적대-공격성의 영역, 과행동성-산만의 영역에서는 아버지의 분리기간 영향력이 큰 반면, 걱정-불안의 영역에서는 어머니의 분리기간이 영향을 보였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천희영 등(2006)은 부모별거 아동의 별거 경험과 양육요인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연길 아동의 문제행동은 별거 시기나 별거기간보다는 동거인 변인, 주양육자의 양육효능감 및 거부·제재 양육행동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즉, 부모별거라는 형태적 결손 가족구조 자체보다는 미시적인 양육환경이 사회, 정서적 적응력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안병삼(2009)은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 중·고등학생들 중 73.5%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데,<sup>3</sup> 이들은 보통 5년 이상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으면서 1주일에 한번 정도 부모와 연락하는 것으로 파악하였

다. 중국 조선족 학생들은 부모와 별거상태에서 경제적 풍요와 부모의 잔소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돌봄의 결여, 외로움 등으로 부모에 대한 심리적 양가감정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2010)는 연길시 영유아 양육실태를 관찰하고 중국 조선족 부모의 외국 취업은 조선족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이나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일부 교육관계자들이 청소년기 아동의 문제 발생을 우려하는 것 이외에는 아직 큰 문제로 인식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조부모 등 친인척의 자녀 양육 지원 기능이 아직 작동하고 있고, 또한 방문 취업 등 한국 입국기회 확대 기간이 길지 않아서 자녀들의 연령도 아직은 어린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며, 또한 자녀와 떨어져 있어도 전화, 인터넷 등으로 어느 정도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하였다.

## 5. 시사점

중국 사회의 빠른 경제 사회적 변화는 전통적인 한자녀 정책과 맞물리면서 '소황제'라는 용어의 등장 등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권위주의적인 양육방식으로부터 변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중국 조선족 사회도 전통적 동북아 3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 학업 등을 이유로 대도시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조선족 유치원 등 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미쳐온 고유한 체계가 점차 축소되는 변화 과정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조선족은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입국하면서 가족해체를 경험하는 가정은 물론, 장기간의 별거가정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중국이 아직은 확대가족과 범가족적 양육 지원 기능이 작동하고 농민공 등 일자리 때문에 가족과 별거하는 사례 증가로 부모와

---

3. 그 주된 이유는 부모들이 돈을 벌려고 외국, 특히 한국으로 갔기 때문임.

자녀의 별거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이를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대리양육자의 질이 우수하게 보장될지라도 부모와의 장기간 별거 경험은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유아기는 부모에게 상당히 의존적인 시기로 이 시기의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형성의 실패가 자녀의 궁극적인 건강한 발달과업 성취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이것이 일생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중국 및 중국 조선족의 사회적 변화와 특성은 자녀 가치나 양육태도 등에도 반영될 것으로, 다수의 중국인과 중국동포를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로 수용하고 있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의 동향을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 제2장 자녀에 대한 기대와 가치

### 제1절 자녀에 대한 일반적 태도

#### 1. 자녀 갖기

중국 동포와 한족 설문조사에서는 부모 되기에 대한 일반적 생각을 부모되기는 가치 있는 일이다, 자녀 갖기는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자녀가 부모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다, 결혼해도 꼭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네 가지 문항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부모되기는 가치 있는 일이다가 4점 만점에 3점을 넘고 자녀 갖기는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자녀가 부모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다는 각각 2.5점을 넘으며 결혼해도 꼭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2.5점 내외이다. 민족간의 차이는 대체로 조선족이 한족에 비하여 자녀 갖기에 긍정적인데, 특히 자녀 갖기는 사회에 대한 의무 항목이라는 문항의 응답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표 2-1 참조).

<표 2-2>과 <그림 2-1>을 보면 전체적으로 부모되기는 가치 있는 일이다에 대한 찬성 정도가 가장 높고 다음이 자녀 갖기는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자녀가 부모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다, 결혼해도 꼭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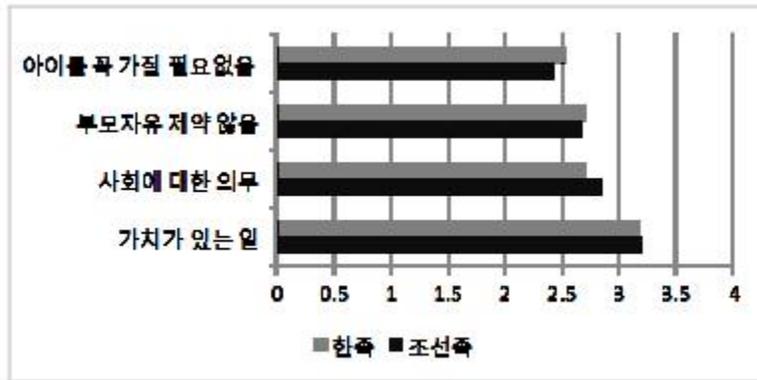
민족과 더불어 지역별 차이를 보면, 조선족은 연길보다는 북경에서 자녀 갖기에 긍정적인 찬성 정도가 높았다. 한편 방향이 다른 문항인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에서도 북경이 연길보다 찬성 비율이 높아, 자녀 갖기에 대한 긍·부정의 의견이 북경 조선족에게서 모두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한족의 경우도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다는 문항과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긍·부정의 항목에서 모두 북경 한족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민족배경에 상관없이 모두 부모되기는 가치있는 일이며 사회적 의무라는 긍정 항목에의 찬성 응답이 가장 높고,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부정 응답의 찬성 비율이 가장 낮았으나, 두 민족 모두 찬반의견에의 지역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북경 거주민의 자녀 갖기에 대한 의견이 연길지역에 비해 다양하고 뚜렷하게 형성된 것으로 이해된다(표 2-2 참조).

〈표 2-1〉 자녀민족별 자녀 갖기에 대한 생각

구분	단위:%(명)					평균
	전혀 찬성 안함	별로 찬성 안함	대체로 찬성	매우 찬성	계(사례수)	
부모 되기는 가치가 있는 일						
조선족	1.5	7.3	61.2	30.1	100.0(399)	3.20
한족	2.0	9.5	56.7	31.8	100.0(201)	3.18
$X^2(df)/t$		1.6(3)				0.1
자녀 갖기는 사회에 대한 의무						
조선족	4.3	24.1	53.9	17.8	100.0(399)	2.85
한족	4.0	30.8	54.2	10.9	100.0(201)	2.72
$X^2(df)/t$		6.4(3) <sup>#</sup>				4.2 <sup>*</sup>
부모자유를 제약하지 않음						
조선족	5.0	36.3	44.4	14.3	100.0(399)	2.68
한족	4.5	31.8	53.2	10.4	100.0(201)	2.7
$X^2(df)/t$		4.6(3)				0.1
아이를 꼭 가질 필요없음						
조선족	12.5	41.4	36.6	9.5	100.0(399)	2.43
한족	6.5	42.8	41.3	9.5	100.0(201)	2.54
$X^2(df)/t$		5.5(3)				2.3

\*  $p < .05$ , #  $p < .1$

[그림 2-1] 자녀민족별 자녀 갖기에 대한 생각



〈표 2-2〉 자녀민족과 지역별 자녀에 대한 생각: 4점 평균

단위: 점(명)

구분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t	북경	연길	t
부모 되기는 가치 있는 일	3.29	3.11	8.8**	3.21	3.16	0.3
자녀 갖기는 사회에 대한 의무	2.99	2.71	13.8***	2.73	2.71	0.02
부모 자유를 제약하지 않음	2.85	2.51	19.0***	2.80	2.59	4.2*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음 (사례수)	2.60 (200)	2.27 (199)	16.2***	2.79 (100)	2.29 (101)	25.0***

\*\*\* p &lt; .001, \*\* p &lt; .01, \* p &lt; .05

〈표 2-3〉 조선족 부모의 자녀에 대한 생각 영향 요인

구분	부모 되기는 가치 있는 일		자녀 갖기는 사회적 의무		부모 자유를 제약하지 않음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음	
	B(표준오차)	β	B(표준오차)	β	B(표준오차)	β	B(표준오차)	β
(상수)	3.21(0.45)***	-	2.86(0.53)***	-	2.18(0.54)***	-	1.24(0.57)*	-
모취업(1=취업)	0.00(0.08)	0.00	-0.19(0.10)#	-0.10	-0.13(0.10)	-0.07	-0.17(0.11)	-0.08
모학력(1=대학이상)	0.04(0.09)	0.03	0.05(0.10)	0.03	0.24(0.10)*	0.13	0.25(0.11)*	0.13
거주지(1=북경)	0.24(0.09)*	0.19	0.25(0.11)*	0.17	0.24(0.11)*	0.15	0.12(0.12)	0.07
가구소득(로그값)	-0.03(0.12)	-0.02	-0.00(0.15)	-0.00	0.08(0.15)	0.04	0.28(0.16)#	0.14
응답자(1=어머니)	-0.07(0.07)	-0.05	0.00(0.08)	0.00	-0.00(0.08)	-0.00	-0.02(0.09)	-0.01
수정 R <sup>2</sup>	0.02		0.03		0.06		0.07	
(사례수)	(399)		(399)		(399)		(399)	

\*\*\* p &lt; .001, \* p &lt; .05, # p &lt; .1

조선족의 자녀갖기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경제적 요인이 포함되어도 앞서 논의한 북경 거주 지역의 지역적 특성이 부모됨의 긍정적 견해 3가지에 모두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견해에서는 거주지역의 영향력 대신 모의 학력과 가구소득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져, 모 학력이 대졸이상이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자녀갖기는 사회적 의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모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에 자녀갖기가 부모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다는 긍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표 2-3 참조).

## 2. 자녀의 도구적·정서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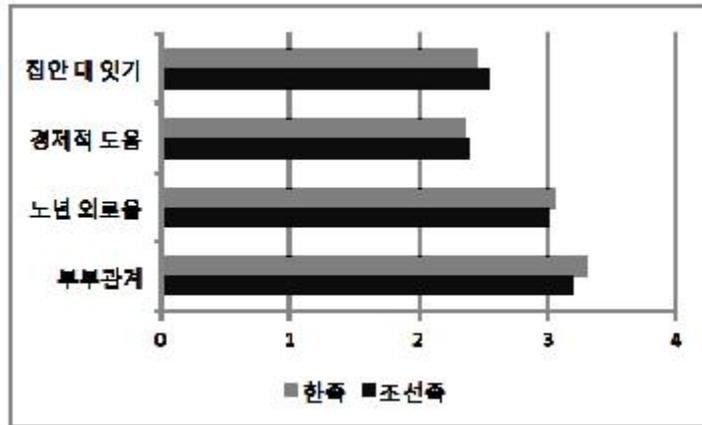
다음은 자녀의 가치를 정서와 도구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서적 가치 측면으로는 자녀가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해줌과 노년에 덜 외로움의 항목으로 조사하였고 도구적 가치로는 자녀가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줌, 집안의 대를 이음의 총 네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선족과 한족 모두 도구적 가치보다는 정서적 가치에서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정서적 가치로 자녀가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해준다는 4점 척도로 3점 이상이고 자녀가 있으면 노년에 덜 외롭다는 3점 내외이며, 도구적 가치로 자녀가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2.5점 정도이며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준다는 2.4점으로 찬성 정도가 낮다(그림 2-2 참조).

민족별로 차이는 대체로 한족이 정서적 가치가 조선족 보다 높고 도구적 가치는 한족보다 조선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통계적으로도 정서적 가치 중 자녀가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해준다는 유의도 .1 수준에서 한족이 찬성 정도가 높은 방향으로 유의하고 도구적 가치로는 자녀가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문항이 조선족이 한족에 비하여 점수가 높

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2-4 참조).

[그림 2-2] 자녀민족별 자녀 가치 인식



<표 2-4> 자녀민족별 자녀 가치 인식

단위: %(명)

구분	전혀 찬성 안함	별로 찬성 안함	대체로 찬성	매우 찬성	계(사례수)	평균
부부 관계를 굳건하게 함						
조선족	1.8	11.3	53.1	33.8	100.0(399)	3.19
한족	2.0	5.0	53.7	39.3	100.0(201)	3.30
$\chi^2(df)/t$		6.9(3) <sup>#</sup>				3.6 <sup>#</sup>
노년에 덜 외로움						
조선족	2.5	17.3	55.6	24.6	100.0(399)	3.02
한족	2.0	19.4	50.2	28.4	100.0(201)	3.05
$\chi^2(df)/t$		1.9(3)				0.2
노후에 경제적 도움						
조선족	10.0	48.4	33.8	7.8	100.0(399)	2.39
한족	9.5	50.7	34.3	5.5	100.0(201)	2.36
$\chi^2(df)/t$		1.2(3)				0.3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조선족	9.8	35.3	44.4	10.5	100.0(399)	2.56
한족	8.0	48.3	34.3	9.5	100.0(201)	2.45
$\chi^2(df)/t$		9.5(3) <sup>*</sup>				2.2

\*  $p < .05$ , #  $p < .1$

지역별 차이는 조선족과 한족 모두 연길보다는 북경에서 정서 및 도구적 가치가 모두 높게 조사되었다. 지역적 차이는 한족보다는 조선족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표 2-5 참조).

조선족의 경우, 경제적 도움을 기대하는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 유의도 .01수준에서 유의하게 북경에서 더 높았고,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해준다는 집안의 대 잇기도 유의도 .05 수준에서 지역 차이가 유의하였다(표 2-5 참조).

〈표 2-5〉 자녀민족 및 지역별 자녀 가치 인식: 4점 평균

단위:점(명)

구분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t	북경	연길	t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함	3.28	3.10	6.7*	3.39	3.22	3.5 <sup>#</sup>
노년에 덜 외로움	3.08	2.96	2.6	2.99	3.11	1.3
노후에 경제적 도움	2.56	2.23	18.3***	2.49	2.23	6.7*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사례수)	2.66 (200)	2.45 (199)	6.7*	2.41 (100)	2.50 (101)	0.6

\*\*\* p< .001, \* p< .05, # p< .1

회귀분석에서도 모 취업, 모 학력, 가구소득, 모 응답자 등의 영향력을 고려한 후에도 지역 차이는 네 항목 모두에서 여전히 유의하다. 지역 이외 변수들을 보면, 모 취업보다 미취업 가정,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하여 자녀가 필요하다는 태도가 강하며, 가구소득은 낮을수록 자녀에 정서적 가치를 더 많이 부여한다고 하겠다.

제 생각엔 애한테서 얻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애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은요. 저는 낱마다 애하고 그대요, 만약 네가 없다면 언가는 어찌할까? 애 아빠는 거의 저녁에 집에 안 계시죠. 출장 아니면 사업 때문에... 즐거운 시간이 더 많습니다. (연길 모3)

〈표 2-6〉 조선족 부모의 자녀가치 영향 요인

구분	부부 관계를 균건하게 함		노년에 덜 외로움		노후에 경제적 도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B(표준오차)	β	B(표준오차)	β	B(표준오차)	β	B(표준오차)	β
(상수)	4.18(0.49)***	-	3.91(0.50)***	-	2.09(0.53)***	-	3.20(0.56)***	-
모취업(1=취업)	0.06(0.09)	0.03	0.04(0.09)	0.02	0.06(0.10)	0.03	-0.32(0.10)**	-0.16
모학력(1=대학이상)	0.04(0.09)	0.03	0.04(0.10)	0.02	-0.01(0.10)	-0.00	0.02(0.11)	0.01
거주지(1=북경)	0.37(0.10)***	0.26	0.33(0.10)**	0.23	0.38(0.11)**	0.25	0.25(0.12)*	0.16
가구소득(로그값)	-0.32(0.14)*	-0.19	-0.28(0.14)*	-0.16	0.01(0.15)	0.01	-0.10(0.16)	-0.05
응답자(1=어머니)	0.00(0.08)	0.00	-0.02(0.08)	-0.01	0.02(0.08)	0.01	-0.20(0.09)*	-0.12
수정 R <sup>2</sup>	0.02		0.01		0.05		0.04	
(사례수)	(399)		(399)		(399)		(399)	

\*\*\* p&lt; .001, \*\* p&lt; .01, \* p&lt; .05

### 3. 자녀 성 선호

자녀 성 선호 태도는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하다와 여아보다 남아에 더 많은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두 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성 선호 점수는 4점 만점에 2점 내외로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지 않으나, 조선족이 한족에 비하여 남아 선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은 두 문항 찬성률이 각각 32.3%, 25.1%이고 한족은 22.4%, 21.9% 수준이다(표 2-7 참조).

〈표 2-7〉 자녀민족별 부모의 자녀성(性) 선호 태도

단위: %, 점(명)

구분	전적 반대	대체로 반대	대체로 찬성	전적 찬성	계(사례수)	5점 평균
대 잇기 위해서 아들 필요						
조선족	26.3	41.4	25.8	6.5	100.0(399)	2.13
한족	23.4	54.2	18.4	4.0	100.0(201)	2.03
X <sup>2</sup> (df)/t	10.0(3)*					1.7
남아에 더 많은 교육지원						
조선족	29.1	35.8	24.8	10.3	100.0(399)	2.16
한족	27.9	50.2	19.4	2.5	100.0(201)	1.97
X <sup>2</sup> (df)/t	19.2(3)***					6.5*

\*\*\* p&lt; .001, \* p&lt; .05

〈표 2-8〉 자녀민족 및 지역별 부모의 자녀성(性) 선호 태도: 4점 평균

단위: 점(명)

구분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t	북경	연길	t
대 잇기 위해서 아들 필요	2.35	1.90	26.8***	2.08	1.98	0.9
남아에 더 많은 교육지원 (사례수)	2.41 (200)	1.91 (199)	28.3***	1.94 (100)	1.99 (101)	0.2

\*\*\* p &lt; .001

이는 한족에게는 강하게 적용하고 소수민족에게는 비교적 융통성을 두는 중국의 한자녀 정책으로 한족의 경우는 자녀의 성 선호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4점 만점 점수로 지역별 차이를 보면 한족은 지역적 차이가 거의 없으나 조선족은 북경 거주자가 연길 거주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강한 성 선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 잇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하다는 북경 2.35점, 연길 1.90점이고, 부모가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많은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문항은 북경 2.41점, 연길 1.91점으로 차이를 보인다(표 2-8 참조).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도 거주지 변수만 유의하게 남고 기타 특성은 남아 성 선호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9 참조).

〈표 2-9〉 조선족 부모의 자녀성(性) 선호 태도 영향 요인

구분	대 잇기 위해서 아들 필요		남아에 더 많은 교육지원	
	B(표준오차)	$\beta$	B(표준오차)	$\beta$
(상수)	1.49(0.61)*	-	1.16(0.66)#	-
모취업(1=취업)	-0.05(0.11)	-0.02	0.06(0.12)	0.02
모학력(1=대학 이상)	-0.03(0.12)	-0.01	-0.05(0.13)	-0.02
거주지(1=북경)	0.40(0.13)**	0.23	0.42(0.14)**	0.21
가구소득(로그값)	0.12(0.17)	0.06	0.22(0.19)	0.09
응답자(1=어머니)	-0.00(0.09)	-0.00	-0.11(0.10)	-0.06
수정 R <sup>2</sup>	0.06		0.07	
(사례수)	(399)		(399)	

\*\* p &lt; .01, \* p &lt; .05, # p &lt; .1

즉, 전반적으로 자녀 가치와 더불어 남아 선호도 도시에서 더 강하게 형성되는 양상이다. 최초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자녀의 성이 고려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남아 같으면 보다 폭넓은 사회활동은 보장하기 위하여 한어 교육을 더 시키려는 의도로 한족 유치원을 선택하겠다는 의견을 보인다.

난 한족 유치원에 보내겠다고 우기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슨 조선족 아이를 한족 아이로 맞들겠는가고, 그리고 남편도 남자에면 보내겠는데, 무슨 여자를 한족애로 맞들겠는가, 견결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못 보냈습니다. 남자아이이면 더 강렬하게 나쁜, 나는 애를 한족학교에 보내겠다고, 이렇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연길 모1)

예, 그렇습니다. 애만큼은 더구나 남자아이니까 우리 둘째만큼은 한족학교에 보내 한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요즘 애들은 우리 세대와 달리 활동범위가 연변을 벗어나 전 중국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이따 대학에 가도 그렇고, 취직해도 그렇고 한어를 잘 못 하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연길 모2)

## 제2절 자녀 장래에 대한 기대

### 1. 기대하는 바람직한 사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장래에 기대하는 인간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명성 있거나 유명한 사람, 높은 사회적 지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 취미·여가 즐기기 아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자녀에게 기대하는 인간상으로 행복한 가정,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취미 여가를 즐기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가장 많이 기대하고 사회적 출세나 명성 및 축재는 그 다음의 가치로 보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명성 있거나 유명한 사람, 높은 사

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한족보다는 조선족이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도 유의도 .1 수준에서 조선족이 한족에 비하여 선호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가장 높은 기대를 나타낸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 취미·여가 즐기기 아는 사람에 있어서는 민족간의 차이가 없었다(표 2-10, 그림 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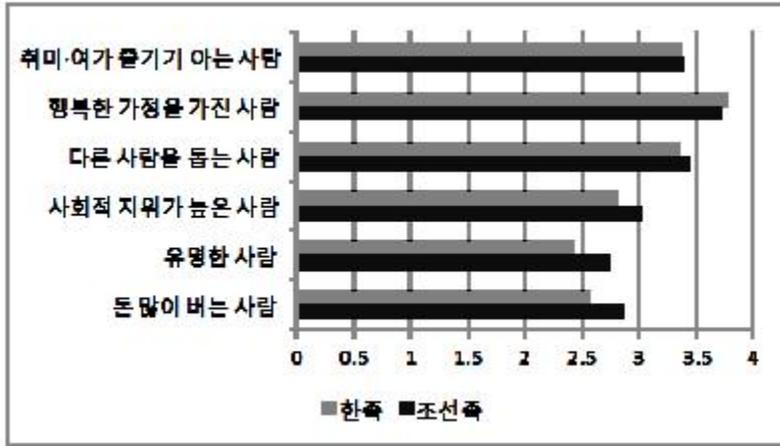
〈표 2-10〉 자녀민족별 자녀장래에 대한 기대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않음	별로 않음	다소 바람	매우 원함	계(사례수)	평균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조선족	9.5	21.1	43.4	26.1	100.0(399)	2.86
한족	6.0	45.8	34.8	13.4	100.0(201)	2.56
$X^2(df)/t$		42.0(3)***				15.9***
명성을 얻거나 유명한 사람						
조선족	10.5	26.1	41.9	21.6	100.0(399)	2.74
한족	10.4	50.7	23.9	14.9	100.0(201)	2.43
$X^2(df)/t$		38.8(3)***				16.1***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조선족	6.3	18.0	42.1	33.6	100.0(399)	3.03
한족	6.0	30.3	39.8	23.9	100.0(201)	2.82
$X^2(df)/t$		13.5(3)**				8.0**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조선족	0.3	2.8	48.4	48.6	100.0(399)	3.45
한족	1.0	4.0	52.7	42.3	100.0(201)	3.36
$X^2(df)/t$		na				3.2#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						
조선족	-	0.3	26.6	73.2	100.0(399)	3.73
한족	0.5	0.5	20.4	78.6	100.0(201)	3.77
$X^2(df)/t$		na				1.1
취미·여가 즐기기 아는 사람						
조선족	1.5	4.0	46.6	47.9	100.0(399)	3.41
한족	0.5	8.5	44.8	46.3	100.0(201)	3.37
$X^2(df)/t$		na				0.5

\*\*\* p< .001, \*\* p< .01, # p< .1, na는  $X^2$  검정 부적절

[그림 2-3] 자녀민족별 자녀장래에 대한 기대



<표 2-11>은 지역별 차이를 4점 평균으로 제시한 것이다. 조선족의 경우는 6개 문항 모두에서 연길보다 북경에서 원한다는 점수가 높다.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다. 이에 비하여 한족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명성 있거나 유명한 사람, 높은 사회적 지위 가진 사람은 북경에서 연길보다 점수가 높게 차이를 보이지만 나머지 3개 문항은 차이가 없었다.

〈표 2-11〉 자녀민족 및 지역별 자녀장래에 대한 기대: 4점 평균

단위: 점(명)

구분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t	북경	연길	t
돈을 많이 버는 사람	3.16	2.56	48.5***	2.78	2.34	16.7***
명성 있거나 유명한 사람	2.94	2.55	19.2***	2.68	2.19	17.4***
높은 사회적 지위 가진 사람	3.32	2.74	49.2***	3.15	2.49	34.5***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3.54	3.37	8.5**	3.35	3.38	0.1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	3.83	3.63	18.9***	3.77	3.77	0.0
취미·여가 즐기지 않는 사람	3.50	3.32	7.4**	3.41	3.33	0.8
(사례수)	(200)	(199)		(100)	(101)	

\*\*\* p&lt; .001, \*\* p&lt; .01

〈표 2-12〉 자녀민족 및 지역별 자녀장래에 대한 기대 영향 요인

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명성을 얻거나 유명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	취미·여가 즐기기는 사람
(상수)	0.27(0.60)	1.07(0.63) <sup>#</sup>	1.80(0.60) <sup>**</sup>	2.39(0.39) <sup>***</sup>	3.07(0.31) <sup>***</sup>	2.55(0.46) <sup>***</sup>
미취업 (1=취업)	-0.13(0.11)	-0.20(0.12) <sup>#</sup>	-0.05(0.11)	-0.14(0.07) <sup>#</sup>	0.05(0.06)	0.03(0.09)
모학력 (1=대학이상)	-0.34(0.12) <sup>**</sup>	-0.08(0.12)	-0.01(0.12)	0.19(0.08) <sup>*</sup>	0.02(0.06)	0.02(0.09)
거주지 (1=북경)	0.34(0.13) <sup>**</sup>	0.22(0.13) <sup>#</sup>	0.48(0.13) <sup>***</sup>	-0.04(0.08)	0.09(0.06)	0.09(0.10)
가구소득 (로그값)	0.67(0.17) <sup>***</sup>	0.45(0.18) <sup>*</sup>	0.26(0.17)	0.27(0.11) <sup>*</sup>	0.16(0.09) <sup>#</sup>	0.19(0.13)
응답자 (1=어머니)	0.10(0.09)	-0.66(0.10)	-0.02(0.09)	-0.02(0.06)	-0.08(0.05)	0.00(0.07)
수정 R <sup>2</sup>	0.17	0.08	0.12	0.07	0.05	0.02
(사례수)	(399)	(399)	(399)	(399)	(399)	(399)

\*\*\* p< .001, \*\* p< .01, \* p< .05, # p< .1

그러나 조선족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6개 문항 중 3개만이 연결보다 북경에서 원하는 바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인구 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할 경우 지역 차이는 한족과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명성 있거나 유명한 사람, 높은 사회적 지위 가진 사람에서만 연결과 차이를 보인다(표 2-12 참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에의 자녀 기대가 크고, 미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자녀의 명성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모 학력이 대졸 미만인 경우에 대졸이상인 경우보다 자녀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북경과 연결 거주 조선족은 다른 사람을 돕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취미 여가를 즐길 줄 아는 사람에 대한 기대는 동일하게 높으나, 명예와 부에 대한 갈망은 북경이 높은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지금 환경은, 공작양력이 심하잖아요,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는 장래에, 낚사아이니까, ..(중략).. 낚사아이니까 着裝類(제복을 입는 업종)거나 海陸空(직업군인)류를 선택하는 게... 이것은 장래에 국가에서도 이 방면에 대한 투자가 많아질 거고 도태율이 쏠 적기 때문에... 그리고 학습 성적에 대해서는 먼저 건강하고, 각 병명에서 너무 차하지 않은, 100명중에서 낚일 가능하다면 3분의 2, 혹은 4분의 3위치에... (연길 조부1)

가도공작을 하자면 또 그만큼 손자를 돌보지 못하니까. 손자 없다면 나가도공작을 하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손자가 있는 한 어쨌든 손자를 많이 돌봐주고, 공부를 잘 시켜서 앞으로 쏠 출세 시켜야 되겠다, 그저 이 생각 뿐입니다. (연길 조모1)

네, 두 분다, 아득머느리 다, 아들은 할빈공업대학을 나오고 머느리는 장춘 세무대학을 나왔는데, 어떻게 아득 머느리보다 공부를 더 많이 시키고 더 큰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쨌든 커가는 걸 봐야 알겠쥬. (연길 조부1)

## 2. 성장 후 한국과의 관련성

다음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로 자녀가 성장하여 한국과의 관련되기를 바라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는 한국과 관련된 일 하기, 중국 소재 한국기업에서 일하기, 한국에서 일하기,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 한국에서 공부하기의 다섯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미래 자녀의 한국과의 관련에 대한 기대 응답이 4점 만점에 2점대로 나타났다. 조선족을 중심으로 보면 한국과 관련된 일하기,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기, 한국에서 일하기에 일하기 모두 18% 정도가 매우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는 자녀가 커서 한국에서 공부하기를, 13% 정도는 한국인과 결혼하기를 매우 바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13〉 자녀민족별 한국 관련 태도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안 바람	그치안 바람	대체로 바람	매우 바람	계(사례수)	4점 평균
한국과 관련된 일 하기						
조선족	13.0	33.3	35.6	18.0	100.0(399)	2.65
한족	26.9	44.3	27.9	1.0	100.0(201)	2.15
$X^2(df)/t$		52.7(3)***				49.5***
중국 소재 한국기업에서 일하기						
조선족	12.3	32.1	38.1	17.5	100.0(399)	2.65
한족	23.9	42.3	32.3	1.5	100.0(201)	2.23
$X^2(df)/t$		44.6(3)***				34.3***
한국에서 일하기						
조선족	19.8	37.1	25.3	17.8	100.0(399)	2.48
한족	31.8	48.3	18.4	1.5	100.0(201)	2.00
$X^2(df)/t$		43.9(3)***				41.3***
한국사람과 결혼하기						
조선족	28.6	32.6	25.3	13.5	100.0(399)	2.34
한족	44.8	47.3	7.5	0.5	100.0(201)	1.73
$X^2(df)/t$		64.8(3)***				68.2***
한국에서 공부하기						
조선족	16.3	28.8	34.3	20.6	100.0(399)	2.63
한족	26.9	41.3	25.9	6.0	100.0(201)	2.23
$X^2(df)/t$		35.0(3)***				27.1***

\*\*\* p&lt; .001

4점 평균으로도 보면 한국인과 결혼하기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과 관계 맺기에서 한족보다는 조선족의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는데, 한족도 한국에서 공부하기에 6% 정도가 매우 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지역 차이는 흥미롭게도 조선족과 한족이 차이를 보인다, 즉, 조선족은 북경 거주자가 자녀가 커서 한국과 관계 갖기를 희망하는 정도가 연길 거주자보다 높은 반면에 한족은 조선족과 교류 가능성이 높은 연길 거주자가 북경 거주자보다 자녀가 커서 한국과 관계 갖기를 희망하는 정도가 크다(표 2-14 참조).

〈표 2-14〉 자녀민족 및 지역별 한국 관련 태도: 4점 평균

단위: 점(명)

구분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t	북경	연길	t
한국과 관련된 일 하기	3.01	2.16	104.7***	1.94	2.12	2.8 <sup>#</sup>
중국 소재 한국기업에서 일하기	3.00	2.22	89.6***	1.96	2.27	8.0**
한국에서 일하기	2.86	1.96	98.8***	1.73	2.06	10.3**
한국사람과 결혼하기	2.74	1.73	130.5***	1.54	1.73	4.6*
한국에서 공부하기	2.99	2.20	75.1***	1.93	2.29	8.8**
(사례수)	(200)	(199)		(100)	(101)	

\*\*\* p&lt; .001, \*\* p&lt; .01, \* p&lt; .05, # p&lt; .1

조선족은 회귀분석에서 응답자 변수를 통제하여도 지역 차이는 여전히 유의하다. 응답자 변수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한국과의 관계 갖기를 선호하고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가 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2-15 참조).

〈표 2-15〉 자녀민족 및 지역별 한국 관련 태도 영향 요인

구분	한국과 관련된 일 하기	중국 소재 한국기업에서 일하기	한국에서 일하기	한국사람과 결혼하기	한국에서 공부하기
(상수)	0.58(0.58)	1.07(0.58) <sup>#</sup>	0.51(0.63)	0.66(0.63)	1.54(0.65)*
모취업(1=취업)	-0.13(0.11)	-0.16(0.11)	-0.22(0.12) <sup>#</sup>	-0.26(0.12)*	-0.02(0.12)
모학력(1=대학이상)	0.09(0.11)	0.09(0.11)	0.14(0.12)	0.14(0.12)	0.05(0.12)
거주지(1=북경)	0.61(0.12)***	0.59(0.12)***	0.64(0.13)***	0.79(0.13)***	0.68(0.14)***
가구소득(로그값)	0.45(0.16)**	0.34(0.16)*	0.43(0.18)*	0.34(0.18) <sup>#</sup>	0.18(0.18)
응답자(1=어머니)	-0.07(0.09)	-0.03(0.09)	-0.05(0.10)	-0.08(0.10)	-0.04(0.10)
수정 R <sup>2</sup>	0.24	0.20	0.22	0.26	0.15
(사례수)	(399)	(399)	(399)	(399)	(399)

\*\*\* p&lt; .001, \*\* p&lt; .01, \* p&lt; .05, # p&lt; .1

연길시 조선족의 경우 방문취업 등으로 한국에서 일한 경험 비율이 높음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기대하는 한국과의 관계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북경 응답자가 고학력으로 한국기업 등에 사무직으로 관계 맺기를 기대한다면 연길시 응답자는 서비스나

단순 노동자로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제3절 소결

자녀에 대한 태도와 가치, 기대, 자녀 성별 선호와 향후 한국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족과 조선족을 비교해 보면 조선족이 자녀에 대해 좀 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선족은 자녀 갖기에 한족보다 긍정적이며, 남아 선호 태도가 더 강하다. 자녀 가치는 한족은 정서적 가치, 조선족은 도구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 자녀에 대한 기대는 한족에 비하여 조선족이 돈, 명예, 사회적 지위 등 성취에 대한 기대가 더 강하다. 이러한 자녀에 대한 기대는 자녀를 한국에 데리고 와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키우면서 좋은 자녀교육에 만족해하는 조선족 근로자 사례(서문희 외, 2010)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조선족은 자녀 성장 후 한국과 관계 맺기는 결혼이 38.8%로 가장 낮고, 중국 소재 한국기업에서 일하기 55.6%로 높았다.

지역적으로 보면 대체로 북경의 경우가 더욱 전통적 태도를 나타냈는데, 북경-연길간 지역간 차이는 한족에 비해 조선족이 커서, 대부분의 자녀 가치에서 조선족내 북경-연길간의 지역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을 중심으로 지역간 차이를 보면, 자녀 갖기는 북경 조선족이 연길 조선족보다 긍정적 정서를 나타냈고, 북경 조선족이 성선호 태도가 더 강하고, 아이를 꼭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응답 비율도 더 높다. 자녀 가치 유형은 조선족은 북경에서 도구와 정서 가치가 모두 연길보다 높다. 자녀에 대한 기대는 북경 조선족이 돈, 명예,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기대가 연길 조선족보다 더 강하다. 자녀 성장 후 한국과 관계 맺기도 학력수준이 높은 북경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서 이들이 연길시와

는 다르게 사무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한족은 반대로 조선족과의 교류가 많은 연길에서 더 높다.

이상의 결과는 북경 조선족이 연길 조선족에 비해 자녀 가치 관련 의견이 보다 다양하고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북경 부모가 연길에 비해 자녀 갖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과 동시에 남아선호와 아이를 꼭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갖는 등, 전통적·근대적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는 정도가 더 강하였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에 소득수준이 높은 북경 조선족이 연길에 비해 정서적 가치관과 더불어 전통적인 도구적 가치 인식도 강하게 드러낸다. 이는 북경이 연길에 비하여 자녀에게 보다 많고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고,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보다 잘 키워야 한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북경과 연길 조선족의 자녀 양육 및 가치 인식 차이는 북경 조선족에 대한 표집이 소득수준과 학력이 높은 전문직 위주라는 면을 고려하더라도 중국 동포사회에는 동포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나타내며, 이는 변화하고 있는 조선족의 모습을 반영한다.

## 제3장 자녀양육 실태

### 제1절 자녀양육 관련 정책 개요

#### 1. 한 자녀 정책

중국의 자녀 관련 정책은 가족계획이 중심을 이루며 양육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sup>4</sup>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인구와 가족계획 법률<sup>5</sup>은 결혼 및 자녀 출산을 규정하고 가족계획을 의무화하고 한자녀 출산을 권장한다. 인민공화국 인구와 가족계획 법률은 인구, 가족계획은 국가의 기본 국책으로, 국가가 인구 수 증가를 억제하고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중국의 한자녀 정책은 일찍이 1950년대부터 권장 수준으로 추진하다가 1979년에 한부부 한자녀 정책을 도입하고 1984년에 전국범위 한자녀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1991년 지방계획생육조례 제정, 2001년 중국인구와계획생육법 제정하였다(임미영 외, 2008). 현재 한 자녀정책은 소수 민족, 첫 자녀가 딸인 농촌 부부, 부부가 모두 외동인 부부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 자녀 정책에 해당되는 자가 한 자녀 정책을

---

4. 1980년 9월 10일 제정 및 2001년 4월 28일 개정

5. 2001년 12월 29일 게시되어 2002년 9월 이후 발효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리거나 공직자의 경우는 직장을 잃기까지 하는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그 정도는 지방정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2010년 중국 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중국 인구는 2000년 12억 7000만에서 13억 4000만으로 0.57% 증가하였다. 1990~2000년의 1.07%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노령인구는 10.3%에서 13.3%로 증가하고 14세 이하 연령 인구도 23%에서 16.6%로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 변화 결과를 두고 한 자녀 정책의 유지가 과연 적절한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은 20-24세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성비도 120으로 여자 대비 남자 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은 1.54로 추정되었다.

시민단체들은 중국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으며 인구성장률이 급감하고 앞으로 인구수축의 위험이 있음을 들어서 한 자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중국 정부는 한자녀 정책으로 4억 인구의 인구 증가 억제 효과 등을 들어서 앞으로도 이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Wall Street Journal, 2011 4. 29일자).

한 자녀 정책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특히 북경을 호구제로 인구 유입을 제한하며 한 자녀 정책을 강하게 추진한다. 제제 조치는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개인들이 희망하는 대로 자녀를 출산하기는 어렵다.

지방마다 성마다 정책이 틀려요. 호구가 북경에 들어왔을 경우에 부모 둘 다 왔을 경우에는 애기를 가지면 엄청난 벌금을 가지고 발전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벌금은 수십만원 소문에. 벌금 외에 모든 자격을 취소 그런 엄청난 제재가 있습니다. 정책이니까. 넣고 싶은데... 아들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조금 있고. 대 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호구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제한이 없으면 엄청나게 인구가 북어서 그 도시 모든 면에서 북타를 가져오지요... 과거에는 한평생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였지요. 지금은 많이 쉬워진 편이에요. (북경 부2)

## 2. 자녀양육 지원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 자녀양육 지원 정책이 수당 등 현금 지원, 영유아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지원, 근로자 자녀 양육 지원 등 사업장에서의 지원 세 가지이다. 중국의 경우 자녀나 가족을 위한 현금 지원은 거의 없다. 북경 일부 직장의 경우 독생자녀 지원이나 미취학 아동 우유값 지원이 있으나 그 수준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영유아 탁아서비스는 개방개혁 이후 공적 기능이 거의 붕괴되었고 민간 중심의 유아원이 확대되면서 2010년에 들어서 유아교육을 중심으로 한 영유아 서비스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 자녀 양육 지원은 생육보험을 통하여 출산 휴가 시 대체소득을 지원한다.

중국 16-54세 여성인구의 취업률은 2000년 인구총조사 결과 78.3%로 조사되어서 16-59세 남성인구의 취업률이 87.7%와 비교하여 다소 낮다고 하겠으나 중국 여성의 취업률 자체는 유럽 국가 수준으로 비교적 높다. 연령별로 취업률을 보아도 우리나라와 같은 육아기 M자 커브는 나타나지 않는다. 노동에 있어서 남녀가 거의 평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하겠는데, 이러한 추세는 한자녀 정책에 의한 남아와 여아를 동등하게 보고자 하는 정책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3-1〉 중국 여성과 남성 취업률: 2000

단위: %(백만)

구분	16-54세 여성	16-69세 남성
취업	78.3	87.7
미취업	21.7	12.3
계	100.0(370.37)	100.0(415.00)

자료: Department of population, social, science and technology,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Women and Men in China Facts and Figures, 2004

여성의 취업이 보편화된 만큼 사업장 중심의 근로자 출산 지원은 중국의 5대 사회보험의 하나인 생육보험<sup>6</sup>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생육

보험 급여는 출산휴가, 출산 의료비, 생육보조금이 있으나 가장 큰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 지급으로, 생육휴가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급여 손실 부분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여성노동자를 생육에 의한 실업으로부터 보호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1951년 100인 이상 기업 여성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시작하여 1994년 기업직원생육보험시행방안을 제정하여 1955년 기업에서 기관이나 사업단위 여직원에게로 확대하였으며 1988년에는 여직원노동보호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국가기관, 기업 및 사업단위로 확대하고 휴가기간도 56일에서 90일로 확대하였다. 출산휴가는 정상분만시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소득대체를 100% 유급으로 지원하며, 조산이나 유산도 각각 30일 이내 및 42일 이내에서 유급휴가를 보장하며 난산, 다태아 출산시 휴가 기간이 15일 증가한다. 그 외 검진, 출산, 수술 등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도 생육보험으로 지급한다. 생육보험의 실체는 지방정부 조례와 사업장에 따라서 다르다.

생육보험 기금은 기업이 직원급여 총액의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납부한 생육보험료로 충당한다. 근로자 본인부담은 없다. 생육보험 운영은 각 지역이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기업 직원 생육보험시행방법을 따른다. 보험료율은 급여의 1% 미만으로 규정하는데 실제로는 지방정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0.5~0.7%의 요율을 적용한다.

생육보험에 의한 지원은 한 자녀 등 정부가 요구하는 제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 의미에서 생육보험은 사회보장 기능과 함께 인구조절 기능을 한다. 그러나 생육보험 적용 대상에서 비정규직 등 일부 근로자가 제외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회보험에 비하여 생육보험 가입자 규모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0년 중국 통

---

6. 중국 사회보장은 5대 보험으로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이며, 이외 mandatory housing fund가 추가됨.

계정 자료에서는 2010년 현재 중국 실업보험 가입자는 1억 3376만명이  
고 공상보험 가입자는 1억 6173만명인데 생육보험 가입자는 1억 2306  
만명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생육보험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10년은 1억 2306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3-2〉 중국 노동 관련 보험 가입자수

단위: 만명

구분	2000	2005	2010
실업보험	10,408	10,648	13,376
공상보험	4,350	8,478	16,173
생육보험	3,001	5,408	12,306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english/statisticaldata>

## 제2절 자녀양육 분담

### 1. 양육자

#### 1) 주양육자

본 조사 결과 아동의 주 양육자는 어머니가 조선족 72.9%, 한족 83.1%로 조사되었다. 이외는 조부모와 아버지가 대부분인데, 조선족은 친조부모 13.5%, 외조부모 4.5%, 아버지 3.8% 순으로 주 양육을 맡는다고 조사되었고, 한족은 친조부모 7.5%, 외조부모 5.5%, 아버지 3.8% 순이었다(표 3-3 참조).

지역적으로는 조선족은 북경과 연길의 차이를 보이지만 한족은 지역 차이를 거의 나타내지 않았다. 북경 거주 조선족은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의 비율이 28% 수준인데 비하여 연길시는 15% 미만이었다.

〈표 3-3〉 자녀의 주 양육자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모	72.9	83.1	67.0	78.9	83.0	83.2
부	3.8	3.5	3.0	4.5	4.0	3.0
부모의 형제자매	0.8	-	0.5	1.0	-	-
친조부모	13.5	7.5	16.5	10.6	8.0	6.9
외조부모	7.5	5.5	11.5	3.5	4.0	6.9
기타 친인척	0.5	-	0.5	0.5	-	-
비혈연	0.3	-	-	0.5	-	-
기타	0.8	0.5	1.0	0.5	1.0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중국 여성의 취업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이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저는 애가 둘이니깐, 오늘엔 공원소착교서 자모회의 한다 하지, 내일은 또 유치원에서 자모회의 한다든지, 정신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때론 일이나 모일이 있잖습니까? 애들 일이 끝이 없으니깐 그걸 땀 안타깝고 짜증납니다. (연길 모2)

## 2) 한부모 양육

또한 부인이나 남편 등 부모의 한쪽이 부재한 경우에도 실제로 모자, 또는 부자 한 부모가족으로 혼자서 자녀를 기르는 부담이 있다. 특히 연길에서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일 찾기가 더 쉽기 때문에 부인이 일하러 가고 남편이 남아서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은 아이에게 구김이 가지 않도록 키우기 위해 애하고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유치원에 애를 데리러 가는데 친구들이 전화가 와서 술 마시러 가자든가 할

때면 할 수없이 미안한대론 할머니한테 전화하여 아이를 데려다 달라고 하지요. 어떤 때에는 할머니도 형편이 안 되면 아들놈한테도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면 참 아이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모두에게 미안하지요. 안 나가자니, 나도 사실 사회생활이란 게 거의 없잖습니까? 농촌출신이다 보니 마땅한 직업도 없고, 간혹 친구들을 만나는 재미마저 없으면 나도 너무 적적합니다.  
(연길 부1)

### 3) 조부모 양육

본 조사 대상으로는 많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중국, 특히 조선족 사회에서 부모가 일 때문에 외국 등에 멀리 떠나 있거나 바쁠 경우에 조부모가 손자를 양육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조부모들이 한국에 가서 돈 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도와 줄 어른이 별로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부모 보육은 자녀들과 인접해서 살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서로 멀리 떨어져 살 경우에는 손자녀를 집으로 데려와서 돌보거나 자식의 집으로 가서 손자녀를 돌보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있습니다. 북경 주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주말에 한번씩 가고요. 전에는 우리 시누이 애를 보다가 애가 소학교 가니까 이젠 우리 애를 계속 봐주는 거죠. (북경 모 1)

할머니가 키웠어요. 6개월 전에는 아줌마가 저하고 같이 키우고 후에는 언니가 봤어요. 세살 유치원 탁아반 들어가기 전에는 6개월은 고향에 데리고 가고 6개월은 북경에 계시면서 이렇게 키웠어요.. (북경 모2)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에 계시다가 저의 어머니가 와서 그냥 2년반 정도 도와줬어요. 유치원은 가니까 이젠 제가 혼자 보고요(북경 모3)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몇 가지 애로사항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자녀와 부모와의 애착의 한계로 인한 자녀의 발달이 미치는 부정적 측면이다.

지금 며느리가 한국에 있고 아버지는 운전수로 먼데 장도(먼거리)를 뛰나다니 깃.., 드문드문 전화하고, 혹시 뭘보면 먹을 거나 사고 애 옷이나 사고 이 내는 게. 손자도 나한테 관심이 더 있고 애머, 아버지는 자꾸 먼데 갈라져 있으니까 인젠 크게 찾지도 않습니다(연길 조모1).

둘째, 자녀양육방식에 대한 자녀 세대와의 차이로 인한 불편함과 책임에 대한 부담과 자신감 결여이다.

애를 특생방에 보냈으면 좋겠는데, 어떤 특생방에 보내야 하는지.., 애버, 애머 요구에 따라 해야겠는데 그것들이 다 나가 돈을 벌다 나니깐 아이에 대해 신경 쓸 새도 없고, 내 또 나이 있지, 그러다나니깐 그 유치원을 대충 보내고 있는데...(연길 조모1)

극세 아들며느리도 우리한테 아이를 보내놓고.., 개네도 바라는 치가 높을 게고 우리 늙은이 키우는데서 젊은이들의 방법과 쥘 차이가 있으므로 쥘 그런 것이 있습니다(연길 조부1).

거기에 대해서는 극세, 어쨌든 젊은이들 생각하고 지금 우리 세대하고 인식하고 차이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애들은 아이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어루만지게 키우지 말고 쥘 언하게 해주 걸 많이 요구하고...(연길 조부1).

셋째로 손자녀 돌봄 지원은 조부모 사회활동 저해, 건강 악화 등으로 부담으로 작용한다.

우리도 어쨌든 투이슈(정년)한 노인이라 하지만 자기가 즐기는 체육활동도 있을 거고, 라틴 다른 애호에 따라서 활동이 많은데 그걸 내가 다 하느라엔 애를 보는데 영향이 있고, 또 애를 제시간에 보내고 제시간에 마중하자면

또 내 활동에도 영향이 있고, ..(중략).. 비록 투이슈는 했다지만 일정하게 사회활동에도 참가하고 하는데....(연길 조부 1)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아 줄 경우에 그 댓가 비용은 정기적 급여보다는 비공식적으로 용돈이나 선물 형태가 더 보편적이다.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있습니다. 북경 주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주말에 한번씩 가고요. 생신날이나 되면은 선물이나 사주고 용돈도 드리구.(북경 모 1)

애기 났다구 돈을 드리는 것보다 명절이나 한번 왔다가 애기 데리고 고향 가실 때면 많이 드리죠. 애기를 바꾸기 때문에 더 수고한다는 의미에서 좀 더 드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북경 모2)

소수이기는 하지만 보육모 등 비혈연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는 경우에 비용은 조선족이 북경은 평균 2,400위안, 연길에서는 1,700위안 정도로 파악되었다(표 3-4 참조).

〈표 3-4〉 대리 양육 월평균 비용

단위: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0원	71.0	77.8	88.3	39.4	84.6	71.4
1000원 미만	4.4	3.7	1.7	9.0	-	7.1
1,000원	3.2	3.7	-	9.1	7.7	-
1,500원	5.4	3.7	1.7	12.1	-	7.1
2,000원	9.7	7.4	3.3	21.2	-	14.3
2,750원	-	3.7	-	-	7.7	-
3,000원	5.4	-	3.3	9.1	-	-
5,000원	1.1	-	1.7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93)	(27)	(60)	(33)	(13)	(14)
평균:(위안화)	1,874.07	1,625.00	2,400.00	1,690.00	1,875.00	1,500.00

## 2. 남편의 지원

### 1) 양육분담

부부의 자녀 양육 분담은 밥 먹고 옷 입기, 함께 놀아주기, 아플 때 돌봐주기, 숙제 등 돌봐주기, 등하(원)교 시키기의 다섯 문항을 조사한 결과, 밥 먹고 옷 입히기는 부인이, 함께 놀아주기와 아플 때 돌봐주기는 부부 공동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숙제 돌봐주기와 등하원 시키기에서 조선족의 경우 부부공동의 분담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표 3-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섯 문항 모두 조선족과 한족의 민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부의 자녀 양육 분담은 한족과 조선족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표 3-5〉 자녀민족별 양육분담

단위: %(명)

구분	전적 남편	대부분 남편	부부 공동	대부분 부인	전적 부인	다른 사람	계(사례수)	$\chi^2(df)$
밥 먹고 옷 입기								
조선족	0.3	3.5	30.1	48.6	13.8	3.8	100.0(399)	6.1(5)
한족	-	1.0	27.9	50.7	13.9	6.5	100.0(201)	
함께 놀아주기								
조선족	0.3	5.0	53.9	30.1	8.3	2.5	100.0(399)	7.0(5)
한족	-	5.5	47.8	37.8	5.0	4.0	100.0(201)	
아플 때 돌봐주기								
조선족	-	3.3	57.9	31.8	3.8	3.3	100.0(399)	8.5(5)
한족	0.5	1.5	67.7	24.4	3.5	2.5	100.0(201)	
숙제 등 돌봐주기								
조선족	0.5	8.3	43.4	36.8	8.0	3.0	100.0(399)	6.6(5)
한족	1.0	6.0	37.3	46.8	7.0	2.0	100.0(201)	
등하(원)교 시키기								
조선족	1.0	9.8	39.6	36.1	8.0	5.5	100.0(399)	5.9(5)
한족	1.0	9.0	31.3	40.8	9.0	9.0	100.0(201)	

<표 3-6>은 조선족과 한족을 나누어서 지역별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표 3-6> 자녀민족 및 지역별 부부의 양육분담

단위: %(명)

구분	전적 남편	대부분 남편	부부 공동	대부분 부인	전적 부인	다른 사람	계(사례수)	$\chi^2(df)$
<b>조선족</b>								
밥 먹고 옷 입기								
북경	-	1.0	20.0	56.5	19.5	3.0	100.0(200)	36.9(5)***
연길	0.5	6.0	40.2	40.7	8.0	4.5	100.0(199)	
함께 놀아주기								
북경	-	3.0	43.5	40.0	11.5	2.0	100.0(200)	na
연길	0.5	7.0	64.3	20.1	5.0	3.0	100.0(199)	
아플 때 돌봐주기								
북경	-	2.5	50.0	42.5	3.5	1.5	100.0(200)	23.2(4)***
연길	-	4.0	65.8	21.1	4.0	5.0	100.0(199)	
숙제 등 돌봐주기								
북경	0.5	10.5	40.0	37.0	11.5	0.5	100.0(200)	na
연길	0.5	6.0	46.7	36.7	4.5	5.5	100.0(199)	
등하원(교) 시키기								
북경	1.5	6.5	38.5	37.5	10.5	5.5	100.0(200)	8.8(5)
연길	0.5	13.1	40.7	34.7	5.5	5.5	100.0(199)	
<b>한족</b>								
밥 먹고 옷 입기								
북경	-	-	15.0	60.0	17.0	8.0	100.0(100)	na
연길	-	2.0	40.6	41.6	10.9	5.0	100.0(101)	
함께 놀아주기								
북경	-	3.0	38.0	48.0	4.0	7.0	100.0(100)	na
연길	-	7.9	57.4	27.7	5.9	1.0	100.0(101)	
아플 때 돌봐주기								
북경	-	-	71.0	24.0	3.0	2.0	100.0(100)	na
연길	1.0	3.0	64.4	24.8	4.0	3.0	100.0(101)	
숙제 등 돌봐주기								
북경	-	5.0	31.0	53.0	9.0	2.0	100.0(100)	na
연길	2.0	6.9	43.6	40.6	5.0	2.0	100.0(101)	
등하원(교) 시키기								
북경	1.0	2.0	19.0	55.0	12.0	12.0	100.0(100)	33.3(5)***
연길	1.0	15.8	43.6	26.7	5.9	6.9	100.0(101)	

\*\*\*  $p < .001$ , na는  $\chi^2$  검정 부적절

먼저 조선족의 경우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북경시 거주자가 연결시 거주자에 비하여 부부공동으로 한다는 비율이 낮고 반대로 대부분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한다는 비율이 높다. 밥 먹고 옷 입기나 아플 때 돌봐주기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한족의 경우에도 조선족과 마찬가지로 아플 때 돌봐주기 문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에서 북경거주자가 연결거주자에 비하여 부부공동으로 한다는 비율이 낮고 반대로 대부분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한다는 비율이 높다.

<표 3-7>은 조선족만 대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응답을 제외한 응답을 종속변수로 하고, 응답자 및 부모 특성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회귀분석 결과인데 이들 특성을 통제하여도 지역 차이는 모두 유의하다. 부모특성으로는 모 학력이 대학 미만인 그 이상에 비하여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가 낮고, 가구소득이 높을 경우 아이가 아플 때 돌보기에 남편의 참여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결에 비하여 북경에서 부모의 성 역할이 강화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연결에 비하여 도시인 북경에서 남성의 일하는 시간이나 강도가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사료된다.

〈표 3-7〉 조선족 양육분담 영향 요인

구분	밥 먹고 옷 입기	함께 놀아주기	아플 때 돌봐주기	숙제 등 돌봐주기	등하(원)교 시키기
(상수)	3.86(0.57)***	2.90(0.56)***	2.12(0.53)***	3.64(0.62)***	4.17(0.69)***
모취업(1=취업)	-0.06(0.11)	-0.08(0.10)	-0.10(0.10)	-0.06(0.11)	-0.05(0.13)
모학력(1=대학이상)	-0.16(0.11)	-0.32(0.11)**	-0.17(0.10)#	-0.29(0.12)*	-0.30(0.13)*
거주지(1=북경)	0.52(0.12)***	0.36(0.12)**	-0.06(0.11)	0.01(0.13)	0.39(0.14)**
가구소득(로그값)	-0.05(0.16)	0.15(0.16)	0.39(0.15)**	0.00(0.17)	-0.17(0.19)
응답자(1=어머니)	0.08(0.09)	0.14(0.09)	0.04(0.08)	0.18(0.10)#	0.16(0.11)
수정 R <sup>2</sup>	0.08	0.08	0.02	0.02	0.04
(사례수)	(399)	(399)	(399)	(399)	(399)

\*\*\* p< .001, \*\* p< .01, \* p< .05, # p< .1

한 조선족 어머니의 심층면접 내용이 이를 잘 나타낸다.

우리 조선족들은 ...큰 문제입니다. 밤늦게 퇴근해서 애기 자는 것만 보고 아무것도 못 도와줬어요. ... (중략)... 지금도 일주일에 한번씩 토요일 밤, 일요일 밤날 이렇게 그냥 가족끼리 놓려가지만, 평일에는 아무 것도 못 도와줍니다. (북경 모 3)

## 2) 부부간 성 역할에 대한 태도

다음은 부부간의 성역할 태도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다섯 가지 문항에 대하여 찬반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에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는 항목과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는 항목에서 조선족의 찬성비율이 한족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다. 그러나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세 가지 항목은 조선족과 한족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표 3-8 참조).

다음 <표 3-9>는 민족별, 지역별 차이를 4점 척도 평균으로 알아 본 것이다. 조선족의 경우는 다섯 문항 중 세 문항,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문항에서 북경 거주자가 연길 거주자보다 찬성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보인다.

한족의 경우는. 다섯 문항 중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

는 남편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한 항목에서 북경 거주자가 연길 거주자보다 찬성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보인다.

〈표 3-8〉 자녀민족별 부부 성 역할에 대한 태도

단위: %, 점(명)

구분	전적 반대	대체로 반대	대체로 찬성	전적 찬성	계(사례수)	평균
남편은 직업, 아내는 가정						
조선족	9.5	29.1	50.9	10.5	100.0(399)	2.62
한족	5.5	31.8	49.3	13.4	100.0(201)	2.71
$X^2(df)/t$		4.1(3)				1.5
취업모도 자녀 관계 잘 유지						
조선족	0.5	9.0	65.7	24.8	100.0(399)	3.15
한족	1.5	6.0	67.2	25.4	100.0(201)	3.16
$X^2(df)/t$		na				0.1
맞벌이 부부도 생계는 남편 책임						
조선족	7.3	36.8	46.9	9.0	100.0(399)	2.58
한족	8.5	47.8	33.8	10.0	100.0(201)	2.45
$X^2(df)/t$		9.7(3)*				3.5 <sup>#</sup>
남편도 자녀를 잘 돌볼 수 있음						
조선족	1.0	14.8	62.4	21.8	100.0(399)	3.05
한족	2.5	22.9	55.2	19.4	100.0(201)	2.92
$X^2(df)/t$		8.5(3)*				5.5*
아내가 노인 돌보기를 더 잘함.						
조선족	3.5	20.1	63.9	12.5	100.0(399)	2.85
한족	3.5	21.9	55.7	18.9	100.0(201)	2.90
$X^2(df)/t$		5.4(3)				0.6

\*  $p < .05$ , #  $p < .1$ , na는  $X^2$  검정 부적절

〈표 3-9〉 자녀민족 및 지역별 부부 성 역할에 대한 태도: 4점 평균

단위: 점(명)

구분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t	북경	연길	t
남편은 직업, 아내는 가정	2.70	2.55	3.7 <sup>#</sup>	2.69	2.72	0.1
취업모도 자녀와의 관계 잘 유지	3.17	3.13	0.6	3.18	3.15	0.1
맞벌이 부부도 생계는 남편 책임	2.66	2.50	4.4*	2.59	2.32	6.2*
남편도 자녀를 잘 돌볼 수 있음	3.01	3.09	1.6	2.99	2.84	2.2
아내가 노인 돌보기를 더 잘함. (사례수)	2.95 (200)	2.76 (199)	7.5**	2.94 (100)	2.86 (101)	0.6

\*\*  $p < .01$ , \*  $p < .05$ , #  $p < .1$

<표 3-10>은 조선족만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거주지 변수는 아내가 노인 돌보기를 더 잘 함에서만 북경이 연길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남편도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는 연길이 북정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다. 이는 아이 돌봄에 대한 부부간 역할 조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외에 모취업, 가구소득, 응답자 변수가 일부 항목에 차이를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10〉 조선족 부부 성 역할 영향 요인

구분	남편은 직업, 아내는 가정	취업모도 자녀 관계 잘 유지	맞벌이 부부도 생계는 남편 책임	남편도 자녀를 잘 돌볼 수 있음	아내가 노인 돌보기를 더 잘함
(상수)	2.22(0.57)***	2.91(0.42)***	2.07(0.54)***	2.34(0.46)***	2.72(0.48)***
모취업(1=취업)	-0.24(0.11)*	0.02(0.08)	-0.18(0.10)#	-0.04(0.09)	0.06(0.09)
모학력(1=대학이상)	-0.02(0.11)	0.08(0.08)	-0.01(0.10)	-0.03(0.09)	-0.03(0.09)
거주지(1=북경)	0.08(0.12)	0.00(0.09)	0.09(0.11)	-0.18(0.10)#	0.23(0.10)*
가구소득(로그값)	0.16(0.16)	0.02(0.12)	0.17(0.15)	0.22(0.13)#	-0.01(0.14)
응답자(1=어머니)	-0.14(0.09)	0.11(0.07)#	-0.15(0.08)#	-0.04(0.07)	0.01(0.08)
수정 R <sup>2</sup>	0.02	-0.00	0.02	-0.00	0.01
(사례수)	(399)	(399)	(399)	(399)	(399)

\*\*\* p< .001, \* p< .05, # p< .1

### 3. 자녀양육 시 중요한 사항

다음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중요시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된 항목은 몸을 튼튼히 하기, 기본생활습관 익히기, 숫자와 글자 익히기, 영어 등 외국어 배우기, 한국어 배우기, 중국어 배우기, 예체능 재능 키우기 등 일곱 개 항목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4점 만점을 중심으로 보면 몸 튼튼히 하기, 기본생활습관 익히기가 가장 점수가 높고 이외 숫자와 글자 익히기, 영어 등 외국어 배우기, 한국어 배우기, 중국어 배우기, 예체능 재능 키우기 등 다섯 항목은 거의 차이가 없이 중요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어에 대해서 조선족은 중국어보다 약간 낮은 중요도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족별 차이는 조선족이 한국어에 대해, 한족은 몸을 튼튼히 한다는 데 조선족에 비해 유의하게 중요도를 부여한 정도가 높다. 조선족이 중국어 배우기가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한족보다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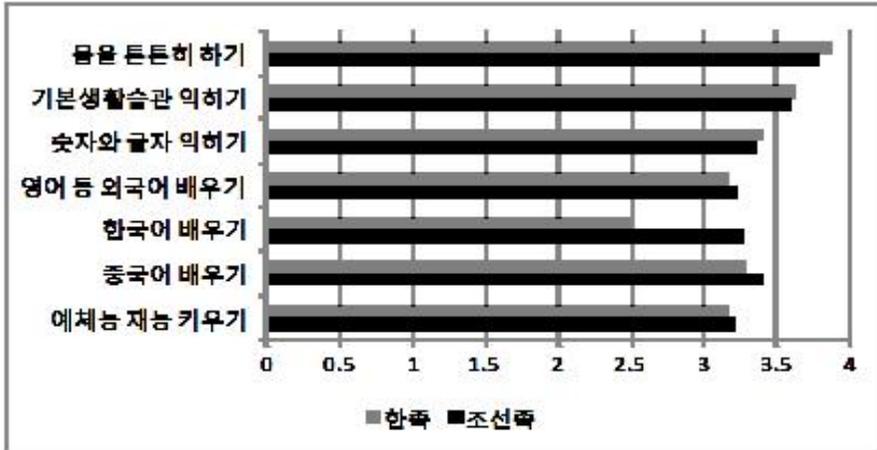
〈표 3-11〉 자녀민족별 자녀양육시 중요도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안 중요	별로 안 중요	비교적 중요	매우 중요	계(사례수)	평균
몸을 튼튼히 하기						
조선족	0.5	-	20.8	78.7	100.0(399)	3.78
한족	-	-	10.9	89.1	100.0(201)	3.89
$X^2(df)/t$			na			10.2**
기본생활습관 익히기						
조선족	0.3	1.0	38.6	60.2	100.0(399)	3.59
한족	-	2.0	33.8	64.2	100.0(201)	3.62
$X^2(df)/t$			na			0.6
숫자와 글자 익히기						
조선족	-	5.5	53.4	41.1	100.0(399)	3.36
한족	-	5.5	47.3	47.3	100.0(201)	3.42
$X^2(df)/t$			2.2(2)			1.5
영어 등 외국어 배우기						
조선족	0.3	12.5	51.6	35.6	100.0(399)	3.23
한족	1.0	11.4	56.2	31.3	100.0(201)	3.18
$X^2(df)/t$			na			0.7
한국어 배우기						
조선족	0.5	13.0	45.1	41.4	100.0(399)	3.27
한족	10.0	46.3	29.4	14.4	100.0(201)	2.48
$X^2(df)/t$			131.9(3)***			145.5***
중국어 배우기						
조선족	-	6.0	46.9	47.1	100.0(399)	3.41
한족	-	9.0	52.2	38.8	100.0(201)	3.30
$X^2(df)/t$			4.5(2)			4.5*
예체능 재능 키우기						
조선족	0.3	9.0	60.2	30.6	100.0(399)	3.21
한족	0.5	14.4	52.2	32.8	100.0(201)	3.17
$X^2(df)/t$			na			0.4

\*\*\*  $p < .001$ , \*\*  $p < .01$ , \*  $p < .05$ , na는  $X^2$  검정 부적절

[그림 3-1] 자녀민족별 자녀양육시 중요도



이러한 경향은 우선순위 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부록 표 참조).

다음은 지역 차이로, 조선족은 북경 거주자가 연길거주자에 비하여 일곱개 항목 모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높았다. 예체능 재능 키우기에서만 유의도가 낮을 뿐, 이외 여섯 항목은 모두 유의도 .001 이하이다. 그러나 한족은 한국어 배우기와 중국어 배우기가 북경에 비하여 연길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외는 지역 차이가 없다(표 3-12 참조).

조선족만 대상으로 실시한 회귀분석에서도 지역변수는 예체능을 제외하고는 북경 거주자가 연길거주자에 비하여 모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변수로는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가 그리고 모 학력이 대졸이상인 그 미만보다 자녀에게 영어 등 외국어 배우기와 한국어 배우기를 강조하는 정도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체능 키우기도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 강조하는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13 참조).

〈표 3-12〉 자녀민족 및 지역별 자녀양육시 중요도: 4점 평균

단위: 점(명)

구분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t	북경	연길	t
몸을 튼튼히 하기	3.93	3.63	48.2***	3.92	3.86	1.8
기본생활습관 익히기	3.71	3.46	23.2***	3.58	3.66	1.3
숫자와 글자 익히기	3.49	3.23	20.6***	3.44	3.40	0.3
영어 등 외국어 배우기	3.43	3.03	39.6***	3.18	3.18	-
한국어 배우기	3.52	3.03	54.2***	2.20	2.76	23.9***
중국어 배우기	3.57	3.26	27.9***	3.20	3.40	5.0*
예체능 재능 키우기	3.27	3.16	3.3#	3.23	3.12	1.3
(사례수)	(200)	(100)		(199)	(101)	

\*\*\* p&lt; .001, \* p&lt; .05, # p&lt; .1

〈표 3-13〉 조선족 자녀양육시 중요도 영향 요인

구분	몸을 튼튼히 하기	기본생활 습관 익히기	숫자와 글자 익히기	영어 등 외국어 배우기	한국어 배우기	중국어 배우기	예체능 재능 키우기
(상수)	3.63(0.30)***	3.49(0.36)***	3.69(0.40)***	2.30(0.45)***	2.63(0.46)***	3.12(0.42)***	2.56(0.43)***
모취업 (1=취업)	-0.05(0.06)	-0.04(0.07)	-0.07(0.08)	-0.22(0.08)**	-0.24(0.09)**	-0.11(0.08)	-0.04(0.08)
모학력 (1=대학이상)	-0.04(0.06)	0.11(0.07)	-0.01(0.08)	0.23(0.09)**	0.26(0.09)**	0.06(0.08)	0.17(0.08)*
거주지 (1=북경)	0.31(0.06)***	0.24(0.08)**	0.35(0.08)***	0.26(0.09)**	0.41(0.10)***	0.29(0.09)**	0.01(0.09)
가구소득 (로그값)	0.02(0.09)	-0.02(0.10)	-0.12(0.11)	0.19(0.13)	0.11(0.13)	0.05(0.12)	0.14(0.12)
응답자 (1=어머니)	-0.01(0.05)	-0.02(0.06)	-0.02(0.06)	0.08(0.07)	-0.02(0.07)	-0.04(0.06)	0.00(0.07)
수정 R <sup>2</sup>	0.11	0.05	0.06	0.13	0.18	0.07	0.02
(사례수)	(399)	(399)	(399)	(399)	(399)	(399)	(399)

\*\*\* p&lt; .001, \*\* p&lt; .01, \* p&lt; .05

심층면접에서도 많은 부모들이 무엇보다도 자녀 건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아이의 건강이 우선이죠. 이것은 최소한의 요구고. 그 다음의 모든 것은 이 기초상이구요(연길 모4).

어쨌든 저는 아이의 신체, 심리 모두가 건강하면 돼요(연길 모5).

뭐 특별한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애가 즐겁고 건강하면 됩니다(연길 모6, 북경 모3).

예, 고된도 해봤는데 이전에 임신했을 때에, 정작 애를 낳고 키우며 보니까 애도 자주 아프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따보면 앞지 않고 건강하게 그게 그래도 아직은 우선입데다(연길 모1).

일단은 애가 심신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뭐 부모마음이 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연길 모2)

유치원 초기에 애가 자주 감기가 들어서 저는 지금 애한테 요구가 유치원에 가서 즐겁게만 놀란 돼요. 아프지 말고. 이제 적응이 돼요.. 두 번째 학기. 첫 번째 학기는 그냥 가다 말고 가다 말고 그랬거든요. 이제 2살 7개월부터 세살까지. 아무튼 아프지않으면 된다는 기대밖에 없어요(북경 모2).

특정하게 뭐 찌사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건강하게 즐겁게 자라면 됩니다(북경 모7).

조선족 부모들은 자녀가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자녀 장래에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다. 이는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으로 한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확대된 조선족간의 공감대이다.

연길 모2: 예, 물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공부를 했었고, 지금 우리 연변대학을 봐도 그렇고 조선말, 조선글을 잘 쓰는 것도 하나의 우세입니다. 언어를 한 가지 더 장악한다는 게 이따 애들 장래에도 우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조선족 사회에서도 중국어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적 발전이 빠른 속도

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중국에서도 성공의 기회가 높아지고 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네, 애먹은 곡 한어를 잘 배우게 하고 싶습니다. 이땀 크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한어 잘 구사하면 중국내 어디 가서도 밥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연길 모2)

아들 며느리 의향도 나하고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살자면 한어 말을 잘해야겠다고, 아들 며느리 다 한족 학교 안 다녀놓으니까 한족 말을 잘하는 게 아파 제일 소원인 것 같습니다. (연길 조모1)

중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한국어, 조선어를 잘 하기보다 중국어를 잘 해야겠다 그러죠. ... (중략).. 우리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 생각을 하죠. 조선어는 대학교에 가서 배운다든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애기는 지금 한국어를 써요(북경 부1)

예체능은 선천적 소질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모들의 실질적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다.

애더러 피아노거나 무용을 하게 하는데, 양려평처럼 되거나 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주호 체형미거나, 핑경은 여자아이니까, 기질을 배양하는 그런 차원에서 배우게 하는 거죠. (연길 모4)

하아, 저 개인적으로는 애가 체육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아이니까, 우리 가문엔 체육을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애가 이쪽으로 좀 끼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냥 제 바깥이죠, 부모유전인자가 없는데 엔트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연길 모2)

말약 아들이라면 태권도를 시키겠습니다. 현대 여자애니까 뭐 특별하게, 무용이나 하고... (연길 부1)

하나는 서법, 두 가지를 한다면 무조건 서법하나 보내고, 하나는 족구(축

구)나 남자들이 족구나 차야 남자성격이 된단 말입니다. 이딴에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단위에 가서도 운동을 척척 잘해야 어디 단위에 가서 잘 쓰인단 말입니다. (연길 조모1)

#### 4. 민족 정체성

##### 1) 사용 언어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 28.6%, 중국어 23.6%이고 혼용이라는 응답이 47.9%로 약 과반수 정도가 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조선족의 경우, 연길시에 비하여 북경에서 한국어와 중국어를 혼용하거나 중국어를 쓴다는 비율은 높고 한국어를 쓴다는 비율은 낮다. 한국어를 쓴다는 비율이 연길시는 43.7%인데 비하여 북경 거주자는 13.5%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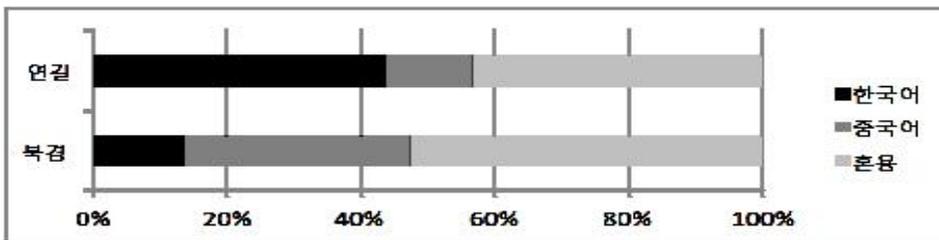
〈표 3-14〉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단위: %(명)

구분		한국어	중국어	혼용	기타	계(사례수)	X <sup>2</sup> (df)	
자녀 민족	조선족	28.6	23.6	47.9	-	100.0(399)	na	
	한족	3.0	95.5	1.0	0.5	100.0(201)		
자녀 민족	조선족	북경	13.5	34.0	52.5	-	100.0(200)	52.2(2)***
		연길	43.7	13.1	43.2	-	100.0(199)	
과 지역	한족	북경	-	97.0	2.0	1.0	100.0(100)	na
		연길	5.9	94.1	-	-	100.0(101)	

\*\*\* p< .001, na는 X<sup>2</sup> 검정 부적절

[그림 3-2] 지역별 조선족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경우 조선족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어 사용할 기회가 많고, 따라서 집안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글쎄요, 지금까지는 뭐 집안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자기민족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깐. 조선말은 잘 하고 있습니다. (연경 모2)

부모의 한국어 사용능력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사례로 볼 수 있었는데, 부모의 한국어 사용능력은 곧 부모가 다닌 학교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니는 학교가 수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 애는 지금 말하기 시작하는데 애 아빠는 어려서부터 한족 학교에 다녔으니깐 한국말은 못 알아듣고 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애하고는 중국말 하거든요. 근데 할러니는 조선말해요. 근데 애가 말 튀어나오는 걸 보면 중국말이 많은 편이에요. (북경 모 1)

아이가 고향에 가 있을 때 동네에 조선족 할러니 할아버지들이 많으니깐 조선말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어 발음이 더 자연스럽고 한국어 발음은 제가 배워주는 주는데 내가 듣기에도 거북하다구요. 저희는 아빠가 조선학교를 안 다녔어요. 한족학교를 다녔어요. 아빠가 조선말은 하는데 글자는 안태요. 발음이 쏠 이상해요.. 그래서 집에서 중국어를 많이 하거든요. (북경모 2)

## 2) 한국 TV 프로그램 시청 등

TV 시청시 자녀에게 한국 관련 프로그램을 보여주는지에 대하여 조선족은 대체로 그러함이 44.1%이고 매우 그러함이 23.6%로 총 67.6%의 응답자가 자녀에게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8%이고 20.3%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한족도 8.0%는 TV 시청시 자녀에게 한국 관련 프로그램을 보여주려는 강한 욕구를 나타냈고, 32.8%는 대체로 그러한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 차이는 조선족과 한족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조선족은 북경 거주자가 연길시 거주자에 비하여 TV 시청시 자녀에게 한국 관련 프로그램을 보여주려는 경향이 낮음을 나타냈다. 자녀에게 한국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여준다는 비율이 북경 61.5%이고 연길시는 73.9%이다. 한족은 자녀에게 한국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여준다는 비율이 북경 30.0%이고 연길시는 51.5%이다.

〈표 3-15〉 TV 시청시 한국 관련 프로그램 시청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럴지 않음	대체로 그럴지 않음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보여주고 싶으나 접하기 어려움	계(사례수)	$\chi^2(df)$	
자녀 민족	조선족	9.8	20.3	44.1	23.6	2.3	100.0(399)	61.1(4)***	
	한족	26.9	23.4	32.8	8.0	9.0	100.0(201)		
자녀 민족 과 지역	조선족	북경	12.5	23.0	36.5	25.0	3.0	100.0(200)	11.1(4)*
		연길	7.0	17.6	51.8	22.1	1.5	100.0(199)	
	한족	북경	35.0	22.0	21.0	9.0	13.0	100.0(100)	17.5(4)**
		연길	18.8	24.8	44.6	6.9	5.0	100.0(101)	

\*\*\*  $p < .001$ , \*\*  $p < .01$ , \*  $p < .05$

특히 연길에서는 많은 가정에 한국 위성을 안장하여 한국 동화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서점에서 한국만화책을 구입하여 보게 하는 것도 보편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부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착각하고 있을 정도로 만화, 동화, TV프로그램 등 한국 문화에 젖어 있다가 성장해 가면서 인식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 3) 한복

민족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한복을 들 수 있다. 중국의 개방정책으로 조선족과 교류가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

서 행사나 명절 때만 입는 특별한 의상의 되어버린 한복을 일상생활 속에서 애용하며 지키고 있다는 점에 놀라워했다. 최근에 평상복으로 한복을 입는 조선족은 많이 줄어들었으나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한복은 여전히 민족적 정체성을 상징한다.

꼭 하나는 언어는 그런데.., 동남 같은 때는 한복은 저희들도 입지않아요. 그러구 그 한복이 작아서 유치원 들어갈 때 한복도 새 걸 해줬어요. 그래서 행사 때마다 입고 조선족이다 이거 조선족 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북경 모2)

#### 4) 자녀 배우자 민족에 대한 태도

조선족 동포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반영한 질문으로 자녀의 배우자 민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에 반드시 조선족을 고집하겠다는 생각은 많이 흐려진 것으로 파악된다.

옛날 세대 애들은 결혼할 때면 조선족이 아니면 안 된다 옛날세대들은 그럴지만 지금 세대들은 약간 틀려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앞으로 윗대가 결혼나이가 되면 그때 민족 관계하지 않고 보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북경 부1)

### 제3절 자녀 양육 관련 태도

제3절에서는 자녀양육 관련 태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자녀양육 관련 태도는 수용-거부 및 자율-통제 태도, 자녀양육관, 자녀양육 정서, 생활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 1. 자녀양육 태도

본 조사에서는 자녀양육태도는 수용과 거부, 통제와 자율이라는 이차원적인 척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3-16〉 자녀민족별 자녀양육 태도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아님	별로 아님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사례수)	평균
자녀와 격의 없이 즐거움 나눔						
조선족	0.3	1.5	61.4	36.8	100.0(399)	3.35
한족	-	3.0	59.7	37.3	100.0(201)	3.34
$X^2(df)/t$			na			0.01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						
조선족	0.3	9.3	55.6	34.8	100.0(399)	3.25
한족	-	5.5	68.7	25.9	100.0(201)	3.20
$X^2(df)/t$			na			0.8
와락 화를 내거나 큰 소리 칩						
조선족	9.8	50.4	33.6	6.3	100.0(399)	2.36
한족	3.0	47.8	40.3	9.0	100.0(201)	2.55
$X^2(df)/t$			11.4(3)			9.0**
잘못된 행동 그냥 넘어가지 않음						
조선족	15.8	35.6	39.8	8.8	100.0(399)	2.42
한족	11.4	47.3	36.8	4.5	100.0(201)	2.34
$X^2(df)/t$			10.1(3)*			1.1
스스로 할 일 하게 하는 편						
조선족	5.3	22.8	51.4	20.6	100.0(399)	2.87
한족	2.0	24.9	63.2	10.0	100.0(201)	2.81
$X^2(df)/t$			15.9(3)**			0.9
부모에 절대 순종할 필요 없음						
조선족	5.5	31.1	49.6	13.8	100.0(399)	2.72
한족	1.5	23.4	63.2	11.9	100.0(201)	2.86
$X^2(df)/t$			12.8(3)**			4.9*
자녀 일 감시, 제한할 필요 있음						
조선족	7.3	31.8	52.9	8.0	100.0(399)	2.62
한족	7.5	46.3	39.8	6.5	100.0(201)	2.45
$X^2(df)/t$			12.8(3)**			6.7*
엄격한 규칙, 규율 지키도록 함						
조선족	4.0	22.8	58.6	14.5	100.0(399)	2.84
한족	4.0	46.8	37.8	11.4	100.0(201)	2.57
$X^2(df)/t$			37.1(3)***			18.6***

\*\*\* p< .001, \*\* p< .01, \* p< .05, na는  $X^2$  검정 부적절

조사 항목은 수용으로 자녀와 격의 없이 지내며 즐거움을 나누는 편이다, 자녀의 필요와 관심을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느껴 본 적

이 있다, 참으려다가 와락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는 때가 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관대하게 봐주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는 편이다는 수용과 거부 태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질문이며, 자녀가 할 일을 자기 스스로 찾아서 하게 하는 편이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녀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켜야할 규칙, 규율을 엄격히 세우고 자녀가 지키도록 한다는 통제와 자율을 측정하려는 질문이다.

먼저 수용을 나타내는 두 문항에서는 조선족과 한족이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거부를 나타내는 두 문항은 각기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참으려다가 와락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는 때가 있다는 항목은 조선족에 비하여 한족이 그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잘못된 행동을 관대하게 봐주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는 편이다는 항목은 조선족이 한족에 비하여 그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표 3-17〉 자녀민족 및 지역별 자녀양육 태도: 4점 평균

단위: 점(명)

구분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t	북경	연길	t
자녀와 격의 없이 즐거움 나눔	3.41	3.29	4.8*	3.31	3.38	0.8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	3.39	3.11	21.0***	3.29	3.12	5.5*
와락 화를 내거나 큰 소리 치	2.50	2.23	14.0***	2.70	2.41	9.3**
잘못된 행동 그냥 넘어가지 않음	2.68	2.15	41.9***	2.50	2.19	9.3**
스스로 할일 하게 하는 편	3.16	2.59	58.3***	2.86	2.76	1.2
부모에 절대 순종할 필요 없음	2.88	2.55	18.9***	2.90	2.81	1.0
자녀 일 감시, 제한할 필요 있음	2.67	2.56	2.1	2.53	2.38	2.3
엄격한 규칙, 규율 지키도록 함 (사례수)	2.90 (200)	2.78 (199)	2.7	2.39 (100)	2.74 (101)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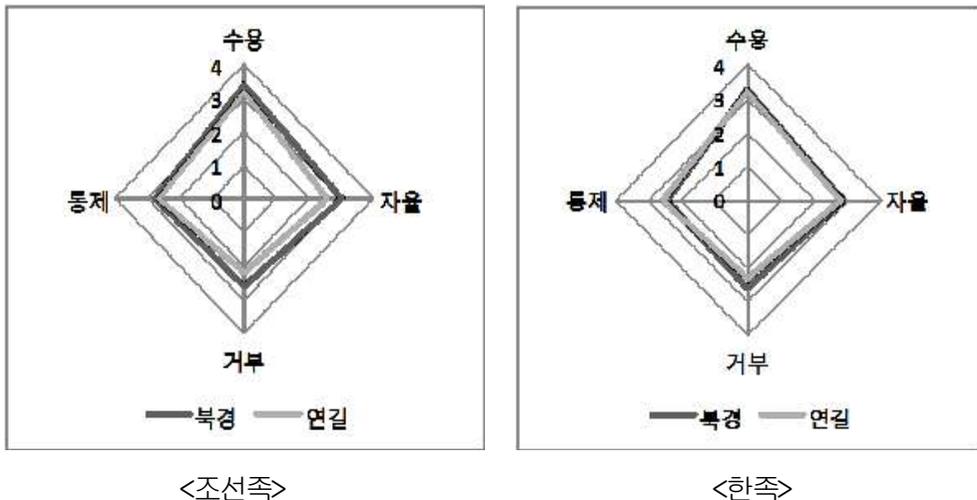
\*\*\*  $p < .001$ , \*\*  $p < .01$ , \*  $p < .05$

다음으로 자율을 나타내는 자녀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게 하는 편이다는 조선족과 한족이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데에는 한

족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한편 통제를 반영한 자녀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켜야할 규칙과 규율을 엄격히 세우고 자녀가 지키도록 한다는 두 항목에서는 모두 한쪽에 비하여 조선족이 그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부모에 절대 순종할 필요는 없다는 자율항목에서는 조선족 보다 한족의 응답률이 다소 높아, 대체로 조선족이 한쪽에 비하여 자녀를 통제하려는 양육태도가 강함을 나타냈다.

이러한 자녀 양육태도의 지역 차이를 보면 조선족은 수용, 거부, 자율 측면에서 연길보다 북경 거주자가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통제를 나타내는 두 가지 항목은 북경에서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높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한족은 거부를 반영한 두 가지 항목은 북경거주자가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통제를 나타내는 지켜야할 규칙, 규율을 엄격히 세우고 자녀가 지키도록 한다는 항목은 연길시에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 자녀민족 및 지역별 자녀양육 태도: 4점 평균



<표 3-18>과 <표 3-19>는 수용과 거부, 자율과 통제 변수로 구분하

여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수용과 거부 태도는 다른 변수를 통제할 경우 자녀와 격의 없이 즐거움 나눔은 지역 차이가 없어졌으나 이외 세 개의 변수는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다.

〈표 3-18〉 자녀민족별 자녀양육 태도 영향 요인: 수용과 거부

구분	자녀와 격의 없이 즐거움 나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	와락 화를 내거나 큰소리침	잘못된 행동 그냥 넘어가지 않음
(상수)	3.14(0.37)***	3.01(0.43)***	2.75(0.52)***	1.57(0.57)**
모취업(1=취업)	-0.06(0.07)	-0.12(0.08)	-0.14(0.10)	-0.09(0.11)
모학력(1=대학이상)	0.10(0.07)	-0.05(0.08)	0.03(0.10)	0.12(0.11)
거주지(1=북경)	0.07(0.08)	0.27(0.09)**	0.28(0.11)**	0.49(0.12)***
가구소득(로그값)	0.02(0.10)	0.03(0.12)	-0.13(0.14)	0.12(0.16)
응답자(1=어머니)	0.11(0.06)*	0.10(0.07)	0.11(0.08)	0.11(0.09)
수정 R <sup>2</sup>	0.02	0.06	0.03	0.12
(사례수)	(399)	(399)	(399)	(399)

\*\*\* p< .001, \*\* p< .01, \* p< .05

〈표 3-19〉 자녀민족별 자녀양육 태도 영향 요인: 자율과 통제

구분	스스로 할 일 하게 하는 편	부모에 절대 순종할 필요 없음	자녀 일 감시, 제한할 필요 있음	엄격한 규칙, 규율 지키도록 함
(상수)	1.53(0.50)**	1.09(0.52)*	2.42(0.53)***	2.38(0.51)***
모취업(1=취업)	-0.16(0.09)#	-0.07(0.10)	0.15(0.10)	0.02(0.09)
모학력(1=대학이상)	0.47(0.10)***	0.16(0.10)	-0.01(0.10)	-0.14(0.10)
거주지(1=북경)	0.32(0.10)**	0.01(0.11)	0.14(0.11)	0.08(0.11)
가구소득(로그값)	0.23(0.14)#	0.42(0.14)**	0.02(0.15)	0.14(0.14)
응답자(1=어머니)	0.07(0.08)	-0.13(0.08)	-0.13(0.08)	-0.09(0.08)
수정 R <sup>2</sup>	0.21	0.08	0.01	0.00
(사례수)	(399)	(399)	(399)	(399)

\*\*\* p< .001, \*\* p< .01, \* p< .05, # p< .1

자율과 통제 변수도 스스로 할 일 하게 하는 편이라는 응답만 북경이 높을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부모에 절대 순종할 필요 없음의 유의성을 사라졌다. 기타 변수들은 스스로 할 일 하게 하는 편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즉, 미취업모, 대학 이상 학력, 북경거주 및 고소득이 자녀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1% 수준이다(표

## 3-19 참조).

연길시 부모 심층면접에서 자유방임형으로 아이를 기른다는 부모도 있었으나 이보다는 비교적 엄하게 키운다는 부모들이 많았다.

자유, 방임형이요, 자유로 성장하게, 우리는 적당한 인도만 해주면 되지요. 어떻게 자라도 괜찮아요, 그냥 적당하게만 이끌어주면, 이밖에 특별하게 뭘 배우도록 강요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연길 모6)

나는 좀 엄합니다. 재는 우리 집안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집 쪽에서 남편이 장손이고 하나뿐, 아이 하나뿐 온 집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굶다고 하나뿐, 나는 좀 엄하게 다스리자고 합니다. (연길 모1)

전 비교적 엄하게 키웁니다. 남자애니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까이 계시니까 애를 좀 많이 어루만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제 쪽에서 더 엄하게 굶지요. (연길 모2)

저는 일반적으로 3,4차 특진 게 있으면 먼저 귀뺨해주고 그대도 고치지 않으면 호되게 꾸짖죠. 그러면 80,90%는 애가 다 기억하고 다시는 범하지 않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별로 크게 꾸짖지는 않아요. (연길 모3)

조부모들도 손자녀를 엄하게 키운다는 응답이 많았다. 조부모들은 손자가 다 귀엽고 잘하든 못하든 다 예쁘지만 혹시라도 잘못 키우면 며느리나 아들한테 잘못했다 말을 들을까봐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처벌을 하는 등 엄한 양육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손자녀 학업 성취에 대한 책임 부담도 크다.

엄격하게 키웁니다. 애를 따듯대호 안 그러고, 여하튼 뺨을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구. 그제 애리, 애비 없으니까 내가 그제 엄하게 키워야겠다, 할머니 애를 키우니까 잘못 키우면 또 며느리나 아들한테 잘못했다 뺨을 들을까봐. 책임감은 더 큼니다. 그래서 어쨌든 애를 유치원에 다니면서도 유치원에서 글을 배우주고 낚보다 더 쥘,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공부도 제일 잘 할

니다. (연길 조모1)

우리로서는 극세 손자래서 굶지말 해도, 뭐 잘하든 못하든 다 고운데, 그  
래도 애들은 어릴 때부터 존엄하게 다스리는 게 낫겠다 해서 우리는 존엄  
하게 키우느라 합니다. (연길 조부1)

## 2. 자녀양육관

중국동포와 한족의 자녀양육관에 대해 다섯 가지 문항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문항은 두 개의 보기를 주고 하나를 고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 1) 육아와 부모 인생의 중요성

먼저 육아와 나의 인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육아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고 싶다'와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  
는 두 문항 중 '육아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고 싶다'가  
조선족은 48.6%, 한족은 60.2%이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희  
생할 수 있다'는 조선족이 51.4%, 한족이 39.8%로 조선족이 한족보다  
더 자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조선족보다  
한족이 개인의 인생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부모가 많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표 3-20 참조).

이러한 응답은 국내거주 중국동포 어머니들이 한국은 물론 중국의  
어머니보다 더 자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연구(서문희 외, 2010)와 한국, 중국, 일본 어머니를 대  
상으로 조사한 이기숙·정미라·김현정(2008)에서는 중국의 어머니보다는  
한국의 어머니들이 아이를 위해 기꺼이 희생한다는 의견이 높았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표 3-20〉 육아와 나의 인생의 중요성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육아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고 싶다	48.6	60.2	48.5	48.7	73.0	47.5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희생할 수 있다	51.4	39.8	51.5	51.3	27.0	5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7.2(1)**		0.002(1)		13.6(1)***	

\*\*\* p&lt; .001, \*\* p&lt; .01

지역별로 보면 조선족은 지역 차이가 없이 공통되는 가치관을 보였으나, 한족은 북경 거주 부모들이 육아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고 싶다는 응답비율이 연길시보다 현저하게 높아서 지역별 차이가 큼을 들어냈다.

여성의 취업이 보편화되어 있는 중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직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아무리 애를 중시한다 하더라도 여자들은 자기 직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애를 키우면서 얻는 보람과 자기 일을 하면서 얻는 보람은 다르죠. 물론 경제적인 수입도 문제겠지만, 그걸 떠나서 여자가 자기의 직장이 없다면 사회적으로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피곤하고 힘든지라 거기서 얻는 성취감이라든가 충실감, 그걸 떠나서 평범한 업자라, 아줌마라 산다는 건, 되게 허무하고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연길 모2)

두 개 다 하고 싶죠. 애를 키우는 건 일정한 시간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내 생각에도 나의 사업이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연길 모1)

어쨌든 부모가 옆에 있는 게 좋지만, 아이들은 그래도 자기 아빠 업자가 사회에서 일정한 위치가 있는 건... (연길 모3)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게 스스로도 충실감을 느끼고 또한 은연중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죠. (연길 모4)

## 2) 어머니 직접 양육의 중요성

엄마의 직접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3세까지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조선족 48.1%, 한족이 55.7%로 한족이 조금 높았다.

국내 중국동포는 2010년 연구에서는 '3세까지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85.8%로 어린 시절 엄마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이는 한·중·일 비교 연구에서 어린 시절 엄마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한국 어머니 74.6%, 일본 어머니 63.4%, 중국의 어머니는 67.9%로 나타난 것(이기숙·정미라·김현정, 2008)과도 비교해 보면 좀 다른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역 차이는 조선족은 연길에서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응답비율이 유의하게 높았고, 한족은 이러한 응답이 북경에서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표 3-21〉 엄마의 직접 양육의 중요성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좋다	48.1	55.7	41.5	54.8	59.0	52.5
엄마가 곁에 없더라도 애정을 갖고 키우면 상관없다	51.9	44.3	58.5	45.2	41.0	4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3.1(1) <sup>#</sup>		7.0(1) <sup>**</sup>		0.9(1)	

\*\* p<. 01, # p<. 1

## 3) 훈육 방법

훈육방법에 대해서 '버릇없이 굴 때에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말로 타이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조선족 74.7%, 한족이 69.2%로 조선족이 약간 더 높았다. 조선족과 한족 모두에게 훈육에 있어서 무조건 매질을 하는 것보다 말로 타이르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있음을 더 넓게 퍼져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매질을 해서라도 야단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훈육에 있어서 무조건 말로 타이르는 것보다 체벌을 통해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도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2010년 육아정책연구소의 국내 중국 동포 조사에서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말로 타이름'이 64.2%로 더 많았으나, '매질을 해서라도 야단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35.8%로 나타났다.

〈표 3-22〉 자녀 훈육 방법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매질을 해서라도 야단치는 것이 좋다	25.3	30.8	21.5	29.1	29.0	32.7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말로 타이르는 것이 좋다	74.7	69.2	78.5	70.9	71.0	6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2.1(1)		3.1(1) <sup>#</sup>		0.3(1)	

# p&lt; .1

지역별로는 조선족은 연길시에서는 약 30%가 매질을 해서라도 야단치는 것이 좋다고 하여 북경 거주자보다 체벌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다. 한족도 북경보다는 연길시 거주자가 체벌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한족의 경우 지역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안 때린다면 거깃맡이쥬. 가꿨 때를 대기도 합니다. (연길 모2)

엉덩이를 때리쥬. (연길 모3)

그러기도 하지요. 지금 애들은 모두 총명하여 부모가 좋아 안하는 걸 알거든요. 맞을 안 들을 때는 때리기도 하구요. (연길 부2)

#### 4) 아이 능력 개발

아이능력 개발에 대해서, ‘아이 능력은 자라는 환경에 따라 향상 된다’는 의견이 조선족 83.7%, 한족 84.6%로 상당수의 부모들이 후천적으로 아이의 능력이 개발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2010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나타난 국내 조선족의 92.5%의 부모들이 후천적으로 아이의 능력이 개발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나, 한국, 중국, 일본의 어머니들도 모두 거의 90% 정도가 아이 능력이 자라는 환경에 따라 향상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연구(이기숙·정미라·김현정, 2008) 결과와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응답은 지역 차이도 거의 없다.

〈표 3-23〉 아이의 능력 개발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아이 능력은 유전에 의해 많은 부분 결정된다	16.3	15.4	16.5	16.1	16.0	14.9
아이 능력은 후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83.7	84.6	83.5	83.9	84.0	85.1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chi^2(df)$	0.1(1)		0.01(1)		0.1(1)	

이러한 신념은 자녀교육에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 중국동포의 배경적 신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일부 예술과 같은 특정한 분야는 선천적인 소질이 중요하다

는 데도 동의하고 있다.

예술이라든가, 조선족학부모들은 자기 집 아이가 그 방면에 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방면으로 배우게 하고, 만약 내가 무용선생이라면 배우지 말라고 권장하겠어요. 어린애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유전인자라든가 두루 보면 그 방면에 적합하지 않는데, 부모들은 억지로 배우게 하고, 그리고 조선족들은 배우는 게 많아요. (연길 모4)

하아, 저 개인적으로는 애가 체육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아이니까, 우리 가문엔 체육을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애가 이쪽으로 쫓 끼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냥 제 바깥이죠, 부모유전인자가 없는데 앤들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연길 모2)

#### 5) 집단 대 개인 중심의 가치

집단 대 개인 중심의 가치에 대한 항목 중 ‘부모와 어른에 대한 존경심, 가족에의 배려와 헌신이 중요하다’는 조선족 51.6%, 한족 50.7%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기 일의 성취가 중요하다는 각각 48.4%, 49.3%로 사실상 의견이 양분되면서 민족간의 차이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3-24 참조).

〈표 3-24〉 집단 대 개인 중심의 가치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부모·어른에 대한 존경, 가족 배려, 헌신이 중요하다	51.6	50.7	40.5	62.8	38.0	63.4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기 일의 성취가 중요하다	48.4	49.3	59.5	37.2	62.0	3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0.04(1)		19.9(1)***		12.9(1)***	

\*\*\* p < .001

지역별로는 조선족과 한족 모두 연결시 거주자는 부모와 어른에 대한 존경심, 가족에의 배려와 헌신이 중요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고, 북경시 거주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기 일의 성취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

그렇죠, 장래도 좋고 부모에 대한 보답, 사회에 대한 보답을 포함해서, 어쨌든 저의 기대치는 아주 높습니다. (연길 모3)

응답...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헌도하고... (연길 모3)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못했지만, 최소한 부모를 존경하는 교육은 시켜야죠. 감사해 하는 마음. (연길 부2)

#### 6) 자녀 진로에 대한 의견

자녀 진로에 대한 의견은 '자녀가 흥미 있어 하는 것을 찾아 자질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에 대해 조선족 81.2%, 한족 73.1%로 대다수 응답하여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 지도하여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비율보다는 절대적으로 높았다. 한족보다 조선족이 자녀가 흥미 있어 하는 것을 찾아 자질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다.

〈표 3-25〉 자녀 진로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 지도하여 명문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8.8	26.9	16.5	21.1	21.0	32.7
자녀가 흥미 있어 하는 것을 찾아 자질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81.2	73.1	83.5	78.9	79.0	6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5.2(1)*		1.4(1)		3.5(1)#	

\*  $p < .05$ , #  $p < .1$

지역별로는 조선족과 한족 모두 북경보다는 연길시에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 지도하여 명문대에 진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자녀가 흥미 있어 하는 것을 찾아 자질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낮다.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에서 자녀의 흥미를 반영한 교육을 중요시하는 경향이다(표 3-25 참조).

네. 생각은 꼭 있지요. 그만큼 심혈을 부었으니까... 애를 영재로 키우고 싶죠(연길 모3).

자녀에 대한 성취 기대가 높아 자녀가 어릴 때에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다 가르쳐 자연스럽게 자녀의 장래 기회를 본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냥 각 방면으로 이끌다가 어떤 경향성적인 인소가 보이면 그쪽으로 발전하게 하죠. (연길 부2)

저도 건강하게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기대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집착하고 싶지 않아요. 배워 줄 수 있는 건 기회만 되면 배워주고 피아노를 배워준다거나 나이가 되면 꼭 해주고는 싶어요. 근데 아이가 싫다고 하면 교양으로 배워주고 싶지 나중에 꼭 어떻게 기대하지 않고 배우다가 그 방면에 소질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가고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북경 모2)

기대치가 높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죠. 인구는 높지요. 지금은 주로 늦게 하고 공부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연길 모4).

### 7) 자녀 양육 책임

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에 대한 생각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와 자녀 양육에의 역할과 책임은 온전히 부모의 몫이 다는 두 보기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두 응답 비율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의견이

양분되는 경향을 보였다. 민족적으로는 자녀 양육에의 역할과 책임은 온전히 부모의 몫이라는 응답이 한족이 50.7%, 조선족 53.1%로 조선족에서 다소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지역별로는 한족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조선족은 북경 거주자가 연길시 거주자에 비하여 부모 자녀양육 책임을 국가와 나누어야 한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높았다(표 3-26 참조).

〈표 3-26〉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식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부모 자녀양육 책임을 국가와 나눔	46.9	49.3	61.0	32.7	50.0	48.5
자녀 양육 책임은 부모의 몫임	53.1	50.7	39.0	67.3	50.0	5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0.3(1)		32.2(1)***		0.04(1)	

\*\*\* p < .001

중국은 자녀양육에 대한 현금 지원은 거의 없다. 지역이나 사업장에 따라 일부 수당이 있으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저기는 공무원이고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게 국가가 주는 거예요 한 국 돈 8000원정도인가 안되지요. 우유 값도 안 되지요. 싱가포르를 우유 한통에 60원인데 2원이니까. 학교에 계획생육사무실이 있어요. 우리도 그기에 딸하거든은 좀 볼려줄 수 없는가 그러려는 아 이렇게 위생국에서 주니까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안 된다고. 400원 500원 600원 그것도 기관 단위마다 달라요 (북경 모3)

개방 개혁과 더불어 공공 탁아소의 해체를 경험한 부모들은 특히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하여 요구가 강하게 제기하였다. 부모들은 유아교육이 아직 의무교육이 아니기에 유치원 단계의 교육은 방임상태나

다름없다고 평가하고, 국가가 교육차원에서 유아원 교육을 중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였다.

제 생각엔 국립유치원을 더 많이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공립유치원이 너무 적으니깐 경쟁압력이 너무 크죠. 유치원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길 모6, 연길 조부1)

우리 00대학유치원을 보세요. 그 좁은 공간에 애들은 넘치고. 명색이 대학교 유치원인데 그 시설이랑 보면 시내의 6.1유치원이거나 새싹유치원에 비7하면 비교도 안 됩니다. 유아교육은 학부모의 차원을 넘어 전 사회가 중시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냥 각자 마음대로입니다. (연길 모2)

### 3. 자녀 양육 관련 정서

다섯 가지 문항으로 자녀양육 시 느끼는 조선족과 한족 부모의 자녀양육 관련 정서를 조사하였다.

먼저, 먼저 긍정적 정서 두 가지를 보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라는 항목에 약간 그러함과 매우 그러함이 조선족 88.2%, 한족 93.6%로 한족이 약간 높았지만 모두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대다수가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해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이를 키우면서 내 자신도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의 항목에는 조선족 77.7%, 한족 87.5%가 약간 그러함과 매우 그러함에 응답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긍정적 응답이 높은 가운데 조선족보다는 한족이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정서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육아정책연구소 2010년 국내 조선족 조사의 응답 결과 ‘자신도 성장’한다는 정서 90%, ‘행복하다’는 정서 95%에 비하면 낮은 응답이다.

부정적 정서 세 문항에 대해서 ‘아이 양육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럽다’라는 항목에는 별로 그렇지 않음과 전혀 그렇지 않음이 조선족 53.8%, 한족 46.1%이고, ‘아이를 키우면서 참고만 사는 것 같다’

는 그렇지 않다는 쪽이 조선족이 70.6, 한족이 62.1%로 조선족이 조금 더 높았다. ‘아이가 장래에 잘 성장할지 걱정 된다’는 항목에 조선족 63.7%, 한족 61.7%가 그렇다는 쪽으로 응답하여 대다수가 자녀 양육의 혼란을 겪으며 아이 미래를 걱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족간 차이는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럽다는 응답이 조선족이 더 높아서 상대적으로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의 어려움을 드러내었다 (표 3-27 참조).

〈표 3-27〉 자녀민족별 자녀양육 정서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사례수)	평균
아이를 키우면서 내 자신도 성장						
조선족	2.8	19.5	45.6	32.1	100.0(399)	3.07
한족	0.5	11.9	50.7	36.8	100.0(201)	3.24
$X^2(df)/t$		9.6(3)*				6.7*
아이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						
조선족	2.0	9.8	44.1	44.1	100.0(399)	3.30
한족	0.5	6.0	44.8	48.8	100.0(201)	3.42
$X^2(df)/t$		4.9(3)				3.6#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						
조선족	15.5	38.3	37.1	9.0	100.0(399)	2.40
한족	26.4	35.8	26.4	11.4	100.0(201)	2.23
$X^2(df)/t$		13.8(3)**				4.7*
아이 키우며 참고 사는 것 같음						
조선족	23.3	37.3	28.6	10.8	100.0(399)	2.27
한족	30.8	31.3	30.3	7.5	100.0(201)	2.14
$X^2(df)/t$		6.0(3)				2.3
아이 장래 성장이 걱정						
조선족	13.0	23.3	35.6	28.1	100.0(399)	2.79
한족	15.9	22.4	40.3	21.4	100.0(201)	2.67
$X^2(df)/t$		4.0(3)				1.8

\*\* p&lt;.01, \* p&lt;.05, # p&lt;.1

<표 3-28>는 양육 관련 정서에 대한 지역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이를 보면 긍정적 정서 중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는 문항

이 한족과 조선족 모두 북경보다는 연길시 거주자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정적 정서는 조선족은 세 문항이 모두 연길시보다는 북경에서 높게 나타나서 일관성 있게 연길지역의 자녀양육 정서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긍정적 정서 응답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에 한족은 자녀양육에 대한 혼란과 참고 산다는 응답은 북경에서 높았으나 아이가 장래에 잘 성장할 지 걱정된다는 응답은 연길시에서 더 높게 나타나서 응답의 일관성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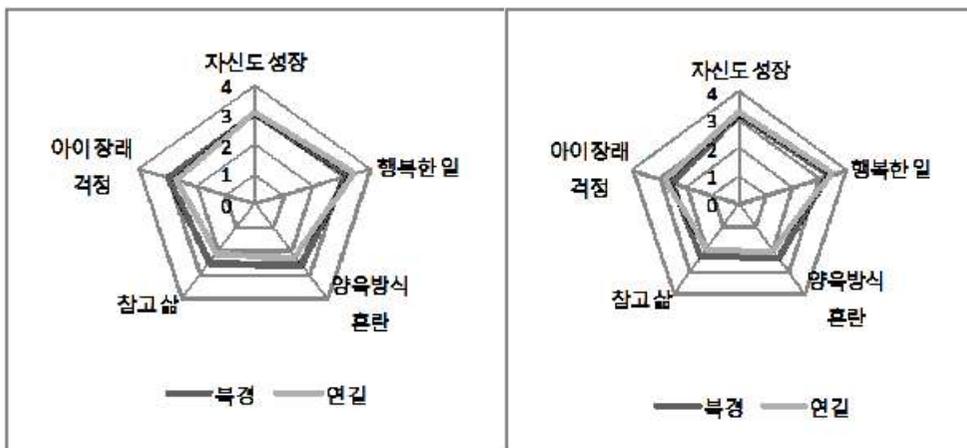
〈표 3-28〉 자녀민족 및 지역별 자녀양육 정서: 4점 평균

단위: 점(명)

구분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t	북경	연길	t
아이를 키우면서 내 자신도 성장	3.07	3.08	0.02	3.22	3.26	0.2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	3.20	3.41	9.1**	3.34	3.50	3.1#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	2.58	2.21	19.4***	2.38	2.08	4.9*
아이를 키우면서 참고만 사는 것 같음	2.47	2.07	18.4***	2.31	1.98	6.3*
아이 장래 성장이 걱정 (사례수)	2.93 (200)	2.65 (199)	7.8**	2.55 (100)	2.79 (101)	3.1#

\*\*\* p< .001, \*\* p< .01, \* p< .05, # p< .1

[그림 3-4] 자녀민족과 지역별 자녀양육 정서: 4점 평균



< 조선족 >

< 한족 >

다음 <표 3-29>는 회귀분석 결과로 앞의 <표 3-28>와 비교하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는 연결이 북경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고, 아이 장래 성장이 걱정은 북경이 연결보다 점수가 높고, 이외 두 개 항목은 유의도가 사라졌다. 즉, 대도시 거주자의 정서가 더 불안정함을 나타낸 것이다. 응답자 특성으로는 고학력자가 아이를 키우면서 내 자신도 성장한다는데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양육에 대한 혼란과 아이를 키우면서 참고만 사는 것 같다는 부정적 정서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3-29> 자녀민족 및 지역별 자녀양육 정서 영향 요인

구분	아이를 키우면서 내 자신도 성장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	아이를 키우면서 참고만 사는 것 같음	아이 장래 성장이 걱정
(상수)	2.47(0.56)***	3.36(0.52)***	0.50(0.59)	0.83(0.64)	3.31(0.70)***
모취업(1=취업)	-0.14(0.10)	-0.14(0.10)	-0.01(0.11)	-0.15(0.12)	-0.06(0.13)
모학력(1=대학이상)	0.27(0.11)*	0.33(0.10)**	-0.03(0.11)	0.17(0.12)	0.13(0.13)
거주지(1=북경)	-0.13(0.12)	-0.28(0.11)**	0.12(0.12)	0.19(0.13)	0.42(0.15)**
가구소득(로그값)	0.14(0.16)	-0.01(0.14)	0.48(0.16)**	0.34(0.18)#	-0.20(0.19)
응답자(1=어머니)	0.04(0.09)	-0.02(0.08)	-0.04(0.09)	-0.03(0.10)	-0.06(0.11)
수정 R <sup>2</sup>	0.02	0.05	0.06	0.06	0.02
(사례수)	(399)	(399)	(399)	(399)	(399)

\*\*\* p< .001, \*\* p< .01, \* p< .05, # p< .1

심층면접에서도 응답자의 반응은 자녀 양육에 대한 즐거움 등 긍정적 정서와 제대로 해 주지 못하는 데에 대한 우려를 모두 나타내었다.

제 생각엔 애한테서 얻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애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은요. 저는 낳아다 애하고 그대요, 만약 네가 없다면 업가는 어찌할까? 애 아빠는 거의 저녁에 집에 안 계시죠. 출장 아니면 사업 때문에. 즐거운 시간이 더 많습니다. (연길모 3)

특히 수용-거부, 자율-통제와 같은 자녀 양육방식에서 혼란을 표명하였다.

근세 애를 잘 해주고 싶고 이끌어주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목할 때엔 막 엄하게 하고보면 나절르도 내 무조건 엄하다하여 애를 이끄는 게 같지 않달 맞입니다. 그래 이방면에서 내가 차한 게 알신달 맞입니다. (연길 모1)

어떤 때는 쫌 엄하게 꾸짖자 하다가도 애가 웅기랄 하면 업라도 없지 측은한 생각이 들어 결국 별로 꾸짖지 못하고 맞니다. 그래도 애가 별로 맞성을 일으키는 편이 아니어서... (연길 부1)

그 애 요구를 들어박서 응당 들어쳐야 할 것은 들어주고 들어주지 말아야 할 것은 쫌 삼가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연길 조부1)

#### 4. 생활 및 자녀양육에 대한 만족도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약간 그러함과 그러함의 합이 조선족 94.7%, 한족 72.5%, 현재 자녀 성장모습에 대한 만족 비율도 조선족 96.2%, 한족 96.0%로 전체적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민족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3-30 참조).

〈표 3-30〉 자녀민족별 생활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명)

구분	매우 불만족	별로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계(사례수)	평균
생활 만족도						
조선족	1.3	4.0	74.9	19.8	100.0(399)	3.13
한족	0.5	7.0	74.6	17.9	100.0(201)	3.10
$X^2(df)/t$			na			0.6
자녀 성장모습 만족도						
조선족	0.3	3.5	65.9	30.3	100.0(399)	3.26
한족	1.5	2.5	65.7	30.3	100.0(201)	3.25
$X^2(df)/t$			na			0.1

na는  $X^2$  검정 부적절

2010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에서 한국 내 조선족 생활 만족도는 약간 만족과 매우 만족이 69% 정도이었고, 자녀성장에 대해서는 90% 정도가 만족하는 쪽으로 나타난 결과를 본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생활 만족도와 자녀성장 만족도 모두 중국 조선족이 국내 조선족이 높은 경향이다. 특히 생활만족의 차이가 크다.

조선족은 현재 생활 만족도와 자녀 성장 만족도 모두 모습 북경과 연길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족은 자녀 성장모습에 대한 만족도가 북경에서 연길시보다 좀 높은 경향을 보였다(표 3-31 참조).

〈표 3-31〉 자녀민족 및 지역별 생활과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4점 평균

단위: 점(명)

구분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t	북경	연길	t
생활에 대한 만족도	3.14	3.13	0.01	3.09	3.11	0.1
자녀 성장모습 만족도 (사례수)	3.30 (200)	3.23 (199)	1.5	3.32 (100)	3.18 (101)	3.1 <sup>#</sup>

# p < .1

〈표 3-32〉 조선족 생활 및 자녀양육에 대한 만족도 영향 요인

구분	생활 만족도		자녀 성장모습 만족도	
	B(표준오차)	$\beta$	B(표준오차)	$\beta$
(상수)	2.29(0.37) <sup>***</sup>	-	2.96(0.38) <sup>***</sup>	-
모취업(1=취업)	0.18(0.07) <sup>*</sup>	0.14	0.13(0.07) <sup>#</sup>	0.10
모학력(1=대학 이상)	-0.03(0.07)	-0.03	-0.09(0.07)	-0.07
거주지(1=북경)	-0.08(0.08)	-0.07	0.06(0.08)	0.06
가구소득(로그값)	0.19(0.10) <sup>#</sup>	0.15	0.05(0.11)	0.04
응답자(1=어머니)	0.01(0.06)	0.01	0.06(0.06)	0.05
수정 R <sup>2</sup> (사례수)	0.02 (399)		0.01 (399)	

\*\*\* p < .001, \* p < .05, # p < .1

<표 3-32>는 회귀분석으로 조선족을 선별하여 생활 및 자녀양육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조사대상자 특성 요인을 파악한 것으로 소득수준과 모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의미있는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활만족도는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유의하게 높고, 소득 수준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자녀 성장만족도도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 제4절 소결

한자녀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중국의 자녀 양육은 대부분이 부모 책임으로, 국가의 지원은 생육보험에 의한 출산휴가(직)과 일부 직장육아시설에 의한 지원으로 미비한 수준이다. 그러나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나 남편의 양육참여와 같은 가족지원 체계는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양육현황을 살펴보면, 모 취업률이 높음에도 자녀양육의 주담당자는 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한족의 경우가 조선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그러했다. 조선족 내에서는 연길에 비해 북경거주 조선족 부모의 조부모지원 이용이 더 많고 모의 주 양육 비율이 다소 낮았다. 남편의 양육참여는 북경거주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는 한족도 마찬가지여서, 북경 남성의 일하는 시간과 강도와 연관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부부간 성역할 태도 및 양육관련 가치관은 전반적으로 근현대적·전통적 견해가 공존한 가운데에서도 한족에 비해 조선족이, 연길에 비해 북경이, 그리하여 북경의 조선족이 좀 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성역할구분의 가치관을 드러냈다. 여성 응답자와 취업모 가정에서 돌봄 노동에 대한 전통적 이분법적 성 역할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부분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적 자녀양육 역할수행이 더 많은 가치를 두었다.

자녀양육태도에서도 대체로 한족보다 조선족 부모의 통제성이 더 강했으며, 북경 조선족 부모가 연길에 비해 수용과 거부, 자율의 측면에서 그 정도가 높아서, 대도시에서 태도가 다양하고 강하게 형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미취업모, 대졸이상 학력, 북경 거주 및 고소득일수록 자녀 스스로 하도록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관에 있어서는 부모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항목에서 한족이 다소 많은 의견을 보였으나, 대체로 어머니에 의한 양육, 체벌을 통한 훈육 방식, 부모와 가족에의 헌신 등의 항목에서 한족이 조선족이 찬성이 많았는데, 조선족은 북정보다는 연길에서 찬성비율이 높았다. 한편 자녀양육시 행복감과 성장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는 한족이 더 많은 반면, 혼란스럽다는 부정적 정서는 조선족이, 그 중에서도 북경 조선족의 경우가 더 많아 소수민족으로서의 양육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학력과 소득의 사회경제적 지표에서 상위를 나타내는 북경 조선족이 양육 현황 및 자녀가치관, 양육방식에서 연길 조선족에 비해 일면 전통적인 성향을 드러냈으며, 자녀양육에 있어서는 훈육적이며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북경 조선족은 연길 조선족 부모에 비해 체벌사용 선호 비율이 낮고 자녀에게 자율성 허용 경향이 높으며, 가정내 중국어 사용비율이 높고, 자녀양육의 국가책무성 의견을 갖는 등, 연길시와는 다른 비전통적인 성향의 응답도 높아, 북경 조선족이 전통적 양육방식과 가치관을 가지면서도 구체적 양육방식에서 근대적인 탄력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조선족 사회와의 동질성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조선족이라는 비율은 북경이 13.5%, 연길이 43%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조선족내 지역간 차이는 사실상 학력과 직업, 소득에 기인한 중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격차이기도 하다. 즉, 조선족 내에 과거처럼 조선족으로서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힘과 중국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중국사회 속으로 들어가려는 추세의 두 가지 힘이 모두 작용하고 있음이다. 이는 중국 동포사회가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향후의 중국동포의 모습은 현재와는 많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경 조

선족은 중국의 주류 사회로의 편입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다르게는 민족적 정체성이 종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형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 제4장 육아지원기관 관련 제도 및 이용 실태

### 제1절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제도 및 정책

#### 1. 탁아소, 유치원 발전 개요<sup>7)</sup>

중국은 진본적인 유아교육 관계자들에 의해 설립된 민영 형태의 탁아반, 유아반들을 1945년 해방초기 여성노동력의 해방으로 유아교육사업발전을 더욱 촉진시켜 탁아소와 유치원을 발전시켰다. 1950년대에는 '유아의 심신발달'과 '부녀자의 노동력'이란 두 축을 목적으로 유아교육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주로 영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탁아소가 유치원과 함께 문서에 병기되고, 중요하게 다뤄져왔다. 1952년 3월 18일에 반포한 「유치원잠행규정초안」에 의하면 중국의 유아교육의 임무는 “신민주주의 교육방침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며 그들의 심신이 소학교 들어가기 전에 건전하게 발육하게 하며 동시에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부담을 경감시켜 어머니들이 정치생활, 생산노동, 문화교육활동 등에 참가하게 해야한다”이다. 이어서 1955년 1월 중앙 교

---

7. 탁아소·유치원 발전 개요는 2010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 협동연구 보고서(서문희 외, “중국 동포 자녀양육 지원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일부를 요약함.

육부에서 발표한 「공장, 광산, 기업에서 자체로 중소학과 유치원을 설립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에 근거하여 1956년 2월 23일 교육부, 위생부, 내무부에서 발표한 '연합통지'에는 “수요와 가능한 조건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탁아소와 유치원 등을 발전시키며……교육행정부문에서 가능한 조건에서 일부 유치원을 꾸리어 시범작용을 하라”고 지시하면서 동시에 “탁아소, 유치원을 가능한 다종다양한 방법으로 꾸려서 반드시 전일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리화, 2009).

이러한 기조는 사회주의 개조시기(1949년 10월~1956년 8월)와 사회주의 전면건설시기(1956년 9월~1966년 4월)에 지속된다. 그러나 1966년 5월부터 1976년 9월까지 문화대혁명시기에는 유아교육사업도 다른 교육사업과 마찬가지로 퇴보하는 시련을 겪게 된다. 그러다가 1978년 말 개혁개방의 열기 속에서 유아교육은 또 다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개혁개방시기에 촉발된 유아교육사업은 이전의 사업과는 크게 달랐다.

개방, 개혁에 따른 도시와 농촌 사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개체(민영)유치원의 설립과 발전을 촉진하였고 산아제한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조기인지개발(유아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조기교육 열풍이 일어나면서 탁아소란 물리적 공간과 단어가 1980년대 일부 정책문서에서 잠깐 등장할 뿐, 점차 사라지게 된다. 사회가 개방화되면서 직장을 중심으로 무상으로 영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탁아소는 서서히 사라지고 유아교육은 3세부터 취학전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으로 한정하는 개념으로 변화, 고착화 되어갔다. 유아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수요가 커지면서 유치원은 계속 증가하고 그 운영여건은 점차 개선되면서 교육의 질도 향상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유아교육사업은 교육행정부문과 사회민족교육 체계의 변화로 빠르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10년 중장기 교육발전으로 이어진다.

## 2. 중장기 교육발전과 유아교육 정책<sup>8</sup>.

### 1) 배경

중국 3~6세 아이들의 총 등록률은 2009년에 50.9% 수준으로 낮다. 중국의 경제 개혁 이후 20년 이상동안 공공작업장(public working units)에서 운영되던 유아교육 프로그램들이 없어지거나 다른 프로그램들에 통합되었다. 그 대신에 민간 서비스는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되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공공유아서비스의 비율은 60%에서 40%로 감소되었으며 민간유아서비스 비율은 40%에서 60%로 증가되었다(Liu, 2010a).

그러나 민간 공급자를 위한 질 관리체계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유아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은, 중국 교육법에 따르면,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정부는 이러한 책임감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고, 유아에 대한 투자도 매우 낮아서 과거 10년 동안 중국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교육 투자의 1.24~1.44%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Liu, 2010b). 특히 도농의 차이가 커서 도시의 등록률이 99%라면 시골의 등록 비율은 10%에 불과하였고(Zhou, 2009), 교사의 질, 교사대 아동 비율, 설비는 시골이 도시보다 훨씬 더 열악하였다(Zhou, 2008). 그 결과 중국 서부지역 아이들의 인지적인 발달 점수는 동부지역의 아이들보다 훨씬 낮았다.

2008년 3월, 중국 인민 정치자문위원회(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CPPCC)는 중요한 국가 전략을 제안하였다(Xu, Zhang, Wu, & Zhao, 2010). 즉 인간자원으로 나라를 튼튼히 하

---

8. 중국 최근 유아교육 정책은 Zhou, X. (2011).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Development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5(1), 29-39.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며, 우선순위를 교육 발전에 두고 중장기 교육 개혁 발전(2010-2020)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11개 주제를 세우고 패널을 구성하여 제안을 받고 이를 검토하여 국가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계획(the Plan)을 작성하였다.

2010년 7월에 발표된 청사진인 국가계획(the Plan)은 서문, 4개 분야, 실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 활동의 제안된 정책은 “우선시되는 발전, 교육하는 사람, 개혁과 혁신, 발전되는 평등, 향상되는 질” 이다. 국가계획에는 구체적인 목표로 보편화된 취학전 교육, 9년의 의무 교육 향상, 고등학교 등록 비율 90%, 고등교육 등록 비율을 40% 증가 등이다.

국가계획 추진을 위하여 교육 기금 증가, 국가 회계에서 교육 비용 증가 등으로 교유 투자를 2010년까지 GDP의 4%까지 증가하기로 약속하였다(Xu, Zhang, Wu, & Zhao, 2010).

## 2) 중장기 유아교육 정책 및 계획

### (1) 국가 계획에서 구체화된 유아교육 목표

국가계획(the Plan)에서 취학전 교육 목표는 <표 IV-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아원 재원아 수를 늘리고 등록률을 높이는 것이다. 1년간 등록률은 2009년 74%에서 2020년 9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2년, 3년 등록률도 각각 2009년 65%에서 80%, 50.9%에서 70%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10년 동안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과 과제정책 방향을 동 계획 제3장에서 3개의 조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제5조에서는 3-6세 아동을 위한 유아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유아교육이 어린 아이들의 건강, 습관 형성과 지적 발달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발달 원리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며, 체계적인 교수방법을 사용하고, 아이들이 건강하

고 행복하게 발달할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다.

〈표 4-1〉 중국 중장기 유아 교육 및 교사 양성 목표

사항	단위	2009	2010	2020
<b>유아원 이용</b>				
유아원 재원아수	만명	2,658	3,400	4,000
유아원 일년 프로그램 등록률(5세)	%	74.0	85.0	95.0
유아원 이년 프로그램 등록률(4-5세)	%	65.0	70.0	80.0
유아원 삼년 프로그램 등록률(3-6세)	%	50.9	60.0	70.0
<b>교사양성</b>				
취학전 교육 인재 총수	만명	125	176 (2012)	472
책임교사수		99	135	300

자료: 國家中長期教育改革和發展規劃綱要 (2010-2020年)  
全國教育人才發展中長期規劃 (2010-2020年)  
<http://www.moe.edu.cn>

제6조에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도시나 시내 발전 계획에 유아교육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등 유아교육 서비스의 투자 수준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공공 민간 등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그 비용을 공유해야 한다. 저소득층 가족에게는 경제적 지원이 제공될 것이다. 프로그램 기준과 교사 자격 요건들도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교사 자질과 전반적인 교직원의 자질도 전문적인 발전에 의해서 강화되어야 하고, 교사의 급여, 지위와 대우는 법에 의해서 보장될 필요가 있다. 교육 행정관리자들은 유아교육 서비스를 위한 총체적인 관리와 안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각 분야에서 관련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

제7조는 농촌에서의 유아교육 제공의 강화로,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노력을 제안한다. 특별히, 유아교육은 부모들이 도시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집에 남겨두고 떠난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며, 오래된 건물, 기존 건물의 확장, 새로운 학교 설립 등의 개혁과 같은 다양한 전략들이 서비스 확장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2) 유아교육을 위한 정부 문서

중장기 국가계획(the plan) 발표 몇 달 뒤인 2010년 11월에 중국의회(China state Council)는 최근 유아교육 발달에 대한 제목으로 Document 41# 를 발간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유아교육의 발달에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시되었다.

(1) 유아교육의 발전을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로 자리매김하였고, (2) 유아교육자원을 공공, 민간을 포함하고, 이주노동자, 농촌 등 취약지역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자금 제공을 언급하였고, (3) 교사 자질의 강화, (4) 유아교육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수준 증가, (5) 유아교육 프로그램 적용과 자격 체계(licensing system)에 대한 관리 강화, (6) 유아 프로그램의 보호 강화, (7) 유아 프로그램의 비용 관리와 규제, (8) 아이들의 건강 발달을 향상하기 위한 특별한 보호와 교육 적용, (9) 노동 구조 향상과 조직적인 리더십 강화를 담고 있으며, 그 실행으로 (10) 3년 활동 계획(3년의 Action Plan)으로 구체화하여 교육부(The Ministry of Education)가 이를 감독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에 시골 지역에서 영유아교육 프로그램을 61개 지방에서 지원하기 위해 서부 지역에 있는 10개의 지방에 5억 RMB를 투자하였다. 2011년 중앙정부는 투자를 강화하고 15개 지방에서 유아 교육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 (3) 새로운 ECE 정책을 위한 지방 정책 전략

국가 중장기 계획에 의거하여 중앙에서는 각 지방정부에 다음의 네 가지의 구성요소들을 포함한 3년 활동 계획(3-year action plan)을 요구하였다. ① 현재 유아교육 제공 조건, 문제와 과제, ② 지리적인 지역 목표를 포함하여 유아 교육 발전을 위한 향후 3년간 목표와 과제, ③ 공공 ECE 등록 확충 등 주요 전략, 민간 유아 프로그램 지원, ECE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 확보, 교사 훈련과 더 나은 조건 확보, 정부의 책임과 관리 조직 필요, 프로그램 질 강화를 위한 전략 등, ④ 프로젝트의 이름, 목적, 전략, 자금지원 등이다.

〈표 4-2〉 지정된 지방의 3-year Action Plans에서 구체화된 목표

지방	ECE 목표	프로그램
Shandong (산둥성)	2015년까지, 3년 프로그램 등록 75%, 발 달된 지역>85%	2015년까지 ECE 프로그램의 70%가 공적으로 운영되며 지방의 기준을 충족
FuJian (푸젠성)	2015년까지, 3년 프로그램 등록 93%,	도시에서 만 명과 시골에서 3-6천 명을 위해 하나의 프로그램 개설
Guizhou (구이저우성)	2015년까지, 3년 프로그램 등록 60%,	2020년까지 천 개의 새로운 ECE프로그램을 지원, 각 도시에서 적어도 하나의 공공 ECE 프로그램을 운영.
Hainan (하이난)	2013년까지, 1년 프로그램 등록>80%, 3년 프로그램 등 록>55%,	2013년까지 30개의 새로운 공공 ECE프로그 램이 개설, 100개의 도시 프로그램이 개 선·확장. 도시의 75%이상 공공 프로그램을 가지며, 프로그램의 20%이상 지방과 도시의 기준 충족
Hebei (허베이성)	2015년까지, 3년 프로그램 등록 70%,	2012년까지 천개의 ECE프로그램이 개선되거 나 새롭게 개설
Heilongjiang (헤이룽장성)	2015년까지, 3년 프로그램 등록 65%,	2015년까지 공공 프로그램 40%이상 되고, 프로그램의 80%가 기본적 기준에 도달.
Shanxi (산시성)	2013년까지, 2년 프로그램 등록 85%, 3년 프로그램 등 록>75%; 2011년부터 일년 무료 교육 시작	2013년까지 천 개의 공공 도시 ECE 프로그램 개설, 각 도시에서는 하나 이상 표준 프로그 램 운영. 도시, 마을 ECE 네트워크서비스 체 계 형성.
Anhui (안후이성)	2013년까지, 3년 프로그램 등록 60%,	2012년까지 973개의 새로운 공공 ECE 프로그 램 개설, 955개의 공공 ECE 프로그램이 개 선·확장
Sichuan (쓰촨성)	2015년까지, 3년 프로그램 등록 70%,	2013년까지 1200개의 새로운 공공 ECE 프로그 램과 500개의 민간 프로그램 개설
Guangdong (광둥성)	2015년까지, 모든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3년 프로그램 등 록	

자료: Zhou(2011).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Development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5(1), 29-39.

<표 4-2>는 지방 정부가 2015년까지 3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국가 계획(the Plan)에서 제시한 목표보다 더 높게 설정되었다. 광둥(Guangdong) 지방은 모든 유아들을 위한 의무적인 ECE 프로그램을 제공, (Shanxi)산시성 지방은 2011년 9월부터 5-6세 어린 아이들을 위한 일 년 무료교육 시작, 난징(Nanjing) 지방은 이주 노동자의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도시에서 3-6세의 아이들을 위한 무료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표 4-3> 3년 활동 계획(3-year Action Plans)의 투자계획

지방	년도	투자계획
Guizhou (구이저우성)	2011-2020	공공 ECE 프로그램이 부족한 도시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50만 RMB 제공
Hainan (하이난)	2013년까지	유아교육을 위한 지방 경제 예산이 2013년에 2%에 도달 목표
Shanxi (산시성)	2011-2013	3년 동안 해마다 유아교육을 위해 2억원과, 일년 무료 유아 프로그램 지원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며, 하나의 새로운 도시 중심 프로그램 개설에 50만 RMB와 도시 중심 프로그램 하나를 개혁하기 위해 30만을 제공
Sichuan (쓰촨성)	2011-2013	앞으로 3년 동안 유아교육을 위해 24억원을 투자
Beijing (베이징)	2011-2015	5년 동안 70%이상의 공공 프로그램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600개의 ECE 센터를 개조하고 짓는데 50억원을 투자 즉, 각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옮기는 비용이 200RMB에서 1200RMB로 증가

자료: Zhou(2011).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Development in China.

지방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한 전략은 유아교육 투자 수준 향상, 전체 교육 예산에서 적절한 비율 배정,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저소득층, 장애아 등 교육이나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재정을 투입하기 위한 예산 요구, 저개발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 유아들을 위한 무료 교육 등이다. 또한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었는데, 취학전교육 프로그램 지도자와 교원 연수체계를 정립, 수습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강화, 교사 모집을

위한 자원 확대. 교사 자질 관리 프로그램 강화, 급여 등 근로 조건 개선, 사회보장제도 설립 등이다.

### 3. 유아원 운영

#### 1) 관련 법규

유치원 설치, 운영, 관리와 관련된 법들을 통하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치원관리조례, 유치원사업규정, 유치원 교육지도요강, 탁아소·유치원 건강관리법등이 있고, 이외 각 지방정부가 별도의 유치원 관리규정, 관리세칙 등을 제정하여 사용한다.

#### (1) 유아원 관리 조례

유아원 관리 조례는 1989년 9월 11일 중국 국가 교육위원회의 제4호로 명령을 내리고, 1990년 2월 1일에 시행되었다.

조례 내용은 총칙, 승인 기본 조건, 유아원 보육과 교육, 유아원 행정, 보상과 처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서는 유아교육의 책임에서 중앙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설치 기준으로 오염 지역과 위험 지역에 유치원 설치 금지, 교사 등 인력의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육과 교육 내용으로 안전, 건강 영양 등을 규정하고 정부의 관리 책임 사항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 (2) 유아원 사업규정

「유아원 사업규정」은 1996년 3월 9일에 국가교육위원회 령으로 채택되어 1996년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총 10장 62조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임무, 대상, 유치원수업형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유아모집과 반편성에 대한 규정이며, 제3장은 보건과 위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교육의 원칙과 교육활동형식, 소수민족의 언어사용 허가, 소학교와의 연계성 등을 규

정하고 있다. 제5장은 유치원의 건물과 설비, 제6장은 교직원의 자격과 의무, 제7장은 유치원의 경비관리 방법과 경비심사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8장에는 유치원과 가정과의 연계성 교육, 부모교육, 지역사회교육, 제9장에서는 유치원의 관리 사업을, 그리고 마지막 제10장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유아원 교육지도 요강

유치원 교육지도 요강은 중국공화국 교육법, 유치원관리조례에 의거하여 1999년 10월에 완성된 것으로, 유아 교육은 기본 교육으로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 시작 단계의 중요한 부분이며, 보육은 가족과 지역사회가 어린이의 성장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명시하고, 건강, 사회, 과학, 언어, 예술 등 다섯 분야 활동에 지식, 기술, 능력, 감정 상태 등 다양한 측면이 발전하도록 교육 목표와 내용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4) 탁아소·유아원 건강관리법

이 법은 2010년 3월 1일 제정되어 11월 1일 이후 발효되었다. 동법은 2월 1일에 발효된 탁아소·유아원 보건관리법을 대체하는 법으로, 아동의 심신 건강을 보장하고 질병을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탁아소와 유치원에 등록된 0-6세 영유아에게 적용된다. 동법은 유아원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건강습관, 영양,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 건강검사, 식품안전, 예방접종, 전염병 예방 등 건강관련 사항을 총망라하고 있다.

## 2) 유아교육·보육 설치 유형 및 규모

중국의 영유아 이용 기관은 탁아소, 유아원, 초등학교 학전반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탁아소는 3세미만아를 보육하는 기관인데 최근에는 유아원의 탁반 형태로 유아원과 통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유아원은 종일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고 세번째 유형인 초등학교 학전반은 유아교육이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형태이다.

<표 4-5>는 운영 주체별 유아원 및 반 수와 백분율이다. 이 표를 보면 중국 유아원 중 64.6%가 사립 유아원이고 35.4%가 공공 유아원인데, 공공유아원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유아원이 19.5%, 지역사회 운영이 12.7%이다. 유아원수는 사립이 64%이지만 사립유아원은 규모가 작아서 반수로 보면 사립이 45.5%를 차지하고 공공이 54.5%를 차지한다. 즉 유아원 이용아동의 반 이상이 공립유아원에 다닌다고 할 수 하겠다. 특히 학전반은 22.7%가 사립이고 77.3%가 공공이며 특히 교육부가 학전반의 73.8%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소수민족 유아원은 71.5%가 교육부에서 운영하며 시설 운영은 19.4%이고 80% 이상이 공공유아원이다(표 4-4 참조).

〈표 4-4〉 중국 유아원 및 반 수

구분	원수		반수	
	전체	소수민족	전체	학전반
수				
전체	138,209	1,601	867,894	246,121
교육부처(run by Ed. Dept.)	26,958	1,144	366,980	181,539
지역사회(run by Communities)	17,542	146	70,918	5,691
사설(NOn state/private)	89,304	311	395,050	55,924
기타 부처(run by Non- Ed. Dept)	4,405		34,946	2,967
비율				
전체	100.0	100.0	100.0	100.0
교육부처(run by Ed. Dept.)	19.5	71.5	42.3	73.8
지역사회(run by Communities)	12.7	9.1	8.2	2.3
사설(NOn state/private)	64.6	19.4	45.5	22.7
기타 부처(run by Non- Ed. Dept)	3.2	0.0	4.0	1.2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http://www.moe.edu.cn>

유아원은 대체로 3세아반(소반), 4세아반(중반), 5세아반(대반)으로 구성되는데 최근에 탁반, 소탁반 등 3세 미만아동을 수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4-5 참조).

〈표 4-5〉 중국 유아원 반 설정 특성

연령단계	반급설정	규모
1.5세~2세미만	소탁반	15-18명
2~3세미만	탁반	18-20명
3~4세미만	소반	20-22명
4~5세미만	중반	22-25명
5~6세미만	대반	25-28명

## 제2절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

### 1. 유아원 이용

#### 1) 이용기관 유형

본 조사 결과,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조선족 아동은 기관 미이용 아동은 37.8%로서, 과반 이상의 아동인 62.2%가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9)</sup>. 이용기관의 종류를 보면 조선족 유치원이 19.5%로 가장 많고, 조선족·한족 통합기관이 18.8%, 한족유치원 16.5% 순이었다. 지역별 차이로 연길시 거주 조선족은 조선족유치원이 31.2%, 조선족·한족 통합기관이 28.5%로 보고되었고, 북경 거주 조선족은 대부분이 한족유치원을 이용한다.

한족도 조선족과 유사하게 35.3%가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한족유치원이 55.2%로 가장 많고, 5.0%가 한족 탁아소, 3.0%는 조선족 유치원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만 3세미만의 영아의 경우 기관 미이용률이 조선족 49.8%, 한족 50.4%로 절반 정도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 3세이상 유아기에는 기관 미이용률이 조선족 7.1%이고 한족은 0%로, 중국의 유아들은 거의 대부분기관을 이

9. 본 조사 표본은 임의 표본으로, 중국 조선족 및 한족을 대표하지 않음.

용하고 있었다. 이용하는 기관 종류를 보면, 조선족은 조선족·한족 통합기관이 35.7%로 가장 많고 조선족유치원 25.0%, 한족유치원 19.6%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족 유아는 한족유치원을 다니는 경우가 86.7%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조선족유치원이나 조선족·한족 통합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다(표 4-6 참조).

〈표 4-6〉 아이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자녀 민족과 연령			
	조선 족	한족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조선족유치원	19.5	3.0	8.0	31.2	1.0	5.0	17.4	25.0	2.8	3.3
조선족탁아소	5.3	-	2.5	8.0	-	-	3.8	8.9	-	-
한족유치원	16.5	55.2	28.5	4.5	53.0	57.4	15.3	19.6	41.8	86.7
한족탁아소	2.0	5.0	3.5	0.5	4.0	5.9	1.4	3.6	4.3	6.7
조선족, 한족 연합 유치원 혹은 탁아소 없음	18.8	1.5	9.0	28.6	-	3.0	12.2	35.7	0.7	3.3
계	37.8	35.3	48.5	27.1	42.0	28.7	49.8	7.1	50.4	-
(사례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df)$	(399)	(201)	(200)	(199)	(100)	(101)	(287)	(112)	(141)	(60)
	139.5(5)***		104.8(5)***		-		71.6(5)***		48.0(4)***	

\*\*\* p &lt; .001

과거, 중국 조선족은 소수민족으로 언어를 잃으면 민족을 잃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선어 사용을 문화민족의 긍지로 받아들여 왔으나 최근 들어서 중국이 경제 국가로 부상하면서 이보다는 현실적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조선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동시에 한어를 잘 하는 이중언어 구사능력 함양을 위해서 영유아 기에는 조선족 유치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조선족 유치원이 상당수가 문을 닫고 줄어들고 있으나 조선어를 하나의 자산으로써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하다.

하나는 좋은 유치원은 경비도 많이 들고, 그밖에 하나는 동네유치원이니깐 데리러 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편리하고, 그리고 경비도 적게 들고... 그리

고 조선족유치원에 보낸 것은 조선족인 게 조선말을 알아야지, 한족유치원에 보내면 이딴에 한족이 되면 어찌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족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소학교 2학년까지 조선족학교를 보내고, 3학년부터는 한족학교를 보낼 타산입니다. (연길 조모1)

개네 의사도 그렇거니와 우리 요구도 상해에 뒤두면 거긴 한족유치원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말이거나 조선 글이거나 배우는데 꼭 못 하겠다 해서, 그래서 우리 연길로 데려왔습니다. 우리생각으로는 조선말이거나 글에 다 익숙하고, 그러자면 우리 여기서 소학교까지는 조선족유치원과 학교를 편입(졸업)하고 그달 상해가서 학교 들어가고 안가고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다시 결정할 타산입니다. (연길 조부1)

## 2) 이용 이유

기관 이용 이유로는 ‘돌봐줄 대리양육자는 있지만 자녀의 교육·보육 차원에서’가 조선족 66.1%, 한족 6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무적으로 가야하므로’가 조선족 48.0%, 한족 59.2%로 나타났다. 뒤이어 ‘자녀에게 친구를 사귀게 해주고 싶어서’가 조선족 41.1%, 한족 33.1%를 차지했다. 낮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조선족 38.3%, 한족 26.2%이었다. 즉, 한족은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에 조선족은 낮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와 자녀에게 친구를 사귀게 해주고 싶어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표 4-7 참조).

지역별은 북경 거주 조선족의 경우 낮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자녀에게 친구를 사귀게 해주고 싶어서, 또래 친구들이 대체로 다니는 분위기라서가 비율이 연길시보다 높고, 연길시 거주 조선족은 돌봐줄 대리양육자는 있지만 자녀의 교육·보육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가야하므로의 비율이 북경 거주자보다 높다. 한족은 북경 거주자가 낮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비율이 다소 높고 연길거주자는 자녀에게 친구를 사귀게 해주고 싶어서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민족에 상관없이, 대리양육자가 있지만 교육·보육차원에

서 기관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의무적으로 가야하므로, 자녀에게 친구를 사귀게 해주고 싶어서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7〉 기관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자녀 민족과 연령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영아	유아	영아	유아
돌보줄 대리양육자는 있지만 자녀의 교육·보육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가야하므로 자녀에게 친구를 사귀게 해주고 싶어서	66.1	60.8	46.6	80.0	60.3	61.1	59.7	75.0	51.4	71.7
낮에 돌보줄 사람이 없어서 또래 친구들이 대체로 다니는 분위기라서	48.0	59.2	38.8	54.5	56.9	61.1	45.8	51.0	61.4	56.7
기타	41.1	33.1	44.7	38.6	27.6	37.5	42.4	39.4	31.4	35.0
계	38.3	26.2	44.7	33.8	29.3	23.6	38.9	37.5	22.9	30.0
(사례수)	21.0	21.5	25.2	17.9	22.4	20.8	24.3	16.3	22.9	20.0
	0.4	-	-	0.7	-	-	0.7	-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48)	(130)	(103)	(145)	(58)	(72)	(144)	(104)	(70)	(60)

중국 북경시 부모 면담에서 유치원을 선택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 다름 아닌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대학교 입학보다 유치원 선택이 더 신경 쓰이는 이유는, 상급학교 진학 경쟁에서 우위 차지하느냐는 어렸을 때 소위 ‘좋은’ 유치원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부모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요즘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 보다 소학교에 중학교 들어가는 거 경쟁이 제일 치열하고 그 다음 유치원에서 소학교 들어가는 게 대학교 가는 것보다 더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북경에는 좋은 유치원 좋은 소학교 좋은 중학교 수준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북경 모2)

대리양육자는 있지만 자녀를 교육·보육차원에서 기관을 보낸다는 이유 이면에는 중국이 이미 치열한 경쟁사회로 재편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취학전 유아기부터 경쟁은 시작되고 있었다.

## 3) 선택기준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관을 선택할 때 조선족 76.6%, 한족 80.8%의 비율로 '원장·교사의 자질'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집과의 거리, 시설·설비 등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반적 경향은 조선족과 한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4-8 참조).

지역별로 보면, 연길시 거주 조선족은 원장이나 교사의 자질, 주변의 평판, 급간식을 고려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북경시 거주 조선족은 집과의 거리와 시설설비, 운영시간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길시 거주 한족은 원장이나 교사의 자질, 주변의 평판, 시설설비를 고려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북경시 거주 한족은 집과의 거리와 시설설비, 운영시간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8〉 기관 선택시 중요 기준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자녀 민족과 연령			
	조선 족	한족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원장·교사의 자질	76.6	80.8	67.0	83.4	77.6	83.3	59.7	75.0	51.4	71.7
집과의 거리	56.5	60.8	68.9	47.6	79.3	45.8	45.8	51.0	61.4	56.7
시설·설비	53.6	50.8	65.0	45.5	44.8	55.6	42.4	39.4	31.4	35.0
주변의 평판	29.4	23.8	20.4	35.9	13.8	31.9	38.9	37.5	22.9	30.0
비용	24.2	30.8	24.3	24.1	43.1	20.8	24.3	16.3	22.9	20.0
급·간식	24.2	16.9	19.4	27.6	17.2	16.7	0.7	-	-	-
프로그램	14.5	20.0	12.6	15.9	12.1	26.4	-	-	-	-
운영시간	9.7	10.0	13.6	6.9	13.8	6.9	-	-	-	-
기타	0.4	-	-	0.7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248)	(130)	(103)	(145)	(58)	(72)	(144)	(104)	(70)	(60)

연령별로 보면, 영유아를 불문하고 원장·교사의 자질을 기관 선택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응답했고 집과의 거리, 시설·설비 순으로 보고되었다.

#### 4) 이용 시간

일하는 여성이 보편화된 중국에서 유아원 등 육아지원기관은 대부분이 종일제로 운영된다. 본 조사에서도 평일 하루에 자녀가 보내는 시간은 평균 8시간 정도로 민족 간 차이가 없었다. 8시간 이용이 조선족 56.9%, 한족 60.8%의 비율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7시간과 9시간으로, 대부분이 7~9시간을 이용한다. 지역 차이도 북경에서 평균 이용시간이 다소 높게 산출되기는 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한족보다는 조선족이 기관이용시간이 조금 더 많으며 연길시보다 북경에서 이용시간이 더 길었다(표 4-9 참조).

연령별로는 민족에 상관없이 유아보다는 영아가 오히려 기관이용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 탁아소 등 기관을 이용하는 영아의 어머니가 취업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4-9〉 기관에서 평일 하루에 자녀가 보내는 시간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자녀 민족과 연령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영아	유아	영아	유아
3시간	-	0.8	-	-	-	1.4	-	-	1.4	-
6시간	2.8	3.1	1.9	3.4	1.7	4.2	3.5	1.9	1.4	5.0
7시간	19.8	15.4	13.6	24.1	5.2	23.6	17.4	23.1	15.7	15.0
8시간	56.9	60.8	52.4	60.0	74.1	50.0	53.5	61.5	57.1	65.0
9시간	17.3	17.7	29.1	9.0	15.5	19.4	20.8	12.5	20.0	15.0
10시간	3.2	2.3	2.9	3.4	3.4	1.4	4.9	1.0	4.3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248)	(130)	(103)	(145)	(58)	(72)	(144)	(104)	(70)	(60)
평균:(시간)	7.98	7.97	8.17	7.85	8.14	7.83	8.06	7.88	8.03	7.90

유아원 등 기관 이용 아동들은 대체로 6시에 기상하여 8시 정도에 유아원에 가서 오후 4, 5시가 넘어서 귀가한다. 대부분 유아원에서 저녁식사까지 제공한다. 식비는 교육비와 분리하여 고지, 수납한다. 지역 차이는 거의 없다.

우리 애는 보통 6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절로 늦다가 7시쯤에 우유하나 먹이고, 그리고 영려서(달걀서) 유치원에 보냅니다. 유치원에 돌아와서는, 보통 애가 세시 40분에 끝냅니다. 네 시부터 다섯 시 사이에는 시아버지와 같이 놀고, 그다음에 다섯 시 후 부터는 나와 같이 눕니다. 그대 텔레비전도 보고, 장난감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녁 먹고, 여덟시 반이나 아홉 시, 그때는 영려가지고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한 반시간 그러다가 재웁니다 (연길 모1).

아침에 여섯시쯤 깨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여덟시 정도 유치원 가고, 그다음에는 유치원에 가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오후 네 시정도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애들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텔레비도 보고...(연길 모 2)

그냥 아침에 6시 반쯤 일어나서 세수 시키고, 밥을 먹이고 8시전에 유치원 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다음 오후 4시쯤이면 집에 데려와서 텔레비전도 보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녁을 먹고, 날씨 좋을 땐 가꿌 공원에도 데려가고, 그리고 토티, 일은 주호 할려니 집에 가서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평소에 애를 잘 해먹이지 못한다고 할려니가 걱정하여서 토티, 일은 할려니 집에 가서 생활개선을 합니다. (연길 부1 )

아침에 유치원에 가서, 저녁에 다섯 시에 가서 데려오구. 낮에는 기본상 유치원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 저녁 먹고, 그리고 또 나와 같이 내 지금 억지호 어쨌든 애를 공부 잘하라고 자주 더러( 쫌씩) 글을 배워준 단 딸입니다. 옛날두 해주고 의식을 틱우느라고. 그리고 유희도 놀고 여덟 시 아홉시쯤이면 잔단 딸입니다. (연길 조모1)

아침에는 크게 여유시간이 크게 많지 않아서 깨운 다음에 인차(바흐) 씻기

고 빵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가면 아침행사가 끝난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오후 네 시쯤에 가서 接(마중)해오는데, 집에 와서도 자기또래들과 일정하게 한 한 시간 차우 놓고 그다음에 집에 들어서 유치원에서 내준 숙제가 있을 땐 숙제도 하고요, 또 무슨 과외독서 같은 걸, 옛날 책이거나 말한책 이런 것도 집에 들어서 같이 보기도 하구요. (연경 조부1)

아침 9시에 가서. 아침 식사를 유치원에 가서 하려면 일찍이 가고 식사를 집에서 하고 가면은 그냥 9시전까지 가면 돼요. 저녁까지 먹고. 집에 가서는 과일을 먹고. 저녁 5시까지요. (북경 모2)

정규 시간보다 1~2시간 정도 연장보육을 하는 유아원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을 낸다.

야간반 있어요. 한달에 60원이니까 한국 돈 만원.., 한국돈 만원만 내면 그냥 여섯시에 데려갈 수 있는데, 근데 돈 문제가 아니고 애들이 빨리 집에 얹다 아버지를 보고 싶으니까 저는 돈을 안 냈어요 제시간에 데려오려고. (북경 모3)

중국에는 일주일 동안 먹이고 재우면서 교육하는 기숙 유아원도 시설로 운영되며, 또한 유아원에서는 친자반(親子班)이라고 하여 일주일에 몇 번 시간제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기숙유치원이 지금도 있어요. 저는 저희 아파트에 사는 아이 둘 얹다가 있는데, 둘째는 친정 얹다하고 아버지가 와서 키워주고 큰 애를 4살정도 밖에 안됐는데 기숙유치원에 보낸다구 그랬어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보내서 금요일에 데려온다고 그러더라구요. (북경 모2)

##### 5) 프로그램

중국에서도 자녀들의 학업 경쟁이 치열하다. 자녀의 우수한 대학 입학 을 갈망하고, 고등학교에 서열이 있어서, 서로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

려고 애를 쓴다. 이러한 경쟁은 영유아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조기교육을 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

〈표 4-10〉 유아원 교육·보육과정 사례

00유아원의 교육·보육과정

00유아원은 교학실천중 어린이들의 심신발전 상태를 충분히 존중하여 중요한 시기의 발전과 잠재적 능력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오대영역 주제 활동, 중영 두 가지 언어, 종합예술교육 등 과정을 하루 일과에 영입하여 다문화의 주제실천 활동을 유도하여 풍부한 과정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00유치원은 어린이들의 부동한 연령 특점에 따라 상응한 과정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수업모식이 독특하고 창의적이어서 어린이들의 흥취를 배양하고, 개성을 발전시키고, 신체를 단련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로 하여금 유희의 쾌락 속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지식을 구축하고, 심신이 건강하고, 주동적이고 전면적이면서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1. 개방적인 대 과당(수업)－ 풍부하고 다원화한 개방 활동. 자연으로 향하고, 사회를 체험하며 유쾌하게 교류하게끔 합니다.
2. 출가분한 두 가지 언어－중국어, 영어 두 언어 환경 중에서 자유롭게 노닐게 하고, 중서 문화에 융합되게끔 합니다.
3. 피아노 계몽－손, 눈, 마음, 지혜를 조화롭게 작용하게 하고, 음악세계의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4. 미술 창의－미에 대해 계몽하게 하고, 어린이의 창의성을 개발하게 합니다. 개성을 나타내게 하고, 다채로운 세계를 그리게 합니다.
5. 형체무도－음악의 선율을 느끼게 하고, 날씬한 몸매를 가지게 하며 미래의 질량을 높여 주게 합니다.
6. 조기열독－글자와 친구를 맺게끔 하고 은연중 사상과 성격에 영향 주게 합니다.
7. 경전통독－중화민족 문화의 깊이를 감수하게 하고, 중화전통문화를 향수하게 합니다.
8. 과학인지－탐구에 대한 흥취를 높여주고, 과감히 시도하게 하고 지혜를 개발하게 합니다.
9. 감각통합－심신을 조화롭게 하고, 지력을 향상하게 하며 스스로 주위환경에 융합되게 합니다.
10. 윤회연습－바퀴를 돌리는 게임을 하게 하여 자신감, 용기, 속도, 힘을 높여주게 합니다.
11. 태권도－풍부한 흥취를 자아내게 하고, 신체를 튼튼하게 하고, 예절을 바르게 하며 겸손하고 자립적인 품덕을 키우게 합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종류도 많아지는 경향이다. 중국동포 영유아들이 주로 받는 사교육 내용은 영어(언어), 피아노등 악기, 미술, 무용, 체육, 속셈, 주산 등이 보편적이었다. 특히 중국에서는 언어교육을 매우 강조하였다.

조선족 유치원에서도 조선어와 한족어를 함께 배우도록 권장하며, 영어를 교과목에 포함하고 있고, 이외에도 특장교육이라 하여 별도의 비용을 받고 특기활동을 실시한다. <표 4-10>는 북경시 소재 한 사립 유아원의 교육과정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이를 보면 상당히 많은 특별 활동교육이 실시됨을 알 수 있다.

#### 6) 비용

중국 조선족 이용 유치원의 특성은 유치원간 비용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정부의 비용에 대한 규제나 부모 부담 지원은 거의 없다.

조사대상자들은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비용은 편차가 매우 커서 월 200위안 미만을 낸다는 비율이 8%인 반면에 14.7%는 월 1,000위안 이상을 내고 있었다.

<표 4-11> 기관 이용 월평균 비용(위안화): 비용지불 응답자 기준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500원 미만	31.7	41.1	5.9	50.5	36.1	44.6
500~1,000원 미만	27.4	34.1	17.4	34.5	17.1	47.3
1,000~1,500원 미만	12.1	11.5	10.7	13.2	17.2	6.9
1,500~2,000원 미만	8.8	10.1	20.4	0.7	20.5	1.4
2,000~3,000원 미만	13.3	3.8	31.1	0.7	8.5	-
3,000원 이상	6.0	-	13.6	0.7	-	-
무응답	0.4	-	1.0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248)	(130)	(103)	(145)	(58)	(72)
평균(위안화)	1,054.90	715.15	1,742.16	571.45	960.00	517.92

중국 유아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교육비 이외에 특장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대도시에서는 3개월 단위 학기별로 5,000위안을 지출하는 가정이 상당수임을 알 수 있다.<sup>10)</sup>

여기 00대유치원 비용은 교육비 600위안, 식비 280위안으로 총 880위안으로 엄청 싼 편이에요. 사립유치원 일반 가격은 2500원~3000원 정도예요. (북경 모2)

사립은 2500원 3000원 4000원 다 있어요. 5000원도 있어요. 여기는 특장반은 돈 별로 큰 내구요 우리도 별로 큰 내구요 200원 정도 (북경 모7)

중반에 가면 아마 한 5000원 정도는 한 학기에 들 것 같아요. 수영반은 한 학기 3개월에 800원, 힌타반 300원인지 400원인지, 무용반도 300원, 그다음 여기 영어를 안 했는데, 피아노가 한 학기에 1000원 정도, 그리고 TV방송국에 (중략) 그냥 선생님이 데리고 놓고 뭐 유익하고 그래서 그쪽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쪽에 3000원씩 들더라고요. 한 학기에 그래서 이걸 예상하니까 5000원 정도 들더라고요. (북경 모3)

요즘은 들어서 2개월내지 3개월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친자(親子) 반이 있어요. 이런데서도 거의 중국어나 외국어를 하고요. 유치원 보내기 전에는. 유치원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지요. (북경 모 2)

기관 이용 시 정부 비용 지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조선족 96.4%, 한족 99.2%가 없다고 응답했다(표 4-12 참조).

10. 이러한 비용의 격차는 유치원 설치 및 운영 유형과는 무관하게 시설설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월 1,000위안의 학비를 받는 한 유치원의 사례를 보면, 공립유치원으로 유치원비를 정부가 받고 원장 및 교사 급여와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배정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음. 시설설비는 단독 건물에 1~3층을 교실로 사용하고 4층은 특별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교재교구는 매우 풍부하였음. 원장은 이만한 설비를 갖춘 유치원이라면 중국화폐 월 1000원은 받아야 한다고 하였음(서문희 외, 2010).

〈표 4-12〉 기관 이용 비용 지원(위안화)－정부 비용 지원 응답자 기준

단위: %(명)

구분	자녀 민족		자녀 민족과 지역				자녀 민족과 연령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영아	유아	영아	유아
미지원	96.4	99.2	91.3	100.0	100.0	98.6	95.8	97.1	100.0	98.3
지원	3.6	0.8	8.8	-	-	1.4	4.2	2.9	-	1.7
사례수	(248)	(130)	(103)	(145)	(58)	(72)	(144)	(104)	(70)	(60)
지원시 평균(위안화)	294.44	200.00	294.44	-	-	200.00	-	-	-	-

정부에서는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아무것도, 그저 정부에서 좀 곤란하거나 부모들이 댁에 가 있는 것은 좀 대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무런 보조도 없고 제정된 어쩔든 비용을 다 대야 할듯 합니다. (연길 조모1)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두 살 전까지 우유 값은 주는데 고작 한 달에 2원 안, 그니까 한국 돈으로 400원 정도. 그달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탁아비를 보조해주는데 직장마다 특이니 여기는 10원씩 보조하고 저기는 조금 좋으니 40원씩 하고. 그리고 독신자녀 있잖아. 애가 하나씩 낳는 집은 한 달에 10원씩 준대요. 우리는 독신 그거 제창했잖아. (북경 모7)

#### 7) 기관 이용 만족도

현재 자녀가 이용하는 유치원, 탁아소 등 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다. 아동 민족이 조선족인 부모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 14.1%, 어느 정도 만족 83.1%이고, 한족은 매우만족 9.2%, 어느 정도 만족 86.9%로 역시 대다수가 만족한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지역별, 연령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3 참조).

〈표 4-13〉 자녀 기관 이용 만족도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자녀 민족과 연령			
	조선 족	한족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영아	유아	영아	유아
매우 불만족스럽다	0.8	1.5	-	1.4	-	2.8	1.4	-	-	3.3
약간 불만족스럽다	2.0	2.3	2.9	1.4	-	4.2	3.5	-	4.3	-
어느 정도 만족한다	83.1	86.9	89.3	78.6	96.6	79.2	81.3	85.6	87.1	86.7
매우 만족한다	14.1	9.2	7.8	18.6	3.4	13.9	13.9	14.4	8.6	10.0
계 (사례수)	100.0 (248)	100.0 (130)	100.0 (103)	100.0 (145)	100.0 (58)	100.0 (72)	100.0 (144)	100.0 (104)	100.0 (70)	100.0 (60)

지금은 우리 여기도 유치원과 유치원에서 서로 경쟁하는 원인 때문에 딱히는 얘기 못하겠지만, 아마 내 생각에는 그런 같은데, 그래서 유치원마다 자기 유치원생에 대해 많이 하느냐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불편한 것 느끼지 못했습니다. (연길 조부1)

그러나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체로 자녀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불만족 이유로 꼽았다.

제 생각엔 향양유치원의 시설은 좋지 않아요. 왜냐면 애들은 많고 공간은 너무 작고, 지금 확장하려 해도 공간이 없지요. 모두 이 유치원에 집중되니까, 국립이니까, 조선족들은 그래도 6.1유치원도 있고 새싹유치원도 있고, 거기 시설은, 저도 6.1에 가보았는데 향양보다 뚜렷하게 좋지요. 아이들도 적고, (연길 모4)

공간을 확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실이든지 운동장이든지, 애들은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뛰놀아야 되는데 00대학 유치원은 손바닥만 한데서 애들이 오글오글하니깐 그게 마음에 안 듭니다. (연길 모2)

## 8) 희망 이용 기관

향후에 가장 이용하고 싶은 기관 유형으로는 <표 4-14>를 보면 조선족의 경우 조선족·한족 통합 기관이 4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선족유치원 22.5%, 한족유치원 15.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경거주 조선족은 조선족·한족 통합 기관을 54.6%로 조선족유치원 7.2%보다 훨씬 많이 선호하였지만 연길 거주 조선족은 조선족·한족 통합 기관 31.5%이고 조선족유치원 50.0%로 조선족 유치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조선족 영아기 자녀는 조선족·한족 통합기관(48.3%)이나 조선족유치원(21.7%)을 선호하지만, 유아기 자녀는 한족유치원을 희망하는 경우가 50%로 응답해 자녀 연령에 따라 희망하는 기관이 달랐다. 최근에 많은 조선족유아원에서 한족 아동을 받아서 조선족반과 한족반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족의 경우에는 한족유치원이 81.7%로 다수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조선족·한족 통합 유치원이 7.0%이었다.

〈표 4-14〉 향후 이용하고 싶은 기관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자녀 민족과 연령			
	조선 족	한족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조선족유치원	22.5	1.4	7.2	50.0	-	3.4	21.7	37.5	1.4	-
조선족탁아소	9.9	2.8	11.3	7.4	2.4	3.4	10.5	-	2.8	-
한족유치원	15.9	81.7	19.6	9.3	88.1	72.4	14.0	50.0	81.7	-
한족탁아소	3.3	5.6	5.2	-	7.1	3.4	3.5	-	5.6	-
조선족, 한족 연합 유 치원 혹은 탁아소	46.4	7.0	54.6	31.5	2.4	13.8	48.3	12.5	7.0	-
기타	2.0	1.4	2.1	1.9	-	3.4	2.1	-	1.4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사례수)	(151)	(71)	(97)	(54)	(42)	(29)	(143)	(8)	(71)	-

유치원 유형 희망은 이용 가능 유치원의 존재도 영향을 주겠으나, 동일한 환경에서는 앞으로 조선어에 대한 활용 가치 기대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앞서서도 기술한 것처럼 앞으로 중국 사회에서 자녀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부모가 많을수록 자녀 조선어 교육열은 낮아질 것이다. 도시에 있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한어를 잘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한어의 교육 필요성을 더 느낄 수밖에 없다.

지금 북산소학교 같은 경우는, 쯤 좋은 반은 조선족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죠.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언니네 아이가 어릴 때 조선족유치원에 1~2년 다녔는데, 후에 소학교에 가면서 조선족학교를 다니지 않으니까 말을 다 까먹었어요. 언어 환경이 없으면 금방 잊어먹죠. 그럴 바엔 아예 시초부터 한족학교를 선택하는 게 낫죠. (연길 모3)

### 제3절 사교육기관 이용

유치원의 특장반 프로그램 목록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부모들도 학원등 사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낸다.

본 조사에서는 조선족의 14.5%, 한족의 20.4%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다고 응답하였다. 사교육 과목은 미술, 음악, 외국어, 체육, 중국어, 수과학 등 다양하다(표 4-15 참조).

우리 집 아이는 黑管(악기)을 배웁니다. 저는 애한테 등급시험을 볼 것도 바라지 않고 갓달히 배워가지고 악보나 익히고, 애가 즐거워하면 더 가게하고. (연길 모3)

정서개발차원에서 피아노를 시키는데, 이제 5살쯤 애의 적성을 바가면서 전문 선생님을 찾아 본격적으로 시킬 생각입니다. 대번에 들어가면 태권도를 시킬까 생각중인데, 남자애니까 아무래도 강한 쪽으로 키워야 할 것 같아서... (연길 모2)

강제적으로라도 반드시, 애가 한 가지 악기는 알아야겠죠? 서법도 알아야겠  
 죠? 이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체육을 좋아하면 체육밖에 보내야 하고, 만약  
 체육을 좋아하지 않으면 앞의 두 가지는 시켜야죠. (연길 부2)

〈표 4-15〉 사교육기관 이용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없음	85.5	79.6	86.5	84.4	76.0	83.2
미술	7.3	8.5	9.0	5.5	9.0	7.9
음악	6.5	7.5	3.5	9.5	7.0	7.9
외국어	4.0	5.5	4.0	4.0	9.0	2.0
체육	3.0	3.0	4.0	2.0	6.0	-
기타	1.0	5.0	1.0	1.0	5.0	5.0
중국어	1.5	2.0	1.5	1.5	4.0	-
수·과학	1.3	2.5	1.0	1.5	5.0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표 4-16〉 월평균 사교육 이용 비용(위안화): 사교육 비용 지불 응답자 기준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250원 미만	24.0	36.4	-	45.2	33.4	41.2
250~500원 미만	12.0	14.6	7.4	16.2	12.6	17.7
500~1,000원 미만	18.9	21.9	22.2	16.2	20.9	23.6
1,000원~1,500원 미만	17.2	9.8	29.6	6.5	12.5	5.9
1,500원 이상	27.6	17.1	40.7	16.2	20.9	1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58)	(41)	(27)	(31)	(24)	(17)
평균:(위안화)	1,090.52	732.44	1,424.07	800.00	872.92	534.12

사교육을 할 경우, 월평균 사교육 이용 비용은 조선족 평균 1,090위안화, 한족 평균 732위안화로 나타났다(표 4-16 참조).

아, 학비는 560원, 재능수학은 120원, 한국교재로 하니깐, 그러니 매달 680

원, 이걸 받드시 바꿔야 하는 거고, 그리고 기타 학습받이 적어도 두 개, 하나에 적어도 150원, 이걸 보통받이고, 피아노 같은 건 시간당으로 나가야 하니깐... 한사람의 월급은 거의 다 나가는 거죠. (연길 모3)

저는 유치원은 환경이 안 되니까 시설이 없는데 별도로 일주일에 한 번씩 피아노 학원에 보내고 있어요. 저는 그냥 반시간에 60원이니까 싼 거죠. 얼마 안 비싸운 60원 있고 70원 80원 90원 100원 다 있어요. 저는 그냥 제일 싼 걸로 그냥 애가 피아노 만질 수만 있게~ 피아노 예술적은 보편화되고 있어요. 그밖에 영어 영어공부 조금 하고 언어학원 보내고. (북경 모3)

이용 사교육 만족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조선족과 한족 모두 약 90%가 만족한다고 나타났다(표 4-17 참조).

〈표 4-17〉 사교육 이용 만족도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매우 불만족스럽다	-	-	-	-	-	-
약간 불만족스럽다	1.7	7.3	-	3.2	12.5	-
어느 정도 만족한다	87.9	92.7	96.3	80.6	87.5	100.0
매우 만족한다	10.3	-	3.7	16.1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58)	(41)	(27)	(31)	(24)	(17)

### 제4절 소결

중국은 중국정부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유아의 낮은 기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은 추진 중이다. 개혁개방 이후 조기교육 열풍의 일환으로 유아교육이 발전하였으나, 이는 개혁개방 이전 사업장 단위 공공 탁아소와는 다르게 사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유아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수요가 커지면서 유치원

은 계속 증가하고 그 운영여건은 점차 개선되면서 교육의 질도 향상되었으나 2009년도 중국 3~6세 유아의 유아원 총 등록률은 50.9%에 불과하다. 이에 중국은 2008년 중장기 교육개혁발전(2010~2020)을 위한 국가계획(the Plan)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매년 등록률을 증가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기초로 각 지방정부마다 '3년 활동계획(3-year Action Plans)'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계획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중국의 북경시와 연길시 거주 조선족 399명, 한족 201명 영유아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기관 이용이 조선족 62.2%, 한족 64.8%로 중국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았는데, 유아들은 대다수가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영아는 기관 미이용률이 조선족 49.8%, 한족 50.4%로 높았다. 이는 북경이나 연길 부모들이 어린 자녀는 기관보다는 가정내 양육을 더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중국에 영아 보육을 위한 탁아소아 유치원 반이 많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이용하는 기관 유형은 북경거주 조선족은 한족유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반면, 연길거주 조선족은 조선족유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이는 북경거주 조선족이 중국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중국 사회에 동화되는 속도가 빨라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북경거주 조선족 유아는 장차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중국사회의 일원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현재 치열한 경쟁사회로 재편되고 있음을 북경의 부모면담을 통해 절감하였는데, 치열한 경쟁은 이미 취학전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좋은' 소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좋은'유치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고, 대학 입시에 필수 과목인 한어에 대한 고려가 유치원 유형 선택에 영향을 준다.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주요 이유도 '대리양육자는 있지만 교육·보육차원에서 보낸다'가 가장 많았다.

여성 취업률이 80%에 가까운 중국의 대부분 육아지원기관은 하루 8시간의 종일제 운영을 하고 있고, 평일 이용시간은 7~9시간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중국은 육아지원기관 비용 지원이 없어서 부모의 부담이 크다. 따라서 육아지원기관 간의 서비스 수준과 이용비용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 제5장 논의 및 정책제언

### 1. 중국 조선족과 한족의 자녀가치와 양육 특성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과 한족의 자녀양육 관련 가치와 양육실태의 민족간, 지역간 차이를 파악하고, 중국과 중국 동포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앞으로의 중국 조선족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조선족 부모 399명, 한족 부모 1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국과 중국 동포의 자녀 양육 관련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조선족이 한족에 비하여 자녀에 대한 성취동기가 강하며 대체로 전통적, 보수적이면서도 탄력적이며 다양한 태도를 보인다. 한편, 조선족은 전통 유지와 중국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중국사회 속으로 들어가려는 추세인 두 가지 모두를 나타냈다. 이는 중국 동포사회가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향후의 중국동포의 모습은 현재와는 많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사결과의 몇 가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족에 비하여 조선족이 자녀에 대해 좀 더 전통적인 가치관과 양육 태도를 갖으며, 자녀에 대한 기대와 혼란이 모두 크다. 조선족이 한족에 비하여 자녀 갖기에 긍정적이며, 남아 선호 태도가 강하고, 자녀에게 도구적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가 높고 정서적 사치를 부여하는 정도는 낮으며, 자녀에 대하여 부·명예·사회적 지위 등 사회적 성취에

대해 높은 동기수준을 가지고 있다. 남편의 양육참여는 한족에 비해 조선족이 좀 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의 가치관을 드러냈다. 자녀양육 태도에서도 대체로 한족보다 조선족 부모의 통제성이 더 강했으며, 자녀 양육시 행복감과 성장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는 한족이 더 많은 반면에 부정적 정서는 조선족이 높아서 조선족이 자녀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소수민족으로 겪는 고민도 많음을 나타냈다.

둘째, 북경 조선족은 자녀에 대한 돈, 명예,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기대가 더 강하다. 그러나 남편의 양육참여는 북경거주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북경 거주 조선족의 특징은 태도가 보다 다양하고 선명하다는 점이다. 북경 조선족이 연길 조선족에 비하여 정서적 가치관과 더불어 전통적인 도구적 가치 인식 모두 강하다. 또한 남아선호 태도와 아이를 꼭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동시에 더 강하다. 이처럼 전통적·근대적 가치의 양자 모두에서 북경 조선족에서 선호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도시에서 다양성과 함께 보다 분명한 입장과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육태도도 북경 조선족 부모가 연길에 비해 수용과 거부, 자율의 측면에서 그 정도가 높다. 즉, 북경 조선족이 혼육적이며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여 전통적 양육방식과 가치관을 가지면서도 구체적 양육방식에서 근대적인 탄력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북경 조선족이 연길 조선족보다 자녀 성장후 한국과의 관계 맺기를 더 희망하지만 민족적 동질성이나 의식은 낮다. 자녀 성장 후 한국과 관계 맺기는 조선족은 결혼이 38.8%로 가장 낮고, 중국 소재 한국기업에서 일하기 55.6%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북경에서 더 강하다. 그러나 조선족 사회와의 동질성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조선족이라는 비율은 북경이 13.5%, 연길이 43.7%이다. 그런데, 조선족 언어 사용에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조선족유치원임을 나타냈다. 조부모의 조선족유치원 경험이 부모

의 사용 언어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 그런데 중국의 치열한 경쟁 사회로의 재편은 이미 취학전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좋은' 소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좋은'유치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고, 대학 입시에 필수 과목인 한어에 대한 고려가 유치원 유형 선택에 영향을 준다. 특히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이러한 기준을 더 많이 적용한다.

넷째, 중국의 자녀양육 지원은 미미하지만 조부모 지원이나 남편의 양육참여 등 가족지원 체계는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한자녀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중국의 자녀 양육은 모 취업률이 80%에 육박하지만 대부분이 부모 책임으로, 국가의 지원은 생육보험에 의한 출산휴가(직)와 일부 직장육아시설에 의한 지원이 있을 뿐, 영유아 보육과 교육 가관도 충분하지 않다. 조선족은 연길에 비해 북경 조선족의 조부모 지원이 더 많았다. 이는 연길 조부모의 상당수가 한국에 나와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다섯째, 정부는 유아교육(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유아의 낮은 기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이다. 개혁개방 이후 조기교육 열풍의 일환으로 유아교육이 발전하였으나, 이는 개혁개방 이전 사업장 단위 공공 탁아소의 대부분은 해체되고 사립 유치원이 다수 설치되었고, 이에 대한 부모의 부담은 높다. 2009년도 중국 3~6세 유아의 유아원 총 등록률은 50.9%에 불과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여 조선족유치원이 줄며, 조선족 유치원에서도 대부분 한족반이 운영된다.

이상과 같이 조선족 내에는 조선족으로서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힘과 중국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중국사회 속으로 들어가려는 추세의 두 가지 힘이 병존하고 있다. 이는 중국 동포사회가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향후의 중국동포의 모습은 현재와는 많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2 중국 조선족 대상 정책 추진 방향

중국 사회의 빠른 경제 사회적 변화는 전통적인 한자녀 정책과 맞물리면서 전통적인 권위주의적인 양육방식으로부터 변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중국 조선족 사회도 전통적 동북아 3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대도시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조선족 유치원 등 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끼친 고유한 사회 체계 등이 점차 약화되는 등 변화를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조선적 동포사회에는 조선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조선족과 더불어 중국 주류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려는 고학력 고소득 조선족이 존재하며, 이들의 존재는 모두 소중한 민족적 자산이 된다.

2011년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재외동포재단의 예산 지원액 중 단1%만이 중국 조선족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중동포가 지니는 통일, 역사전략 상의 비중을 감안해 관련 사업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11)</sup>

중국 거주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는 몇 가지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1) 조선족 유치원 지원

민족정체성을 유지·발전하는데 언어는 절대적이다. 전통을 고수하려는 조선족가정뿐 아니라 중국주류에 편입되려는 조선족가정에서도 자신들의 고유 언어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자녀 언어

11.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2011년 9월 19일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재단이 233만 6000여명에 달하는 중국동포에 대해 지원한 내역은 컴퓨터 250대 등 3억 524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외동포재단 총 집행액의 1% 불과한 수치임.

사용에서 부모의 조선족유치원 경험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은 소수민족 자치주 정부는 유치원에서 소수민족 특색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이 이용하는 조선족유치원을 통한 간접적 조선족 지원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지원이다. 연변자치주 정부에서는 정책적·제도적으로 유치원에서 소수민족(조선족) 특색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사회가 개방되고 중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조선민족 고유의 특색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조선족 유치원에서는 교사가 우리말(조선어)로 아동에게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며 우리민족의 전설, 민간이야기, 동화, 우화, 태권도, 씨름 등 전래동화와 민속놀이를 가르치고 있다. 이에 중국조선족 유치원교육과정에 한국전래, 한국전통놀이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된 교재교구 및 도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약화되고 있는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 강화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조선족 유치원에서 부모교육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부모가 돈을 벌기 위해 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유치원에서 부모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나, 아직까지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확산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부모가 취업을 위해 한국에 갈 가능성이 상존하고,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자녀를 중국에 두게 높다. 따라서 탁아소나 유치원에서 일찍부터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에는 양질의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이를 조선족 유치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내용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재조직한다거나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제언한다.

프로그램·교재교구·부모교육 지원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sup>12</sup> 한국의 유치원·보육시설과 조선족 유치원 간에 자매결연 하여서 현장에서의 교류를 의미한다. 중국 조선족유치원은 한국의 우수한 육아지원기관의 시설·설비, 프로그램, 교재·교구 등을 견학하고 배우는 기회를 얻게 되고, 우리는 조선족, 더 나아가 중국을 보다 더 잘 알고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민간 기관, 단체간 자매결연이 활성화되기 위해 정부는 지원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국책연구소 중심으로 정책적·학술적 교류 확대

2010년 7월에 발표한 중국 국가교육정책의 청사진인 국가계획(the Plan)에서 유아교육을 확충하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였다. 이는 중국 정부가 유아교육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다는 반증으로서 향후 유아교육정책이 활발히 추진될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유아교육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1년간 등록률은 2009년 74%에서 2020년 9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2년, 3년 등록률도 각각 2009년 65%에서 80%, 50.9%에서 70%로 높이겠다는 계획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유아 육아지원기관 등록률 제고 정책은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가진 국가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수립한 미래 유아교육정책에 한국이 정책적 방향이나 내용 측면 등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 역시 정책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한 국가이고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체제 속에서 보편적 복지체제를 확대하고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유아교육 분야에서 양국이 상부상조할 수 있는 정책적 공통분모를 모

12. 연변자치주 조선족 유치원은 대부분 개방 초기 한국 기관과 협력하고 프로그램 등은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됨.

색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류는 국책연구소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적절하다 하겠다.

### 3) 재외동포 교육 문화교류 확대

영유아에 한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조선족 자녀를 위한 지원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재외동포교류 협력사업 중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강화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이미 이주민 및 다문화정책의 실행에 있어 자국의 거주민 대상 정책을 넘어 해외의 자국민 네트워크 및 동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해당국 문화교류사업 등으로 그 정책 대상과 내용에 있어 지역적, 민족적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중국 국적이라고는 하나, 여전히 한국적 뿌리를 지키며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 동포와의 교류 및 지원의 활성화는 단순히 동포지원의 차원을 넘어선,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육성은 물론 중국에의 문화·역사적 접근이라는 무형의 소프트웨어적 자산을 키워가는 중요한 과제이다. 조선족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조선족에의 지원 및 그들과의 교류는 국적과 지역을 넘어선 한인네트워크의 시각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녀에의 높은 교육열을 가진 중국 및 중국동포 사회의 높은 요구(needs) 고려하여 교육과 문화적 콘텐츠로 접근을 하고, 특히 영유아기 및 학동기 자녀를 둔 젊은 부모와 아이들을 우선적 대상으로 하는 지원 및 교류체계의 마련은 매우 유의하다 하겠다.

따라서, 재외동포재단법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 및 홍보사업, 우수 재외동포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재외동포에 대한 모국어·민족문화 교육사업,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 문화공연·홍보사업, 재외동포의 공익·문화시설설립의 지원 등의 사업을 내용과 보급, 빈도면에서 강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사업을 중국 조선족을 대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과 같은 직접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외에, 한국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접점과 체험의 기회를 높이는 간접적 지원의 일환으로, 재외동포 사회에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모국어 백일장이나 사생대회와 같은 아동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확대하여 조선족 동포 자녀가 자연스럽게 한민족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재중 한국공관 산하의 교육원 및 문화원과 같은 산하기관의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국가주도의 정책수행 외에 민간차원의 자발적 교류, 그리고 산업계의 채용과 교육, 창업을 통한 접근과 조부모 및 부모의 요구를 고려한 가족단위에서의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의 마련은 이제는 동북3성과 북경·상해·광주와 같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현지 맞춤형으로 고안될 필요가 있다.

#### 4) 재외동포 밀집지역 교육·문화 지원기관 설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재외동포 교육 문화교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밀집지역에 한인 문화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고정 배치할 필요가 있다. 대도시 조선족 동포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문화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재외동포 모국어·민족문화 교육,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한다면, 동포들이 일상적 생활 속에서 한글과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친근감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린 연령부터 한국어나 한국문화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토요 한글학교와 같은 지속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서비스 가능한 공간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직접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겠으나, 중국의 국가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보다는 중국 진출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추

진하는 것이 더 수월한 접근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 [국내문헌]

- 구자역 외, “재외동포 교육실태 및 인재육성 방안 연구: 중국 조선민족교육의 실태 및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08.
- 김익기·이동훈,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 김정원·이혜영·배은주·허창수, “외국인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교육개발원」, 2005.
- 김정원,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 문제와 다문화 교육”, 「국회도서관보」, 43(5), 29-39, 2006.
- 노충래·홍진주,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서울경기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2006.
- 문형진, “한국내 조선족 노동자들의 갈등사례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2(1), 131-156, 2008.
- 박민정·박혜원, “자아개념, 애착, 교사 및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조선족 및 한족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3), 79-89, 2006.
- 박민정·박혜원, “조선족, 화교, 한족 그리고 한국아동의 기질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한

- 연구”, 『아동학회지』, 28(1), 129-145, 2007.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0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
- 서문희·이운진·김진경·최윤경·이정원·박금해, “중국 동포 자녀양육 지원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 설동훈·한건수·이란주,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 안병삼, “초국가적 이동현상에 따른 중국 조선족의 가족해체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52집, 153-177, 2009.
- 안화선, “한국 및 중국 조선족 기혼취업여성 생활만족도에 관한 비교연구”, 『서석사회과학논총』, 2(2), 315-340, 2009.
- 여수경, “한국체류 조선족의 갈등과 적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48, 243-277, 2005.
- 유길상,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정책』, 14(2), 242-279, 2007.
- 윤갑정·고은경·정계숙, “중국 연변 조선족 유아 양육 실체에 나타난 시대성과 민족성 이슈”, 『아동학회지』, 29(5), 31-50, 2008.
- 윤갑정·정계숙, “중국연변 조선족 별거가족과 동거가족 유아의 가족생활 경험”, 『아동학회지』, 28(4), 169-185, 2007.
- 윤진기·조흠학, “한국에 있어서 중국인근로자 고용확대의 필요성과 고용확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법적 검토”,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2, 19-69, 2007.
- 윤진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안”,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4, 47-73, 2009.
- 윤혜경·박혜원·권오식, “이중언어능력의 조선족 아동과 청소년의 한글, 한자, 한글·한자혼합문 형태의 덩이글 이해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30(2), 15-28, 2009.
- 원영미·박혜원·이귀옥, “유아의 기질과 가정환경 및 유아의 부적응행동 간의 관계: 연변 조선족과 한국 유아의 비교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311-333, 2004.

- 이시라·박혜원, “중국조선족 아동의 어머니와의 애착이 자아개념,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9), 109-127, 2005..
- 이혜경·한경구·전주상·한승준·정연정, “외국인정책 추진실적 평가체계 구축 방안.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사)한국이민학회』, 2009.
- 임연신·현온강,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및 양육태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1), 23-37, 2002.
- 전형배,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 저스티스, 109, 290-315, 2009.
- 정인섭·박정해·이철우·이호택, “무국적자 관리 및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09.
- 조경서·유준호·오승아,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양육과 교육실태”, 『유아교육학논집』, 11(3), 5-25, 2007.
- 조복희·이주연, “부모와 별거하는 중국조선족 아동의 생활환경과 적응문제”, 『아동학회지』, 26(4), 231-245, 2005.
- 조복희·이주연, “부모와 별거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과 적응문제”, 『아동학회지』, 27(4), 247-263, 2006.
- 조복희·이주연,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국 화교 아동의 문화접변 유형 및 학교적응 비교연구”, 『아동학회지』, 27(1), 95-111, 2006.
- 조복희·이진숙·한세영, “연변 조선족 아동의 가정환경, 내외통제성,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3), 91-104, 2005.
- 조혜영 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 천희영 외, “부모별거 초등학생의 별거경험 및 양육요인에 따른 사회·정서적 적응력 연구-연변조선족 아동과 한국아동 비교”, 『아동학회지』, 27(2), 101-126, 2006.

## [국외문헌]

Este, D., Sethi, S., & M. Charlebois, "Factors influencing the child-rearing practices of recently migrated

- Chinese and East Indian women with children from infancy to age six. Abstract submitted to Women's Status: Vision and Reality - Bridging East and West", New Dehli, India, 2000.
- Foss, G. F. A "Conceptual model for studying parenting behaviors in immigrant populations",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9(2), 74-87, 1996.
- Swick, K. J. "Cultural influences on parenting: Implications for parent educators",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12(2), 80-85, 1985.
- Zhou, X.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Development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5(1), 29-39, 2011.
- "Chinadaily Special coverage: China Family Planning Policy", China daily(September 2, 2009)

[웹사이트]

법제처 <http://www.law.go.kr>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http://www.iansan.net>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http://www.afwc.or.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중국 통계청 Statistical Communiqué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2010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 부록

---

부록 1. 부록 표

부록 2. 중국 자녀양육 실태조사 설문지

## 부록 1. 부록 표

〈부표 1〉 자녀에 대한 생각: 부모 되기는 가치 있는 일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1.5	2.0	-	3.0	-	4.0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7.3	9.5	4.5	10.1	6.0	12.9
대체로 찬성한다	61.2	56.7	62.0	60.3	67.0	46.5
전적으로 찬성한다	30.1	31.8	33.5	26.6	27.0	3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1.564(3)		na		na	
평균:(점)	3.20	3.18	3.29	3.11	3.21	3.16

na는  $\chi^2$  검정 부적절

〈부표 2〉 자녀에 대한 생각: 자녀 갖기는 사회에 대한 의무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4.3	4.0	1.5	7.0	2.0	5.9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24.1	30.8	19.5	28.6	35.0	26.7
대체로 찬성한다	53.9	54.2	57.5	50.3	51.0	57.4
전적으로 찬성한다	17.8	10.9	21.5	14.1	12.0	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6.411(3) <sup>#</sup>		14.706(3) <sup>**</sup>		na	
평균:(점)	2.85	2.72	2.99	2.71	2.73	2.71

<sup>\*\*</sup> p<. 01, <sup>#</sup> p< .1, na는  $\chi^2$  검정 부적절

## 〈부표 3〉 자녀에 대한 생각: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음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5.0	4.5	3.0	7.0	2.0	6.9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36.3	31.8	31.0	41.7	25.0	38.6
대체로 찬성한다	44.4	53.2	44.5	44.2	64.0	42.6
전적으로 찬성한다	14.3	10.4	21.5	7.0	9.0	1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4.594(3)		20.999(3)***		na	
평균:(점)	2.68	2.70	2.85	2.51	2.80	2.59

\*\*\*  $p < .001$ , na는  $\chi^2$  검정 부적절

## 〈부표 4〉 자녀에 대한 생각: 결혼해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음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12.5	6.5	9.0	16.1	3.0	9.9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41.4	42.8	36.0	46.7	29.0	56.4
대체로 찬성한다	36.6	41.3	41.5	31.7	54.0	28.7
전적으로 찬성한다	9.5	9.5	13.5	5.5	14.0	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5.521(3)		16.067(3)**		24.674(3)***	
평균:(점)	2.43	2.54	2.60	2.27	2.79	2.29

\*\*\*  $p < .001$ , \*\*  $p < .01$

## 〈부표 5〉 자녀 가치: 부부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줌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1.8	2.0	0.5	3.0	-	4.0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11.3	5.0	12.0	10.6	7.0	3.0
대체로 찬성한다	53.1	53.7	46.5	59.8	47.0	60.4
전적으로 찬성한다	33.8	39.3	41.0	26.6	46.0	3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6.963(3) <sup>#</sup>		na		na	
평균:(점)	3.19	3.30	3.28	3.10	3.39	3.22

#  $p < .1$ , na는  $\chi^2$  검정 부적절

## 〈부표 6〉 자녀 가치: 노년에 덜 외로움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2.5	2.0	2.0	3.0	-	4.0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17.3	19.4	16.5	18.1	24.0	14.9
대체로 찬성한다	55.6	50.2	53.0	58.3	53.0	47.5
전적으로 찬성한다	24.6	28.4	28.5	20.6	23.0	3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1.951(3)		3.591(3)		na	
평균:(점)	3.02	3.05	3.08	2.96	2.99	3.11

na는  $\chi^2$  검정 부적절

〈부표 7〉 자녀 가치: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10.0	9.5	8.5	11.6	3.0	15.8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48.4	50.7	38.5	58.3	50.0	51.5
대체로 찬성한다	33.8	34.3	42.0	25.6	42.0	26.7
전적으로 찬성한다	7.8	5.5	11.0	4.5	5.0	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1.215(3)		22.297(3)***		12.281(3)**	
평균:(점)	2.39	2.36	2.56	2.23	2.49	2.23

\*\*\* p&lt; .001, \*\* p&lt; .01

〈부표 8〉 자녀 가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함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9.8	8.0	7.0	12.6	4.0	11.9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35.3	48.3	34.5	36.2	59.0	37.6
대체로 찬성한다	44.4	34.3	44.0	44.7	29.0	39.6
전적으로 찬성한다	10.5	9.5	14.5	6.5	8.0	1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9.538(3)*		9.265(3)*		10.769(3)*	
평균:(점)	2.56	2.45	2.66	2.45	2.41	2.50

\* p&lt; .05

## 〈부표 9〉 성선후 태도: 대를 잇기 위해서는 아들이 필요함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26.3	23.4	17.0	35.7	22.0	24.8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41.4	54.2	42.0	40.7	52.0	56.4
대체로 찬성한다	25.8	18.4	30.5	21.1	22.0	14.9
전적으로 찬성한다	6.5	4.0	10.5	2.5	4.0	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9.966(3)*		26.441(3)***		na	
평균:(점)	2.13	2.03	2.35	1.90	2.08	1.98

\*\*\*  $p < .001$  \*  $p < .05$ , na는  $\chi^2$  검정 부적절

## 〈부표 10〉 성선후 태도: 남아에게 교육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함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29.1	27.9	19.0	39.2	28.0	27.7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35.8	50.2	35.0	36.7	51.0	49.5
대체로 찬성한다	24.8	19.4	32.0	17.6	20.0	18.8
전적으로 찬성한다	10.3	2.5	14.0	6.5	1.0	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19.168(3)***		27.836(3)***		na	
평균:(점)	2.16	1.97	2.41	1.91	1.94	1.99

\*\*\*  $p < .001$ , na는  $\chi^2$  검정 부적절

〈부표 11〉 조선족 지역별 한국 관련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바라지 않음	그다지 바라지 않음	대체로 바람	매우 바람	계(사례수)	$\chi^2(df)$
<b>조선족</b>						
한국과 관련된 일 하기						
북경	6.5	18.0	43.5	32.0	100.0(200)	91.7(3)***
연길	19.6	48.7	27.6	4.0	100.0(199)	
중국 소재 한국기업에서 일하기						
북경	6.5	18.5	43.5	31.5	100.0(200)	81.5(3)***
연길	18.1	45.7	32.7	3.5	100.0(199)	
한국에서 일하기.						
북경	11.0	23.5	34.5	31.0	100.0(200)	88.3(3)***
연길	28.6	50.8	16.1	4.5	100.0(199)	
한국사람과 결혼하기.						
북경	15.0	20.5	40.0	24.5	100.0(200)	113.6(3)***
연길	42.2	44.7	10.6	2.5	100.0(199)	
한국에서 공부하기.						
북경	7.0	18.5	43.5	31.0	100.0(200)	67.2(3)***
연길	25.6	39.2	25.1	10.1	100.0(199)	
<b>한족</b>						
한국과 관련된 일 하기.						
북경	31.0	44.0	25.0	-	100.0(100)	na
연길	22.8	44.6	30.7	2.0	100.0(101)	
중국 소재 한국기업에서 일하기						
북경	31.0	42.0	27.0	-	100.0(100)	na
연길	16.8	42.6	37.6	3.0	100.0(101)	
한국에서 일하기.						
북경	41.0	45.0	14.0	-	100.0(100)	na
연길	22.8	51.5	22.8	3.0	100.0(101)	
한국사람과 결혼하기.						
북경	53.0	40.0	7.0	-	100.0(100)	na
연길	36.6	54.5	7.9	1.0	100.0(101)	
한국에서 공부하기.						
북경	33.0	41.0	26.0	-	100.0(100)	14.7(3)**
연길	20.8	41.6	25.7	11.9	100.0(101)	

\*\*\* p< .001, \*\* p<. 01, na는  $\chi^2$  검정 부적절

## 〈부표 12〉 자녀의 장래 기대: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9.5	6.0	2.5	16.6	1.0	10.9
별로 개의치 않음	21.1	45.8	19.5	22.6	39.0	52.5
다소 바람	43.4	34.8	37.5	49.2	41.0	28.7
매우 원함	26.1	13.4	40.5	11.6	19.0	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42.040(3)***		56.462(3)***		16.998(3)**	
평균:(점)	2.86	2.56	3.16	2.56	2.78	2.34

\*\*\* p&lt; .001, \*\* p&lt; . 01

## 〈부표 13〉 자녀의 장래 기대: 명성을 얻거나 유명한 사람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10.5	10.4	6.0	15.1	7.0	13.9
별로 개의치 않음	26.1	50.7	24.5	27.6	41.0	60.4
다소 바람	41.9	23.9	39.0	44.7	29.0	18.8
매우 원함	21.6	14.9	30.5	12.6	23.0	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38.805(3)***		23.852(3)***		16.867(3)**	
평균:(점)	2.74	2.43	2.94	2.55	2.68	2.19

\*\*\* p&lt; .001, \*\* p&lt; . 01

## 〈부표 14〉 자녀의 장래 기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6.3	6.0	2.0	10.6	1.0	10.9
별로 개의치 않음	18.0	30.3	14.0	22.1	17.0	43.6
다소 바람	42.1	39.8	34.0	50.3	48.0	31.7
매우 원함	33.6	23.9	50.0	17.1	34.0	1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13.467(3)**		53.716(3)***		31.813(3)***	
평균:(점)	3.03	2.82	3.32	2.74	3.15	2.49

\*\*\* p&lt; .001, \*\* p&lt; . 01

## 〈부표 15〉 자녀의 장래 기대: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는 사람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0.3	1.0	-	0.5	-	2.0
별로 개의치 않음	2.8	4.0	3.0	2.5	1.0	6.9
다소 바람	48.4	52.7	40.5	56.3	63.0	42.6
매우 원함	48.6	42.3	56.5	40.7	36.0	48.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평균:(점)	3.45	3.36	3.54	3.37	3.35	3.38

〈부표 16〉 자녀의 장래 기대: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	0.5	-	-	-	1.0
별로 개의치 않음	0.3	0.5	-	0.5	-	1.0
다소 바람	26.6	20.4	17.5	35.7	23.0	17.8
매우 원함	73.2	78.6	82.5	63.8	77.0	8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평균:(점)	3.73	3.77	3.83	3.63	3.77	3.77

〈부표 17〉 자녀의 장래 기대: 취미·여가 즐기기 아는 사람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1.5	0.5	-	3.0	-	1.0
별로 개의치 않음	4.0	8.5	4.0	4.0	4.0	12.9
다소 바람	46.6	44.8	42.5	50.8	51.0	38.6
매우 원함	47.9	46.3	53.5	42.2	45.0	4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평균:(점)	3.41	3.37	3.50	3.32	3.41	3.33

〈부표 18〉 자녀의 장래 기대 - 1순위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 및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돈을 많이 버는 사람	8.5	3.0	12.0	5.0	5.0	1.0
명성을 얻거나 유명한 사람	7.3	3.0	12.5	2.0	6.0	-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	14.8	13.9	18.0	11.6	21.0	6.9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는 사람	18.3	10.9	13.5	23.1	7.0	14.9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	47.1	62.7	39.0	55.3	54.0	71.3
취미·여가를 즐길 줄 아는 사람	4.0	6.5	5.0	3.0	7.0	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22.8(5)***		35.2(5)***		na	

\*\*\* p < .001, na는  $\chi^2$  검정 부적절

〈부표 19〉 자녀의 장래 기대 - 2순위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 및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돈을 많이 버는 사람	9.5	8.0	14.5	4.5	10.0	5.9
명성을 얻거나 유명한 사람	6.0	5.0	6.5	5.5	8.0	2.0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	17.3	12.4	25.0	9.5	16.0	8.9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는 사람	22.1	22.4	18.5	25.6	18.0	26.7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	25.1	17.4	21.5	28.6	16.0	18.8
취미·여가를 즐길 줄 아는 사람	20.1	34.8	14.0	26.1	32.0	3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17.8(5)**		36.0(5)***		9.1(5)	

\*\*\* p &lt; .001, \*\* p &lt; .01

〈부표 20〉 한국 관련: 한국과 관련된 일 하기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바라지 않음	13.0	26.9	6.5	19.6	31.0	22.8
그다지 바라지 않음	33.3	44.3	18.0	48.7	44.0	44.6
대체로 바람	35.6	27.9	43.5	27.6	25.0	30.7
매우 바람	18.0	1.0	32.0	4.0	-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52.731(3)***		91.742(3)***		na	
평균:(점)	2.65	2.15	3.01	2.16	1.94	2.12

\*\*\*  $p < .001$ , na는  $\chi^2$  검정 부적절

〈부표 21〉 한국 관련: 중국 소재 한국기업에서 일하기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바라지 않음	12.3	23.9	6.5	18.1	31.0	16.8
그다지 바라지 않음	32.1	42.3	18.5	45.7	42.0	42.6
대체로 바람	38.1	32.3	43.5	32.7	27.0	37.6
매우 바람	17.5	1.5	31.5	3.5	-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44.579(3)***		81.559(3)***		na	
평균:(점)	2.65	2.23	3.00	2.22	1.96	2.27

\*\*\*  $p < .001$ , na는  $\chi^2$  검정 부적절

〈부표 22〉 한국 관련: 한국에서 일하기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바라지 않음	19.8	31.8	11.0	28.6	41.0	22.8
그다지 바라지 않음	37.1	48.3	23.5	50.8	45.0	51.5
대체로 바람	25.3	18.4	34.5	16.1	14.0	22.8
매우 바람	17.8	1.5	31.0	4.5	-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43.786(3)***		88.325(3)***		na	
평균:(점)	2.48	2.00	2.86	1.96	1.73	2.06

\*\*\*  $p < .001$ , na는  $\chi^2$  검정 부적절

〈부표 23〉 한국 관련: 한국사람과 결혼하기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바라지 않음	28.6	44.8	15.0	42.2	53.0	36.6
그다지 바라지 않음	32.6	47.3	20.5	44.7	40.0	54.5
대체로 바람	25.3	7.5	40.0	10.6	7.0	7.9
매우 바람	13.5	0.5	24.5	2.5	-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64.818(3)***		113.617(3)***		na	
평균:(점)	2.34	1.73	2.74	1.73	1.54	1.73

\*\*\*  $p < .001$ , na는  $\chi^2$  검정 부적절

〈부표 24〉 한국 관련: 한국에서 공부하기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바라지 않음	16.3	26.9	7.0	25.6	33.0	20.8
그다지 바라지 않음	28.8	41.3	18.5	39.2	41.0	41.6
대체로 바람	34.3	25.9	43.5	25.1	26.0	25.7
매우 바람	20.6	6.0	31.0	10.1	-	1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35.017(3)***		67.182(3)***		14.674(3)**	
평균:(점)	2.63	2.23	2.99	2.20	1.93	2.29

\*\*\* p&lt; .001, \*\* p&lt;. 01

〈부표 25〉 양육분담: 밥 먹고 옷 있는 것

단위: %, 점(명)

구분		전적 남편	대부분 남편	부부 공동	대부분 부인	전적 부인	다른 사람	계(사례수)	$\chi^2(df)$	
자녀민족	조선족	0.3	3.5	30.1	48.6	13.8	3.8	100.0(399)	6.120(5)	
	한족	-	1.0	27.9	50.7	13.9	6.5	100.0(201)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북경	-	1.0	20.0	56.5	19.5	3.0	100.0(200)	36.970(5)* **
		연길	0.5	6.0	40.2	40.7	8.0	4.5	100.0(199)	
	한족	북경	-	-	15.0	60.0	17.0	8.0	100.0(100)	na
		연길	-	2.0	40.6	41.6	10.9	5.0	100.0(101)	

\*\*\* p< .001, na는  $\chi^2$  검정 부적절

〈부표 26〉 양육분담: 함께 놀아주기

단위: %, 점(명)

구분		전적 남편	대부분 남편	부부 공동	대부분 부인	전적 부인	다른 사람	계(사례수)	$\chi^2(df)$	
자녀 민족	조선족	0.3	5.0	53.9	30.1	8.3	2.5	100.0(399)	6.968(5)	
	한족	-	5.5	47.8	37.8	5.0	4.0	100.0(201)		
자녀 민족 과	조선족	북경	-	3.0	43.5	40.0	11.5	2.0	100.0(200)	na
		연길	0.5	7.0	64.3	20.1	5.0	3.0	100.0(199)	
지역	한족	북경	-	3.0	38.0	48.0	4.0	7.0	100.0(100)	na
		연길	-	7.9	57.4	27.7	5.9	1.0	100.0(101)	

na는  $\chi^2$  검정 부적절

〈부표 27〉 양육분담: 아플 때 돌봐주기

단위: %, 점(명)

구분		전적 남편	대부분 남편	부부 공동	대부분 부인	전적 부인	다른 사람	계(사례수)	$\chi^2(df)$	
자녀 민족	조선족	-	3.3	57.9	31.8	3.8	3.3	100.0(399)	8.455(5)	
	한족	0.5	1.5	67.7	24.4	3.5	2.5	100.0(201)		
자녀 민족 과	조선족	북경	-	2.5	50.0	42.5	3.5	1.5	100.0(200)	23.245(4) ***
		연길	-	4.0	65.8	21.1	4.0	5.0	100.0(199)	
지역	한족	북경	-	-	71.0	24.0	3.0	2.0	100.0(100)	na
		연길	1.0	3.0	64.4	24.8	4.0	3.0	100.0(101)	

\*\*\*  $p < .001$ , na는  $\chi^2$  검정 부적절

〈부표 28〉 양육분담: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

단위: %, 점(명)

구분		전적 남편	대부분 남편	부부 공동	대부분 부인	전적 부인	다른 사람	계(사례수)	$\chi^2(df)$	
자녀 민족	조선족	0.5	8.3	43.4	36.8	8.0	3.0	100.0(399)	6.604(5)	
	한족	1.0	6.0	37.3	46.8	7.0	2.0	100.0(201)		
자녀 민족 과 지역	조선족	북경연길	0.5	10.5	40.0	37.0	11.5	0.5	100.0(200)	17.894(5) **
		연길	0.5	6.0	46.7	36.7	4.5	5.5	100.0(199)	
	한족	북경연길	-	5.0	31.0	53.0	9.0	2.0	100.0(100)	na
		연길	2.0	6.9	43.6	40.6	5.0	2.0	100.0(101)	

\*\* p<. 01, na는  $\chi^2$  검정 부적절

〈부표 29〉 양육분담: 보육시설, 유치원 등하교 시키기

단위: %, 점(명)

구분		전적 남편	대부분 남편	부부 공동	대부분 부인	전적 부인	다른 사람	계(사례수)	$\chi^2(df)$	
자녀 민족	조선족	1.0	9.8	39.6	36.1	8.0	5.5	100.0(399)	5.869(5)	
	한족	1.0	9.0	31.3	40.8	9.0	9.0	100.0(201)		
자녀 민족 과 지역	조선 족	북경	1.5	6.5	38.5	37.5	10.5	5.5	100.0(200)	8.807(5)
		연길	0.5	13.1	40.7	34.7	5.5	5.5	100.0(199)	
	한족	북경	1.0	2.0	19.0	55.0	12.0	12.0	100.0(100)	33.255(5) ***
		연길	1.0	15.8	43.6	26.7	5.9	6.9	100.0(101)	

\*\*\* p&lt; .001

〈부표 30〉 부부 성 역할 태도: 남편은 직업, 아내는 가정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9.5	5.5	8.0	11.1	5.0	5.9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29.1	31.8	25.5	32.7	33.0	30.7
대체로 찬성한다	50.9	49.3	55.0	46.7	50.0	48.5
전적으로 찬성한다	10.5	13.4	11.5	9.5	12.0	1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4.079(3)		4.439(3)		0.492(3)	
평균:(점)	2.62	2.71	2.70	2.55	2.69	2.72

〈부표 31〉 부부 성 역할 태도: 취업모도 자녀와의 관계 잘 유지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0.5	1.5	1.0	-	-	3.0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9.0	6.0	11.5	6.5	5.0	6.9
대체로 찬성한다	65.7	67.2	57.0	74.4	72.0	62.4
전적으로 찬성한다	24.8	25.4	30.5	19.1	23.0	27.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평균:(점)	3.15	3.16	3.17	3.13	3.18	3.15

〈부표 32〉 부부 성 역할 태도: 맞벌이 부부도 가족 생계는 남편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7.3	8.5	5.5	9.0	6.0	10.9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36.8	47.8	35.5	38.2	45.0	50.5
대체로 찬성한다	46.9	33.8	47.0	46.7	33.0	34.7
전적으로 찬성한다	9.0	10.0	12.0	6.0	16.0	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9.650(3)*		5.863(3)		9.100(3)*	
평균:(점)	2.58	2.45	2.66	2.50	2.59	2.32

\*  $p < .05$ 

〈부표 33〉 부부 성 역할 태도: 남편도 자녀를 잘 돌볼 수 있음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1.0	2.5	1.5	0.5	1.0	4.0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14.8	22.9	18.0	11.6	20.0	25.7
대체로 찬성한다	62.4	55.2	58.5	66.3	58.0	52.5
전적으로 찬성한다	21.8	19.4	22.0	21.6	21.0	1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8.491(3)*		na		na	
평균:(점)	3.05	2.92	3.01	3.09	2.99	2.84

\*  $p < .05$ , na는  $\chi^2$  검정 부적절

〈부표 34〉 부부 성 역할 태도: 노인을 돌보는 일은 아내가 더 잘함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3.5	3.5	1.5	5.5	4.0	3.0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20.1	21.9	21.0	19.1	14.0	29.7
대체로 찬성한다	63.9	55.7	59.0	68.8	66.0	45.5
전적으로 찬성한다	12.5	18.9	18.5	6.5	16.0	2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X^2(df)$	5.387(3)		17.705(3)**		na	
평균:(점)	2.85	2.90	2.95	2.76	2.94	2.86

\*\* p<. 01, na는  $X^2$  검정 부적절

〈부표 35〉 자녀양육시 중요도: 몸을 튼튼히 하기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중요치 않음	0.5	-	-	1.0	-	-
별로 중요치 않음	-	-	-	-	-	-
비교적 중요	20.8	10.9	7.5	34.2	8.0	13.9
매우 중요	78.7	89.1	92.5	64.8	92.0	8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X^2(df)$	na		na		1.771(1)	
평균:(점)	3.78	3.89	3.93	3.63	3.92	3.86

\*\* p<. 01, na는  $X^2$  검정 부적절

〈부표 36〉 자녀양육시 중요도: 기본생활습관 익히기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중요치 않음	0.3	-	-	0.5	-	-
별로 중요치 않음	1.0	2.0	-	2.0	2.0	2.0
비교적 중요	38.6	33.8	29.0	48.2	38.0	29.7
매우 중요	60.2	64.2	71.0	49.2	60.0	68.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평균:(점)	3.59	3.62	3.71	3.46	3.58	3.66

〈부표 37〉 자녀양육시 중요도: 숫자와 글자 익히기(기본학습)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중요치 않음	-	-	-	-	-	-
별로 중요치 않음	5.5	5.5	1.0	10.1	4.0	6.9
비교적 중요	53.4	47.3	49.5	57.3	48.0	46.5
매우 중요	41.1	47.3	49.5	32.7	48.0	46.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X^2(df)$	2.151(2)		22.830(2)***		0.834(2)	
평균:(점)	3.36	3.42	3.49	3.23	3.44	3.40

\*\*\* p &lt; .001

〈부표 38〉 자녀양육시 중요도: 영어 등 외국어 배우기 (한국어, 중국어 제외)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중요치 않음	0.3	1.0	-	0.5	-	2.0
별로 중요치 않음	12.5	11.4	6.0	19.1	11.0	11.9
비교적 중요	51.6	56.2	45.5	57.8	60.0	52.5
매우 중요	35.6	31.3	48.5	22.6	29.0	3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평균:(점)	3.23	3.18	3.43	3.03	3.18	3.18

〈부표 39〉 자녀양육시 중요도: 한국어 배우기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중요치 않음	0.5	10.0	-	1.0	18.0	2.0
별로 중요치 않음	13.0	46.3	4.5	21.6	51.0	41.6
비교적 중요	45.1	29.4	39.5	50.8	24.0	34.7
매우 중요	41.4	14.4	56.0	26.6	7.0	2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131.949(3)***		na		23.476(3)***	
평균:(점)	3.27	2.48	3.52	3.03	2.20	2.76

\*\*\*  $p < .001$ , na는  $\chi^2$  검정 부적절

## 〈부표 40〉 자녀양육시 중요도: 중국어 배우기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중요치 않음	-	-	-	-	-	-
별로 중요치 않음	6.0	9.0	1.0	11.1	10.0	7.9
비교적 중요	46.9	52.2	41.5	52.3	60.0	44.6
매우 중요	47.1	38.8	57.5	36.7	30.0	4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4.526(2)		28.406(2)***		6.514(2)*	
평균:(점)	3.41	3.30	3.57	3.26	3.20	3.40

\*\*\* p &lt; .001, \* p &lt; .05

## 〈부표 41〉 자녀양육시 중요도: 음악, 미술, 체조 등 예술적 재능 키우기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중요치 않음	0.3	0.5	0.5	-	-	1.0
별로 중요치 않음	9.0	14.4	8.0	10.1	11.0	17.8
비교적 중요	60.2	52.2	56.0	64.3	55.0	49.5
매우 중요	30.6	32.8	35.5	25.6	34.0	3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평균:(점)	3.21	3.17	3.27	3.16	3.23	3.12

〈부표 42〉 자녀양육시 중요도 - 1순위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몸을 튼튼히 하기	70.7	75.6	67.0	74.4	70.0	81.2
기본생활습관 익히기	12.3	9.0	14.5	10.1	9.0	8.9
숫자와 글자 익히기	5.0	9.0	5.0	5.0	14.0	4.0
영어 등 외국어 배우기	2.3	4.0	3.0	1.5	6.0	2.0
한국어 배우기	6.3	-	8.0	4.5	-	-
중국어 배우기	1.8	1.0	1.5	2.0	-	2.0
예체능 재능 키우기	1.8	1.5	1.0	2.5	1.0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X^2(df)$	19.6(6)**		na		na	

\*\* p< .01, na는  $X^2$  검정 부적절

〈부표 43〉 자녀양육시 중요도 - 2순위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몸을 튼튼히 하기	14.5	15.4	21.0	8.0	19.0	11.9
기본생활습관 익히기	44.1	46.3	40.5	47.7	37.0	55.4
숫자와 글자 익히기	16.8	15.9	11.5	22.1	17.0	14.9
영어 등 외국어 배우기	6.8	4.5	10.5	3.0	6.0	3.0
한국어 배우기	7.3	2.0	6.5	8.0	3.0	1.0
중국어 배우기	7.0	7.0	8.5	5.5	8.0	5.9
예체능 재능 키우기	3.5	9.0	1.5	5.5	10.0	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X^2(df)$	15.6(6)*		33.8(6)***		na	

\*\*\* p< .001, \* p< .05, na는  $X^2$  검정 부적절

## 〈부표 44〉 자녀양육 태도: 자녀와 격의 없이 즐거움을 나누는 편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0.3	-	-	0.5	-	-
별로 개의치 않음	1.5	3.0	-	3.0	1.0	5.0
다소 바람	61.4	59.7	59.5	63.3	67.0	52.5
매우 원함	36.8	37.3	40.5	33.2	32.0	4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평균:(점)	3.35	3.34	3.41	3.29	3.31	3.38

## 〈부표 45〉 자녀양육 태도: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느낌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0.3	-	-	0.5	-	-
별로 개의치 않음	9.3	5.5	6.5	12.1	5.0	5.9
다소 바람	55.6	68.7	48.0	63.3	61.0	76.2
매우 원함	34.8	25.9	45.5	24.1	34.0	1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na		na		6.864(2)*	
평균:(점)	3.25	3.20	3.39	3.11	3.29	3.12

\*  $p < .05$ , na는  $\chi^2$  검정 부적절

〈부표 46〉 자녀양육 태도: 외락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침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9.8	3.0	6.5	13.1	1.0	5.0
별로 개의치 않음	50.4	47.8	46.0	54.8	41.0	54.5
다소 바람	33.6	40.3	38.5	28.6	45.0	35.6
매우 원함	6.3	9.0	9.0	3.5	13.0	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X^2(df)$	11.431(3)		13.594(3)**		na	
평균:(점)	2.36	2.55	2.50	2.23	2.70	2.41

\*\*  $p < .01$ , na는  $X^2$  검정 부적절

〈부표 47〉 자녀양육 태도: 잘못된 행동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편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15.8	11.4	9.0	22.6	6.0	16.8
별로 개의치 않음	35.6	47.3	25.0	46.2	45.0	49.5
다소 바람	39.8	36.8	55.0	24.6	42.0	31.7
매우 원함	8.8	4.5	11.0	6.5	7.0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X^2(df)$	10.052(3)*		49.709(3)***		na	
평균:(점)	2.42	2.34	2.68	2.15	2.50	2.19

\*\*\*  $p < .001$ , \*  $p < .05$ , na는  $X^2$  검정 부적절

## 〈부표 48〉 자녀양육 태도: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게 하는 편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5.3	2.0	3.0	7.5	1.0	3.0
별로 개의치 않음	22.8	24.9	10.5	35.2	26.0	23.8
다소 바람	51.4	63.2	54.5	48.2	59.0	67.3
매우 원함	20.6	10.0	32.0	9.0	14.0	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15.883(3)**		56.869(3)***		na	
평균:(점)	2.87	2.81	3.16	2.59	2.86	2.76

\*\*\*  $p < .001$ , \*\*  $p < .01$ , na는  $\chi^2$  검정 부적절

## 〈부표 49〉 자녀양육 태도: 부모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필요는 없음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5.5	1.5	4.5	6.5	3.0	-
별로 개의치 않음	31.1	23.4	22.0	40.2	16.0	30.7
다소 바람	49.6	63.2	54.5	44.7	69.0	57.4
매우 원함	13.8	11.9	19.0	8.5	12.0	1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12.847(3)**		21.215(3)***		na	
평균:(점)	2.72	2.86	2.88	2.55	2.90	2.81

\*\*\*  $p < .001$ , \*\*  $p < .01$ , na는  $\chi^2$  검정 부적절

〈부표 50〉 자녀양육 태도: 자녀 일을 감시하고 제한할 필요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7.3	7.5	7.5	7.0	4.0	10.9
별로 개의치 않음	31.8	46.3	31.0	32.7	46.0	46.5
다소 바람	52.9	39.8	48.5	57.3	43.0	36.6
매우 원함	8.0	6.5	13.0	3.0	7.0	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12.753(3)**		13.973(3)**		3.799(3)	
평균:(점)	2.62	2.45	2.67	2.56	2.53	2.38

\*\* p&lt;. 01

〈부표 51〉 자녀양육 태도: 규칙, 규율을 엄격히 세우고 지키도록 함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4.0	4.0	4.0	4.0	3.0	5.0
별로 개의치 않음	22.8	46.8	22.5	23.1	59.0	34.7
다소 바람	58.6	37.8	53.5	63.8	34.0	41.6
매우 원함	14.5	11.4	20.0	9.0	4.0	1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37.064(3)***		10.063(3)*		na	
평균:(점)	2.84	2.57	2.90	2.78	2.39	2.74

\*\*\* p< .001, \* p< .05, na는  $\chi^2$  검정 부적절

## 〈부표 52〉 자녀양육 정서: 아이를 키우면서 내 자신도 성장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그렇지 않음	2.8	0.5	3.0	2.5	-	1.0
별로 그렇지 않음	19.5	11.9	17.0	22.1	7.0	16.8
약간 그렇다	45.6	50.7	50.5	40.7	64.0	37.6
매우 그렇다	32.1	36.8	29.5	34.7	29.0	4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9.598(3)*		4.350(3)		na	
평균:(점)	3.07	3.24	3.07	3.08	3.22	3.26

\*  $p < .05$ , na는  $\chi^2$  검정 부적절

## 〈부표 53〉 자녀양육 정서: 아이양육이 혼란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그렇지 않음	15.5	26.4	12.0	19.1	25.0	27.7
별로 그렇지 않음	38.3	35.8	32.5	44.2	32.0	39.6
약간 그렇다	37.1	26.4	41.0	33.2	23.0	29.7
매우 그렇다	9.0	11.4	14.5	3.5	20.0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13.791(3)**		21.791(3)***		14.544(3)**	
평균:(점)	2.40	2.23	2.58	2.21	2.38	2.08

\*\*\*  $p < .001$ , \*\*  $p < .01$

〈부표 54〉 자녀양육 정서: 아이를 키우면서 참고만 사는 것 같다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그렇지 않음	23.3	30.8	19.0	27.6	27.0	34.7
별로 그렇지 않음	37.3	31.3	31.5	43.2	24.0	38.6
약간 그렇다	28.6	30.3	33.5	23.6	40.0	20.8
매우 그렇다	10.8	7.5	16.0	5.5	9.0	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5.965(3)		20.420(3)***		11.117(3)*	
평균:(점)	2.27	2.14	2.47	2.07	2.31	1.98

\*\*\*  $p < .001$ , \*  $p < .05$ 

〈부표 55〉 자녀양육 정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그렇지 않음	2.0	0.5	2.0	2.0	1.0	-
별로 그렇지 않음	9.8	6.0	14.0	5.5	3.0	8.9
약간 그렇다	44.1	44.8	46.5	41.7	57.0	32.7
매우 그렇다	44.1	48.8	37.5	50.8	39.0	58.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4.946(3)		na		na	
평균:(점)	3.30	3.42	3.20	3.41	3.34	3.50

na는  $\chi^2$  검정 부적절

〈부표 56〉 자녀양육 정서: 아이가 장래에 잘 성장할 지 걱정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그렇지 않음	13.0	15.9	7.0	19.1	20.0	11.9
별로 그렇지 않음	23.3	22.4	22.5	24.1	18.0	26.7
약간 그렇다	35.6	40.3	41.5	29.6	49.0	31.7
매우 그렇다	28.1	21.4	29.0	27.1	13.0	2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chi^2(df)$	3.950(3)		15.370(3)**		14.084(3)**	
평균:(점)	2.79	2.67	2.93	2.65	2.55	2.79

\*\* p&lt;. 01

〈부표 57〉 만족도: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매우 불만족	1.3	0.5	0.5	2.0	-	1.0
별로 만족하지 않음	4.0	7.0	3.5	4.5	4.0	9.9
약간 만족	74.9	74.6	78.0	71.9	83.0	66.3
매우 만족	19.8	17.9	18.0	21.6	13.0	2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평균:(점)	3.13	3.10	3.14	3.13	3.09	3.11

〈부표 58〉 만족도: 현재 자녀 성장모습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매우 불만족	0.3	1.5	0.5	-	-	3.0
별로 만족하지 않음	3.5	2.5	2.0	5.0	1.0	4.0
약간 만족	65.9	65.7	65.0	66.8	66.0	65.3
매우 만족	30.3	30.3	32.5	28.1	33.0	27.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99)	(201)	(200)	(199)	(100)	(101)
평균:(점)	3.26	3.25	3.30	3.23	3.32	3.18

〈부표 59〉 기관 선택시 중요 기준 - 1순위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집과의거리	16.9	15.4	25.2	11.0	19.0	12.5
비용	3.2	6.9	3.9	2.8	12.1	2.8
프로그램	2.8	1.5	3.9	2.1	-	2.8
원장/교사의 자질	51.6	59.2	44.7	56.6	44.8	70.8
시설/설비	11.7	8.5	14.6	9.7	12.1	5.6
급/간식	6.0	1.5	5.8	6.2	1.7	1.4
주변의 평판	5.6	6.2	1.0	9.0	8.6	4.2
운영시간	2.0	0.8	1.0	2.8	1.7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248)	(130)	(103)	(145)	(58)	(72)
$\chi^2(df)$	9.793(7)		-		-	

## 〈부표 60〉 기관 선택시 중요 기준 - 2순위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집과의거리	16.9	16.4	26.2	8.3	37.9	19.4
비용	3.2	4.5	10.7	8.3	10.3	6.9
프로그램	2.8	2.4	4.9	8.3	5.2	5.6
원장/교사의 자질	51.6	54.2	13.6	13.8	15.5	8.3
시설/설비	11.7	10.6	32.0	20.7	12.1	40.3
급/간식	6.0	4.5	3.9	17.2	6.9	2.8
주변의 평판	5.6	5.8	6.8	20.7	5.2	12.5
운영시간	2.0	1.6	1.9	2.1	6.9	4.2
기타	-	-	-	0.7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248)	(130)	(103)	(145)	(58)	(72)
$\chi^2(df)$	17.306(8)*		-		-	

\* p&lt; .05

## **부록 2. 중국 부모조사 설문지**

지역	일련번호	아동번호

## 중국 자녀가치 및 양육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이번에 중국동포와 한족을 대상으로 「중국 자녀 가치 및 양육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동포와 중국 한족이 한국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양육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연구 외의 다른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5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연구소  
 「중국 동포 자녀 가치 및 양육 실태 연구: 한족과 조선족 비교」 연구팀  
 최윤경 부연구위원 ☎ 02) 398-7706, FAX 02) 730-3317  
 e-mail: ykchoi@kicce.re.kr

## 육아정책연구소

\*면접 종료 후 기록할 것

응답자 성명		지역	1) 북경 2) 연변
거주지 주소	할 것	연락처	
미취학 큰자녀 연령	_____세	응답자의 민족	1) 조선족 2) 한족

본 조사는 면접 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_____	S/V 확인 _____	검증원 확인 _____
----------------------------------	-----------------	-----------------	-----------------

**SQ. 선정 질문**

- SQ1. 귀하께서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1) 결혼함                      2) 결혼 안함 -> 조사 중단  
 SQ2. 귀하께서는 미취학 자녀가 있으십니까? 1) 있음                      2) 없음 -> 조사 중단

**I. 부모 및 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 A1. 귀댁의 총자녀수와 미취학자녀수는 몇명입니까?  
 1) 총 자녀수 \_\_\_\_\_명 / 2) 미취학 자녀수 \_\_\_\_\_명  
 A2. 자녀와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을 표시해 주세요.

1) 조모	① 동거              ② 비동거              ③ 부재
2) 조부	① 동거              ② 비동거              ③ 부재
3) 부	① 동거              ② 취업사유 비동거              ③ 기타사유 비동거              ④ 부재(이혼/사망)
4) 모	① 동거              ② 취업사유 비동거              ③ 기타사유 비동거              ④ 부재(이혼/사망)

**II.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영유아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미취학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가장 나이가 많은 아동(이름: \_\_\_\_\_)을 중심으로 답변합니다.)

- B1. 자녀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_\_\_\_\_세  
 B2. 자녀의 민족을 표시해 주세요. (※ 호적에 기재된 자녀의 민족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① 조선족                                      ② 한족                                      ③ 기타(\_\_\_\_\_)  
 B3. 자녀의 성별을 표시해 주세요.    ① 남자                                      ② 여자  
 B4. 자녀가 한국에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B5. 자녀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주 양육자)은 다음 중 누구입니까?  
 ① 모→C1으로 가시오                      ② 부→C1으로 가시오                      ③ 부모의 형제자매  
 ④ 친조부모                                      ⑤ 외조부모                                      ⑥ 기타 친인척  
 ⑦ 비혈연                                      ⑧ 혼자 지냄                                      ⑨ 기타 (누구 : \_\_\_\_\_)

B5-1.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닐 경우, 비용을 지불합니까?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월평균 얼마를 지불합니까? (위안화)  
 ※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0을 기록합니다. \_\_\_\_\_원





D2. 자녀를 기르면서 다음 각각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표시해 주세요.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비교적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몸을 튼튼히 하기	1	2	3	4
2) 기본생활습관 익히기 (예: 규칙적인 기상/취침, 바른 식사예절 등)	1	2	3	4
3) 숫자와 글자 익히기(기본학습)	1	2	3	4
4) 영어 등 외국어 배우기 (한국어, 중국어 제외)	1	2	3	4
5) 한국어 배우기	1	2	3	4
6) 중국어 배우기	1	2	3	4
7) 음악, 미술, 체조 등 예술적 재능 키우기	1	2	3	4

D2-1. 위의 보기 1)~6)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번호를 기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D3. 자녀의 장래에 대하여 귀하가 부모로서 어느 정도를 기대하십니까?  
해당되는 칸에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항목	전혀 개의치 않는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	다소 바란다	매우 원한다
1)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	1	2	3	4
2) 명성을 얻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1	2	3	4
3)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기 바란다	1	2	3	4
4)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	1	2	3	4
5)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이 되기 바란다	1	2	3	4
6) 취미나 여가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	1	2	3	4

D3-1. 위의 보기 1)~6)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번호를 기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D4. 자녀 양육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표시해 주세요.

항목	전혀 개의치 않는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	다소 바란다	매우 원한다
1) 자녀와 격의없이 지내며 즐거움을 나누는 편이다	1	2	3	4
2) 자녀의 필요와 관심을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느껴본 적이 있다	1	2	3	4
3) 참으려다가 와락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는 때가 있다	1	2	3	4
4)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관대하게 봐주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는 편이다	1	2	3	4
5) 자녀로 하여금 자기가 할 일을 자기 스스로 찾아서 하게 하는 편이다	1	2	3	4
6)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7) 자녀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8) 가정 내의 질서를 위해 지켜야할 규칙, 규율을 엄격히 세우고 자녀가 지키도록 한다.	1	2	3	4

D5. 다음은 자녀양육관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구분에서 제시된 두 보기 중 본인이 생각하는 바와 더욱 일치하는 것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보 기
1) 육아와 나의 인생의 중요성	① 육아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고 싶다. ② 아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인생을 희생할 수 있다.
2) 엄마의 직접 양육의 중요성	①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 ② 엄마가 항상 곁에 없더라도 애정을 갖고 키우면 크게 상관없다.
3) 훈육	① 버릇없이 굴 때에는 매질을 해서라도 야단치는 것이 좋다. ② 버릇없이 굴 때에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말로 타이르는 것이 좋다.
4) 아이의 능력 개발	① 아이의 능력은 타고난 유전에 의해 많은 부분 결정된다 ② 아이의 능력은 자라는 환경에 따라 후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5) 집단 대 개인 중심의 가치	① 부모와 어른에 대한 존경심, 가족에의 배려와 헌신이 중요하다. ②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기 일의 성취가 중요하다.
6) 자녀 진로에 대한 의견	①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 지도하여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② 자녀가 흥미있어 하는 것을 찾아 자질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7) 국가의 책임	①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 ② 자녀양육에의 역할과 책임은 온전히 부모의 몫이다.

**D6.** 자녀 양육시 느끼는 정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응답해주시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를 키우면서 내 자신도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1	2	3	4
2) 아이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럽다	1	2	3	4
3) 아이를 키우면서 참고만 사는 것 같다	1	2	3	4
4)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1	2	3	4
5) 아이가 장래에 잘 성장할 지 걱정된다	1	2	3	4

**D7.** 귀하의 남편은 다음과 같은 자녀 돌보기를 어떻게 분담하십니까?

구분	전적으로 남편 분담	대부분 남편 분담	부부 공동	대부분 부인 분담	전적으로 부인 분담	다른 사람이 도움
1) 밥 먹고 옷 입는 것						
2) 함께 놀아주기						
3) 아플 때 돌봐주기						
4)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						
5) 보육시설·유치원 등·학교 시키기						

**D8.** 부부간 성역할에 대한 다음의 태도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대체로 찬성한다	전적으로 찬성한다
1)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2)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3)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4)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				
5)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				

**D9. 현재 생활 및 자녀양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항목	매우 불만족 스럽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1)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2) 현재 자녀성장 모습에 대한 만족도				

**V. 기타 - 한국(어) 관련 질문입니다.**

**D10. 귀 자녀가 성장하여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 ①전혀 바라지 않는다    ②그다지 바라지 않는다    ③대체로 바란다    ④매우 바란다

**D10-1. 귀 자녀가 성장하여 (중국에서) 한국기업에 취업하여 일하기를 바라십니까?**

- ①전혀 바라지 않는다    ②그다지 바라지 않는다    ③대체로 바란다    ④매우 바란다

**D10-2. 귀 자녀가 성장하여 한국에서 일하기를 바라십니까?**

- ①전혀 바라지 않는다    ②그다지 바라지 않는다    ③대체로 바란다    ④매우 바란다

**D10-3. 귀 자녀가 성장하여 한국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라십니까?**

- ①전혀 바라지 않는다    ②그다지 바라지 않는다    ③대체로 바란다    ④매우 바란다

**D10-4. 귀 자녀가 한국에서 공부하기를 바라십니까?**

- ①전혀 바라지 않는다    ②그다지 바라지 않는다    ③대체로 바란다    ④매우 바란다

**=D10. 다음은 한국 관련하여 귀 자녀의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바라지 않는다	그다지 바라지 않는다	대체로 바란다	매우 바란다
1) 자녀가 성장하여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기를 바란다.				
2) 자녀가 (중국에 있는) 한국기업에서 일하기를 바란다				
3) 자녀가 한국에서 일하기를 바란다.				
4) 자녀가 한국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란다.				
5) 자녀가 한국에서 공부하기를 바란다.				

**D11.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 ① 주로 한국어    ② 주로 중국어    ③한국어와 중국어 혼용    ④ 기타:\_\_\_\_\_

D12. TV 시청 시, 한국 관련 만화나 영화, 드라마, 쇼 등을 자녀에게 보여주십니까?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⑤보여주고 싶으나 접하기가 어렵다

### VI. 부모 특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녀를 중심으로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 (배우자)	모 (※응답자본인)
1. 부모님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세	만      세
2. 부모의 민족을 표시해 주세요. ① 조선족      ② 한족      ③ 기타(_____)		
3. 부모의 학력을 표시해 주세요. ① 무학      ② 소학교      ③ 초중급학교 ④ 고급중학교      ⑤ 대학(3년제 이하)      ⑥ 대학교(4년제 이상) ⑦ 대학원 이상      ⑧ 비해당(부재)		
4. 현재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판매종사자      ⑤ 서비스 종사자      ⑥ 농업·어업·임업·축산업 종사자 ⑧ 기능 관련종사자      ⑨ 기계 장치 조립종사자      ⑩ 단순노무종사자 ⑪ 무직      88) 비해당(부재)		
5. 한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거주하셨습니다? 거주기간을 기록해 주세요 ※ 거주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0을 기록합니다.	—년 —개 월	—년 —개 월
5-1. 한국에 거주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취업      ② 본인 및 배우자의 학업 ② 자녀의 학업      ④ 기타(_____)		
6. 현재 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위안화) ※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0을 기록합니다.	가구 총소득 월      원	

※ 응답자가 '모'가 아닌 경우, 본 설문에 응답하신 분은 (자녀 기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